

# 11연패의 금자탑을 세우며 중주국의 위세 과시

송봉섭 / 한국대표선수단 단장



제 11회 세계 태권도선수권(여자 제 4회) 대회가 1993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체육관에서 장엄하게 펼쳐졌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1993년 8월 12일 오전 11시 올림픽 회관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 회장님을 모시고 결단식을 가졌다.

최세창 회장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승부와 성적이 치우치지 보다는 모든면에서 수범적인 모습을 모든 선수단에게 보여주어 태권도 중주국 선수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란다는 당부 말씀이 계셨다. 우리 선수단은 임원·선수 모두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부끄럽지 않은 명쾌한 대회 결과들 얻어 보자는 단단한 각오와 함께 1993년 8월 16일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장도에 올랐다.

기내에서부터 우리 선수단은 시차 적응을 위한 시련이 시작되어 식사에서 수면을 취하는데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면면히 볼 수 있었다. 약 13시간의 비행끝에 현지시간 1993년 8월 16일 저녁 8시경 뉴욕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체육관과 인접해 있는 펜타 라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현지 전력 준비에 들어갔다.

호텔의 규모는 크다고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약 천여명의 모든 선수단이 투숙한 관계로 호텔로부터 북적대고 숙소는 아수라장을 이루며 각양 각색의 사람들로 들끓어 마치 인간 전시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였다. 숙소는 불편한 편이었지만 우리 선수단은 틈틈이 현지 적응훈련을 쌓기로 하고 다음날 17일부터 선수단 일체 준비에 돌입했다. 선수단 등록, 세계 태권도 연맹 총회 현지 코민들의 선수단 초청, 현지 기자들의 면담 등 바쁜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 되면서 드디어 서막의 장이 시작되는 8월 19일 저녁 7시.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프로 권투나 프로 농구

▶ 결단식에서 송봉섭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는 최세창회장

경기등으로 유명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체육관은 1만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회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개회식에는 상당수의 IOC위원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육계인사들이 대기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박태권 문화체육부 차관도 참석하여 우리 선수단의 사기는 충천했다.

레오리 워커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김운용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IOC 부 위원장)는 축사에서 태권도 대회가 세계속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개최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이며, 이 대회를 계기로 2천년 올림픽에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으며, 데이빗 딘킨스 뉴욕 시장은 환영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태권도 세계 대회가 뉴욕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며 열기가 뉴욕뿐 아니라 전미 지역으로 나아가 세계 방방 곡곡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박태권 문화체육부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있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식후 행사에는 미국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행사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실내 불꽃 놀이로 개회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개회식에 이어 첫날의 남·여 밴텀급·페더급 경기가 열려 각국 선수들이 불꽃튀는 열전을 벌였으며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여 경기를 펼칠 때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첫날 경기에서는 남자 밴텀급의 김인경 선수가 금메달, 남자 페더급의 김병철 선수가 금메달, 여자 밴텀급의 원선진 선수가 준결승에 머무는 아쉬움을 가지게 했지만 여자 페더급의 이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우리 선수단의 출발은 꽤조를 불렀다.

이튿째 남·여 플라이급·라이트급·미들급 경기에서 남자 플라이급의 박재성과 미들급의 이동



완 선수가 멋진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깝게도 예선에서 탈락하는 불운을 맞았으나 남자 라이트급의 박세진 선수가 금메달을, 여자 플라이급의 유수미 선수가 금메달, 여자 라이트급의 박경숙 선수는 금메달 획득이 예상됐으나 아깝게 결승전에서 분패하는 아쉬움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여자부 미들급의 박은선 선수가 우승을 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을 안겨주었다. 3일째 마지막 날의 남·여 편급·웰터급·헤비급 경기가 있던날은 술렁이는 경기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선수단은 임원·선수 모두가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한게임 한게임을 신중한 전략을 펼쳐 나가기로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신장이나 체력면에서 다소 불안감을 가졌던 남·여 헤비급에서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는 쾌거를 장식하여 태권도 종주국 선수단으로서 우수한 면모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실히 시켜주는 한마당 잔치였다. 우리 선수단은 남자 선수가 금 6개, 여자 선수가 금 5개, 은 1개, 동 1개로 남·여 선수 공히 단체 우승과 함께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열전 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대회 전체 규모나 운영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와 세계 태권도 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바쁘신 정사에도 현직까지 오셔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 해 주신 박태권 문화체육부 차관과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교민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최세창**

## 헤비급까지 총 6체급 석권하는 위력 발휘

유수철/한국대표선수단  
남자부 감독  
리라공고 교사

대회는 미국 뉴욕시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체육관에서 1993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벌어졌다.

남자부의 경기에는 445명이 출전하였다.

첫날은 밴텀·페더급의 경기, 둘째날은 플라이·라이트·미들급, 셋째날 핀·웰터·헤비급의 경기가 치루어졌다.

경기장은 6코트로 남자가 4코트 여자가 2코트를 사용하였다. 코트가 많아 경기는 휴식시간없이 바로 바로 돌아왔다.

참가선수가 많고 일정이 짧아 예선은 2분 3회전으로 조정되었고 준결승부터 3분 3회전으로 치루어졌다.

계회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있었고 첫날 경기는 11시부터 둘째날 경기는 12시부터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전날인 8월 18일 대표자회의에서 대진추첨을 하였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대진운이 좋은편이었다.

대진추첨은 5시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추첨과정에서 추첨공을 참가선수보다 1개 적게 추첨함에 넣어 재추첨하는 우스운일도 있었다.

세계대회 사상 최초로 전광판이 사용되어 박진감이 있었으나 운영에 미수도 생겼다. 다운이 되어 카운트를 했는데 득점이 올라가지 않는 등 미숙한 점도 발견되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지고 왔으나 선수들의 세대교체로 노련하고 위협적인 선수는 적었다.

이번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외국선수들의 세대교체로 과도기의 상대국들을 맞아 쉽게 종합우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만 상대를 이긴 것은 아니었다. 체급마다 극적인 역전 등 고전을 한 경기도 많다. 이것은 그들보다 다소 경기 경험이 많아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앞으로 상대국들도 경험이 축적된다면 우리가 유리할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월등한 선수들이 기술축적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종주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녀 대표선수들의 관리를 조직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8월 19일 첫날경기

#### 밴텀급경기

6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강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체급으로 코칭시스템은 당초 가장 긴장한



▲ 유수철감독의 작전지시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 종합성적

순 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6		
2	스 페 인	1		2
3	프 랑 스	1		1
4	캐 나 다		2	1
5	브 라 질		2	
6	멕시코	1		2
7	터 어 키	1		1
8	대 만	1		
8	덴 마 크	1		
10	미 국			2
11	베네주엘라			1
	말레이시아			1
	필 리 핀			1
	키프로스			1
	독 일			1
	이 집 트			1
	나이지리아			1

체급이었다.

한국의 김인경 선수가 출전하였고 지난번 그리스 세계대회에서도 우승을 빼앗긴 체급이었다.

그러나 경기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대진운동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강력한 우승후보들이 예선서 북병들에게 물러 탈락하였다.

김인경 선수는 1차전을 부전승하며 순조롭게 2차전에 진출하였다.

2차전은 칠레의 DIEGO REYES 선수에게 다소 고전했으나 뒤차기로 득점, 1:0 판정승을 거두었다. 3차전은 브라질의 SEDEL MEIER 선수에게 3:1승 4차전은 이집트의 SHALBY 선수에게 3:0승. 준결승은 필리핀의 VARGAS 선수에게 3:1승 하고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은 캐나다의 NAJEN 선수를 맞아 손쉽게 공격을 시도하며 5:0 판정승,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지했다.

한국의 첫번째 금메달이었다.

페더급경기

66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한국의 대표는 김병철 선수.

페더급에 출전한 전선수의 실력차는 거의 없는 정도였다. 어느 한 선수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김병철은 매경기 손에 땀을 쥐게하는 열전을 펼쳤다. 예선 두 경기는 종료 20초전까지 패배 직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하기도 했다.

1차전은 네덜란드의 OOSTRUM 선수에게 시작하자마자 오른발돌려차기를 강타. 이것으로 기선을 제압 쉽게 3:1 판정승을 거두었다.

2차전은 이태리의 ALISM 선수에게 2회까지 0:2로 패색이 짙었으나 3회전에 집요한 공격으로 경고를 2개 빼앗고 득점을 뺏아내 감점으로 역전승 3:2 판정승.

3차전 말레이시아의 SING 선수에게 시종일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2회 종료까지 2:3으로 3회들어 종료 30초전 오른발돌려차기로 득점 힘겹게 판정승하였고 4차전은 이집트의 HENAWY 선수와의 경기. 경기장이 모두 6코트라 설사없이 다음 경기출전선수를 호명하는 바람에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바로 경기에 임해야하는 실정이라 계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체력으로 맞서며 역시 4:3으로 판정승하고 준결승 진출.

준결승은 스페인의 ZAS 선수와 겨루게 되었다. 이선수는 충분히 연구와 대비가되어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개회식관계로 1시간 20분정도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 결국 5: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은 브라질의 IWAMA 선수와의 대결이었다. 경기출전 경향이 많고 와이드하였으며 김병철 선수를 철저히 분석, 오른발을 경계하며 경기를 조심스럽게 끌고갔다. 앞돌려차기를 주고받으며 접전끝에 3:1 판정승으로 우승하였다.



## 8월 20일 둘째날경기

### 플라이급경기

플라이급 경기는 전체참가선수가 51명 이었다. 한국의 대표는 박제성 선수였다. 플라이급은 크게 경계대상은 없으나 모두 수준급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1차전을 스웨덴의 ALFONSO DIAZ 선수를 맞아 가볍게 7:0 승으로 서전을 장식하고, 2차전을 푸에르토리코의 JOSE SUAREZ 선수에게 7:1 승, 3차전을 필리핀의 RODOLFO ABRATIQUE 선수에게 5:0 승, 4차전(준결승) 브라질의 YAMAGUTI 선수에게 2:3으로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탈락했다. 화려한 경기를 펼치고도 득점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경기였다.

스페인의 JAVIER ARGUDO 선수가 브라질의 YAMAGUTI 선수를 물리치고 어부지리 우승을 하였다.

라이트급은 6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한국의 박세진 선수가 출전하였고 이 체급은 특별히 경계대상선수가 보이지 않았다.

1차전은 이란의 GAL BROTH 선수에게 K.O 승, 2차전은 스페인의 SANCHEZ 선수에게 4:0 판정승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잘풀어갔다. 3차전은 루마니아 선수에게 역시 K.O 승을 거두어 관중은 온통 박세진 선수에게 주목되어 언제 K.O 가 나올지 관심사였다. 4차전은 나이지리아 IGHOMEN 선수에게 2:0 판정승, 5차전은 네덜란드의 BUTER 선수에게 2:0 판정승.

준결승전은 독일의 ACHARKI 선수에게 4:1 판정승 그러나 이 경기에서 박세진 선수의 왼쪽 팔이 끌려 이것을 상대선수에게 눈치채지못하게하고 경기를 끝까지 치루고 결승에 대비 태이핑과 보호대로 골절부위를 커버하고 결승 경기를 맞았다.

결승전은 캐나다의 VICTOR LUKE 선수를 맞아 시종 무리한 공격을 자제하고 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작만 가지고 하자니 경기가 단조로울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두 선수는 지난 세계대학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격돌했던 경험이 있어 그리 쉽게 경기가 풀어지지 않았으나 투혼을 발휘한 박선



수가 4:1 판정승하고 감격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우승한 박세진 선수의 부상은 경기가 끝나고서야 알려졌다.

미들급경기는 4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한국대표는 남자선수 중 막내인 서울체고의 이동환 선수가 출전하였다.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국제대회에 처녀 출전하는 만큼 긴장되어 재실력을 발휘해 보지 못하고 탈락하는 아쉬움을 남기었다.

이 체급은 전대회에 비해 전력이 뒤떨어진 감이 있었다. 이 선수의 1차전 상대는 호주의 HANSEN 선수였는데, 상대의 전력을 탐색하기전 뒤로 빠지며 오른쪽 돌려차기에 1실점을 당하자 당황한 나머지 공격하다 같은 상황으로 다시 1실점. 무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득점치 못해 1회전 0:2로 탈락하고 말았다.

미들급 경기에서는 프랑스의 MIKKAEL MELOUL 선수가 우승을 차지, 남자부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수훈을 세웠다.

## 8월 21일 마지막날경기

### 핀급경기

출전선수는 43명. 가장 가볍고 빠른 선수들의 경기로 한국대표는 진승태 선수가 출전했다. 당초 강력한 우승후보는 그리스 세계대회와 바르셀로

나 올림픽을 제패한 덴마크의 GERGERY SALIM 선수였다. 전 선수는 1차전을 독일 SAHIN OZAN 선수에게 8:0 판정으로 가볍게 누르고 2차전에 올라 스웨덴의 CAROS CHAMORR 선수에게 5:4 판정승 하였으나 2회 한때 뒤추리기를 맞고 다운 카운트를 세는 등 다소 고전했다. 3차전은 영국의 RICHARD BAKEWELL 선수에게 4:0 판정승 준결승에서는 캐나다의 EAMON NOLAN 선수에게 가볍게 8:1 판정승하고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다.

발놀림이 빠르고 경기운영이 노련한 진선수와 긴리치와 파워가 좋은 GERELY 선수가 뒤차기로 득점하고 2회까지 2:2 무승부였다. 3회에 들어서 또다시 GERGEL 원발밀어차기로 득점 2:3 되는 순간 원발 돌려차기로 득점 3:3이 되었고 종료 35초전 원발들어 찍기로 득점 4:3으로 승리하였다.

핀경기는 대체적으로 실력이 향상된 체급이었다.

결승에 오른 두 선수가 모두 예선서 힘겨운 승부를 하고 결승에 진출하였고 예선서 좋은 기량을 가지고 경험부족으로 패한선수도 많아 차기대회에 경계를 해야만 할 것이다.

#### 웰터급경기

6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한국에서는 임영호 선수가 출전하였다. 웰터급 역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특별히 눈에 띄는 선수는 없었다. 임영호 선수는 1차전을 영국의 MORGAN 선수를 맞아 주목기인 원발공격으로 7:2 판정승으로 가볍게 이기고, 2차전에서는 노르웨이의 GUZELCE 선수에게 4:0 승, 그러나 이 경기에서 임선수는 오른발등을 부상당했다. 3차전은 독일의 SCH-ETTERBAUR 선수에게 역시 원발공격이 주효 5:0승. 다행히 원발을 주특기로 하는 선수라는 것을 상대가 읽지 못했던것이 주효했다. 4차전은 스페인의 LARUDO GOTTIA에게 4:1승. 5차전은 사이프러스의 ANDREAS에게 역시 원발공격으로만 4:0승(준결승). 6차전은(결승) 대만의 LU 선수와의 대결로 대만의 하용성 코치는 입선

수가 오른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읽어냈고 철저히 원발을 집중 공략당해 2회 종료까지 3:6으로 뒤졌고 패색이 짙었다.

3회에 들어서 LU선수는 점수 지키기 작전으로 들어갔고 임선수에게 밀렸다. 여기서 몸통공격으로 2득점하고 종료 7초전 계속 빠져다니던 LU 선수가 경고 2개를 받고 당황, 들어오는 것을 오른발 들어찍기로 공격도 한번의 역전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 헤비급경기

헤비급 경기는 47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한국에서는 상무소속의 김제경선수가 출전.

김제경 선수는 헤비급 답지않게 빠른 발놀림과 큰기술로 서구의 장신 선수들을 간단히 요리했다.

그동안 헤비급에서는 장신선수들에게 지배당하던 때가 있었으나 기술로 단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압도하여 헤비급에서 오랜만에 우승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김제경선수의 빠르고 큰 기술은 출전선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었다.

1차전에서 도미니카의 VASQES 선수에게 4:0승 오른발뒤차기와 나래차기로 득점하였으며 오른발 들어찍기로 다운을 한차례 빼앗기기도 했다. 2차전은 말레이시아 KARSHNANM 선수에게 가볍게 4:0 승리. 3차전은 독일의 WILKEN 선수가 예선 2차전까지 K.O.승을 거두며 승리했는데 김제경선수에게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했는지 옆구리 부상을 이유로 기권하였다. 4차전은 카자흐스탄의 SERIKOVICH 선수에게 1회 20초경 원발 발바꾸어 차기에 이은 오른발 얼굴돌려차기로 K.O 승을 거두고 4강에 진입했다.

준결승은 프랑스의 TROUDART 선수에게 6:2로 가볍게 승리.

결승에서는 터키의 ALI SAHIN 선수가 역시 부상을 이유로 기권,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다. 기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공할만한 빠르고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선수의 화려한 기술이 나올 때마다 스탠드의 관중들로부터 함성이 터져 나왔다. **▶E-20**

## 여자 4연패 성공하며 코리아 열풍



▲ 한국은 좋은 기량을 보이며 메달행진을 계속했다.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는 금5, 은1, 동1개를 획득하는 개가를 올리며 종합 4연패에 성공했다.

역대 최강의 전력을 평가받으며 장도에 올랐던 한국 대표팀은 4개 체급에 우승을 예상했으나 그동안 유럽세에 빼앗겼던 여자 헤비급 정명숙선수 등이 우승하는등 예상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며 중주국의 위세를 과시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세계선수권대회 파견에 앞서 태릉선수촌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대회 보름전부터는 세계대회의 시차극복과 야간경기 적응을 위한 야간 및 새벽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세계대회가 하루에 2~3체급씩 예선부터 결승

까지 모두 치루어지기 때문에 체력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매일 경기가 오후에 시작해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경에 끝나는 야간 경기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훈련방식이 이번 대회에 성과가 컸다고 본다.

대회 첫날 페더급의 이승민(경희대)은 8강전에서 91세계선수권대회 및 92올림픽 챔피언인 대만의 통야링을 5:2 판정승으로 꺾은 여세를 몰고 준결승에서 독일의 베테를 가법게 제친뒤 결승에 진출했다. 터키의 델릭타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5:1 판정승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세계 페더급 최강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자 밴텀급의 원선진(경희대)은 89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로 대회 2연패의 기대

를 모았는데 준결승에서 91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대만의 탕휘웬에게 1:2로 아깝게 져 동메달에 머물렀다.

대회 2일째 경기에서는 미들급의 박은선(고양여고)이 국제대회 처녀출전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결승에서 그리스의 카테리나 바시를 3:0 판정승으로 가볍게 꺾고 금메달을 따내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플라이급의 유수미(리라공고)는 다양한 기술보다는 앞차기와 옆차기를 주특기로 상대를 공략, 준결승에서 이집트의 이나스아니스를 1:0으로 제친 후 결승에서 멕시코의 아게다 페레스를 7:2 판정승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며 이겼다.

그러나 라이트급의 박경숙(경희대)은 결승에서 많은 공격을 퍼붓고도 우세패를 당함으로써 안타

#### 제4회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종합성적

순 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5	1	1
2	스 페 인	2	1	
3	대 만	1		2
4	그 리 스		2	1
5	터 어 키		1	2
6	멕 시 코		1	
6	인도네시아		1	
6	베네주엘라		1	
9	미 국			2
10	이 집 트			1
	네덜란드			1
	독 일			1
	푸에르토리코			1
	아르헨티나			1
	콜롬비아			1
	핀란드			1
	스웨덴			1



▲ 김영희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라이트급 패권은 스페인의 산토라리아가 따내 한국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리고 있었다.

대회 마지막 웰터급의 김미영(용인대)과 헤비급의 정명숙(혜성여고)이 우승, 모두 5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4연패에 성공하였다.

웰터급의 김미영은 준결승에서 대만의 차이페이산을 4:1 판정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 그리스의 모레오를 6:1 판정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헤비급의 정명숙도 준결승에서 스웨덴의 안나를 5:2 판정으로 누르고 결승에서 베네주엘라의 카모나를 6:4 판정으로 이기고 헤비급 정상에 오름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한편 핀급에 출전한 유수진(경희대)은 스페인의 이사벨 크루자르에게 막상막하의 경기 끝에 3:2 판정으로 지고 예선탈락했다.

이사벨 크루자르는 여세를 몰아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올라 인도네시아의 쿠르니아를 7:5 판정으로 이기고 승리, 금메달을 따냈고 여자 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금5, 은1, 동1개를 따내며 종합우승, 대회 4연패를 이룩하며 태권도 중주국의 위세를 과시했다.

스페인 은 금2, 은1개로 여자부 2위를, 대만은 금1, 동2개로 3위를 차지했다. **태권**

# 한국은 태권도로 세계를 지배

김덕기/ 스포츠서울 체육1부 차장

태권도인들은 “美國은 CIA, 日本은 종합상사, 韓國은 태권도로 世界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차렷 경례 그만 시작” 등 우리말 구령소리가 가득 찬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의 열기를 피부로 느낀 사람이라면 ‘한국은 태권도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결코 태권도인들의 我田引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다.

미국의 중심부라는 뉴욕에서, 그것도 스포츠메카라고 불리는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선수들은 물론이요 관중들도 한글 ‘태권도’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거나 모자를 쓰고 체육관 안팎을 자랑스럽게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만 한국 태권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케 된다.

130개 세계태권도연맹(WTF) 회원국중 87개 회원국이 출전한 이번 제11회(여자 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각각 단장과 감독 코치는 대부분 한국인이다.

대회 임원도 대부분 한국인이며 중요한 일은 거의 한국인들이 하고 자질구래한 일은 미국인들이 도맡아 한다. 어디 그뿐이라, 제 아무리 콧대 높은 미국인이라도 태권도 文化를 하루라도 접한 뒤에는 한국인 누구를 만나도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히며 ‘에스 서’를 연발한다.

태권도의 위상을 잘 대변해주는 대목들이다.

메디슨 스퀘어가든 5층 로비에 마련된 한국의 일과 문화가 가득 깃들여진 태권도 용품과 대회

기념품 판매대도 예외는 아니다.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는 이리저리 뜯어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야단이다.

어떤 친구는 태극마크와 필름이라고 새겨진 머리띠를 사서 머리에 두르고는 개선장군 인양 의기양양하게 체육관 안팎을 활보한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140만달러(11억5천만원)가 투입된 메이드 대회로 월드컵축구대회와 비견될 수는 없지만 규모면에서나 예산면에서 어느 단일 종목 세계선수권대회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대회로 평가받을 만하다.

지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메디슨 스퀘어가든 대관료와 ABC-TV 방송료로 각각 35만달러(2억8천4백만원)라고 한다.

엄청난 돈을 지불했는데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대회를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후보를 뽑는 정당대회, 미국프로농구(NBA),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등 최고 최대의 행사만을 하는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아마추어 종목이 대회를 한다는 것은 꿈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태권도는 세계선수권대회를 훌륭히 치렀고 흥행에서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중계권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방영료를 줬다고는 하지만 미국 유수의 방송사인 ABC-TV에서 그것도 골든타임인 토요일 하오 3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태권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

▼ 금메달을 향한 발차기 공격이 위력적으로 적중하고 있다

으로 전과를 발사하는 ABC는 회사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명예도 중시하기 때문에 억만금을 준다고 어떤 종목이든 마구잡이로 방송을 하지 않는다. ABC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 태권도 홍보에 큰 몫을 했다. 한글로 된 '태권도' 자막을 첫 장면으로 시작한 방송은 한국 고유무술장면이 있는 韓國畫를 배경으로 해설가를 등장시켜 경기방법은 물론 점수 따는 법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요한 경기는 하이라이트로 편집, 시청자들에게 '競技' 태권도의 진수와 흥미를 제공했다.

이번 대회 공식 숙소인 뉴욕 중심가 맨하탄 33번가에 있는 라마다호텔은 1천 5백개 객실 가운데 1천실을 태권도대회 참가자들이 사용, 태권도 본산이 됐다. 호텔 로비는 언제나 태권도복을 입은 87개국 선수들로 붐볐으며 인근 식당가는 '태권도 특수'로 호황을 누릴 정도였다. 몬트리올 500명, 오타와 200명 등 700명으로 구성된 캐나다인 참관단은 버스 20여대로 대회 이틀전인 18일 뉴욕에 도착, 캐나다에서의 태권도 열기를 반영케 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F) 제11차 총회가 벌어진 18일 하오 라마다호텔 골드볼룸에는 제12회대회를 유치하려는 덴마크 이집트 오스트리아의 홍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져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이미 83년 제6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덴마크는 대회로고가 새겨진 대형 홍보책자를 배포했다. 이집트는 주로 카이로의 유적지를 소개한 책자를 나눠주며 "아프리카와 아랍권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주요, 덴마크를 40-17로 누르고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19일 하오 7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김운용 WTF총재를 비롯한 8명의 IOC 위원, 명예 대회장인 딘킨스뉴욕시장등 많은 VIP가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육의 티'도 물론 있었다. 밴텀 페더급 경기가 벌어진 첫날 예상보다 참가국수가 크게 늘어난데다 조직위원회의 경험부족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미숙한 대회운영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조직위원회측은 예정시간보다 1시간 앞당겨 경기를 치르려 했으나 경기장 시설이 끝나지 않아 1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경기중간에는 매트 of 틈이 갈라져 이를 보수하느라 30분간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또한 WTF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미국태권도협회(USTU) 대회조직위원회 등 대회의 주체가 돼야 할 조직들이 서로 손발이 맞지않은 것도 지적사항이다. 그러나 이쯤은 큰 잔치에 있을 수 있는 양념 정도로 치부하자.

국제적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의 위상이 종주국이라는 한국에서는 어떤 것인가. 태권도인들은 국내에서의 태권도가 외국에서 받는 대접의 절반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공통된 바람이다.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샌다'는 우리네 속담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태권도다. 그러나 새는 쪽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역수입된 태권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람들의 입지가 자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점점 좁아지는 게 현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우리의 것이 태권도라는 소중함을 되새기며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갖자. **태권**

# 10년만에 헤비급 정상 탈환 세계선수권대회 MVP 김제경



▲ MVP트로피를 획득한 스페인의 이사벨과 김제경

이번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헤비급 경기에서 김제경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상대선수들을 누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 최강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민첩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는 멋진 플레이로 경기장을 가득메운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한몸에 받으며 승리, MVP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안았다.

이번대회 헤비급 정상탈환은 10년만의 쾌거로 83년 제6회 대회에서 장승화가 우승을 차지한 이래 출근 챔피언 자리를 재격조건이 좋고 체력이 뛰어난 유럽선수들에게 빼앗겨온 종주국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다.

김제경 선수는 92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한데 대회 출전에 앞서 가진 태릉선수촌 강화훈련기간 동안 "올림픽메달리스트로서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한다.

특히 김선수는 187의 신장에 86의 몸무게로 신체적인 조건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다가 무엇보다도 뛰어난 스피드로 기술을 구사함으로써 득점력이 좋아 이번 대회의 우승을 예상.

"국제대회는 국내대회보다 긴장은 많이 되나 경기를 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국내의 선수들은 선수들간의 기량을 알아내다가 비슷비슷한 경기 운영으로 오히려 국가대표선발전은 국제대회



▲헤비급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건 김제경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외국선수들의 경우 월등하게 체력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어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체력이 앞서는 선수들은 스피드가 빠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이용한 기술구사를 잘하면 훨씬 경기를 풀기가 쉽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김제경선수는 “대학 졸업후 상무부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신력이 강해진 것이 우승의 또 한 이유”라고 밝힌다.

이것은 군인이기 때문에 인기성 발언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경기실적을 보면 그말이 사실로 입증된다.

김제경은 대학졸업을 앞둔 91년 12월말 상무 소속으로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하여 최초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어 92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개선했다. 이어 3월에 개최된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다시 헤비급 국가대표가 되면서 태릉선수촌에 입촌해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그리고 김제경은 8월, 올림픽 대회에 출전해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며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영광을 차

지한 것이다.

울산 병영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현대자동차의 김화영선배로 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 수련 1년만에 태권왕겨루기에 출전해 미들급 동메달을 따낸 김제경은 이후 특기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태권도선수로 활약하다가 태권도 명문대학인 동아대에 입학, 김우규 감독의 지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전국대회에 입상하는 전적을 올렸다. 그러나 빈번히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밀리는 불운을 겪었던 김제경선수는 작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태권도선수로서의 본모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제경은 또다시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태릉선수촌 강화훈련에 참가하게 되는데 “스피드면에서는 같은급 선수에 비해서 뛰어난다만 체력면에서는 약한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봅니다. 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강화훈련에 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회 우승자답게 당연히 아시안게임에서도 승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제경선수는 올림픽과 세계대회 우승,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으나 아직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승의 목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태권**



##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

### 핀급: 금메달 진승태

소속: 한국체육대학

현단: 4단

신장: 168cm

체중: 54kg

학력: 전주완산국 · 전주완산중 · 경남체고졸 · 한  
체대 2학년

경기실적: '92 대통령기 핀급 1위

'92 73회 전국체육대회핀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핀급 1위

'92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핀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페더급 1위

### 라이트급: 금메달 박세진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77cm

체중: 72kg

학력: 서울명일국 · 서울한영중 · 서울체고졸 · 경  
희대 4학년

경기실적: '89 3회 프레월드게임 라이트급 1위

'92 3회 세계대학선수권 라이트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라이트급 1위

### 밴텀급: 금메달 김인경

소속: 한국체육대학

현단: 4단

신장: 172cm

체중: 58kg

학력: 성남제2국 · 한영중 · 성동고졸 · 한체대 3학년

경기실적: '90 월드컵대회 핀급 1위

'91 72회 전국체전 플라이급 1위

'93 국가 대표 최종 선발전 밴텀급 1위

### 웰터급: 금메달 임영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87cm

체중: 75kg

학력: 감천국 · 삼성중 · 부산체고졸 · 경희대 3학년

경기실적: '91 우수선수선발대회 웰터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92 10회 아시아 선수권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 페더급: 금메달 김병철

소속: 국군체육부대

현단: 5단

신장: 178cm

체중: 64kg

학력: 인천부평국 · 인천부평중 · 인천광성고 · 한  
체대졸

경기실적: '89 3회 월드컵 대회 페더급 1위

'89 3회 월드컵게임 페더급 1위

'90 2회 세계대학 선수권 페더급 1위

'91 최우수 선수선발 페더급 1위

'91 72회 전국체전 페더급 1위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페더급 1위

### 헤비급: 금메달 김제경

소속: 국군체육부대

현단: 4단

신장: 186cm

체중: 86kg

학력: 울산 병영국 · 울산중앙중 · 울산공고 · 동아  
대졸

경기실적: '92 73회 전국체육대회 헤비급 1위

'92 우수선수 선발대회 헤비급 1위

'92 10회 아시아 선수권 헤비급 1위

'92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헤비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1위

# 제4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 플라이급: 금메달 유수미

소속: 리라공업고등학교

현단: 2단

신장: 168cm

체중: 48kg

학력: 군산 경포국·군산월명중·리라공고 3학년

경기실적: '92 최우수 선수권대회 플라이급 2위

'92 연대총장기 플라이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플라이급 1위

## 페더급: 금메달 이승민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70cm

체중: 53kg

학력: 성남계2국·송신여자중·은광여고졸·경희대 2년

경기실적: '90 9회 아시아선수권 밴텀급 1위

'91 월드컵 밴텀급 1위

'92 세계대학선수권 밴텀급 1위

'92 최우수 선수선발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페더급 1위

'93 춘계 대학연맹전 페더급 1위

## 웰터급: 금메달 김미영

소속: 용인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72cm

체중: 63kg

학력: 강화국·강화여중·덕신고졸·용인대 4학년

경기실적: '92 최우수선수권 대회 웰터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 미들급: 금메달 박은선

소속: 고양여고

현단: 2단

신장: 167cm

체중: 63kg

학력: 백마국·고양여중·고양여고 3학년

경기실적: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미들급 1위

'93 국가대표 1차선발 미들급 1위

'93 중고연맹 미들급 3위

## 헤비급: 금메달 정명숙

소속: 혜성여고

현단: 2단

신장: 175cm

체중: 70kg

학력: 태능국·공릉중·혜성여고 3학년

경기실적: '92 10회 아시아 선수권 헤비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헤비급 1위

'93 여자개인 선수권 헤비급 1위

'93 용인대학 총장기 헤비급 1위

## 라이트급: 은메달 박경숙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63cm

체중: 58kg

학력: 제주서귀중앙국·서귀중앙여중·은광여고졸·경희대 1학년

경기실적: '89 3회 월드컵 게임 페더급 3위

'92 최우수선수 선발 라이트급 2위

'93 춘계대학연맹 라이트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라이트급 1위

## 밴텀급: 동메달 원선진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60cm

체중: 53kg

학력: 수원매곡·수성여자중·수원효원고졸·경희대 1년

경기실적: '89 제2회 여자세계선수권 플라이 1위

'92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92 최우수선수 선발 밴텀급 3위

'92 국가대표 선발전 밴텀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밴텀급 1위

# 김운용총재 재선

## 차기 세계대회 이집트 카이로 선정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8월 17일 미국 뉴욕 펜타 라마다호텔 회의실에서 86개국의 총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세창회장, 강원식 전무이사, 임춘길 사무국장이 회의대표로 참석했는데 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 선출

임기 4년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김운용 총재가 만장일치로 제6대 총재에 선출되었다.

임원구성엔 김운용총재에게 일임하기로 했는데 부총재 5명, 사무총장 1명, 재무 1명, 집행위원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김운용총재는 추대직후 인터뷰를 통해 “다가오는 2천년대를 향한 한국 태권도의 최대 목표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라고 전제하고 “전세계 130개 회원국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2. 차기 대회 개최지 선정

오는 95년도에 개최될 제12회(여자 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이집트 카이로가 결정되었다.

이집트는 오스트리아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총회에 참석한 86개국 회원국 투표에서 44대 1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아랍 및 아프리카권에 속하는 이집트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아프리카대륙의 태



권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월드컵대회 개최지 선정

내년도 월드컵대회 개최지는 중남미의 카이만 군도로 결정되었다.

### 4. 신규회원국 승인

이번 총회에서 16개국이 회원국으로 승인됨으로써 세계태권도연맹의 총회원국수는 130개국으로 늘었다.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된 국가(16개국): 남아프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성빈센트 그레나디네스, 벨라루스, 가봉, 우즈베크스탄, 아르바, 룩셈부르크, 스리랑카, 보이나 헤르체고이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스코에니아, 키리즈스탄

# 제2회 태권도 한마당 '93

11월 27일부터 3일간 88체육관서 개최

격파 및 품새 대회로 무도의 진수를 보여준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제2회 대회를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KBS 88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태권도 무도로서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창설된 태권도 한마당은 다양한 창작 품새와 건강품새 등이 출품되어 태권도의 지평을 넓히며 성공적으로 치루어진데 힘입어 대한태권도협회는 올해 해외 지부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여 국제화를 꾀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으로 한마당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품새는 단체, 격파는 개인종목으로 경연

지난해와는 달리 일부 변경된 대회요강을 보면 지난해 품새와 격파대회를 개인 및 단체 구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올해부터는 품새는 단체종목으로, 격파는 개인종목으로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품새부문에는 일반품새, 창작품새, 건강품새 등 3개 종목에 5, 9, 12, 15명을 구성하여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격파부문에는 경연자 1명이 실력을 발휘하며 강력한 힘을 선보이게 되며 종합격파의 경우 보조자를 대동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종목 참가자의 단체종목 출전은 한 종목에 제한하기로 했다.

## 공식 마스코트 진돗개



올해 태권도 한마당 마스코트는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로 제작되었다.

태권도가 일반적으로 강하고 딱딱한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을 형상화해 일반인들에게 친근감을 갖도록 노력해온 태권도협회는 지난해 황소를 마스코트로 한데 이어 올해는 진돗개로 정했다.

태권도가 순수 우리나라의 무도라는 점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태권도의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동물로 진돗개를 채택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 이미지인 태극문양과 조화시켜 우리나라 고유무도로서의 태권도를 형상화 했다.

마스코트 제작은 용인대 산업디자인과 강병돈 교수가 담당했다.



2. 부별참가종목

대회개요

1. 대회명 : 제2회 태권도 한마당 '93
2. 대회기간 : 1993. 11. 27~29.
3. 대회장소 : KBS 88체육관(강서구 등촌동)
4. 주최 : 대한태권도협회, 한국방송공사
5. 대회종목

가. 개인종목

- 손날격과 • 주먹격과 • 발격과
- 멀리뛰어차기 • 높이뛰어차기
- 종합격과

나. 단체종목

- 일반품새 • 창작품새 • 건강품새

6. 부 별

- 소년부 • 청년부 • 장년부 • 여성부

7. 시 상

- 가. 참가자 전원에게 대한 참가증서
- 나. 부문별 우수상, 감투상, 미기상, 장려상, 인기상 등
- 다. 관중을 위한 경품 추첨

참가요강

1. 참가자격

- 가. 소년부 : 15세 미만의 유품자
- 나. 청년부 :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남자 유단자
- 다. 장년부 : 35세 이상 남자 유단자
- 라. 여성부 : 15세 이상 여자 유단자

구분	부별	세 부 종 목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개인	손 날 격 과		○
	주 먹 격 과		○	○		
	발 격 과		○	○		
	멀리뛰어차기	○	○			
	높이뛰어차기	○	○			
	종합 격 과	○	○	○	○	
단체	일반 품 새	○	○	○	○	
	창 작 품 새	○	○	○	○	
	건 강 품 새		○	○	○	

3. 종 목

가. 개인종목

- 손 날 격 과 : 붉은 벽돌 격과  
(희망자는 기와 가능)
- 주 먹 격 과 : 기와 격과  
(희망자는 벽돌 가능)
- 발 격 과 : 송판 격과
- 멀리뛰어차기 : 장애물 넘어 송판 격과
- 높이뛰어차기 : 높이뛰어 송판 격과
- 종합 격 과 : 고난도 기술이나 종합기술을 평가하며 격과물의 소재는 제한치 않음  
(주 경연자 1명)

• 기준

구분 \ 종목	손		발	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손 날	주 먹		소년부	성인부	소년부	성인부
격 파 물	벽 돌	기 와	송 관	송 관	송 관	송 관	송 관
규 격	적벽돌		두께 2cm	1cm	2cm	1cm	2cm
1차 예선	1매	10매	3매	2.5m	3m	2m	2.5m
2차 예선	2매	15매	4매	2.7m	3.5m	2.1m	2.6m
최 종 전	3매 이상	16매 이상	5매 이상	2.7m 초과	3.5m 초과	2.1m 초과	2.6m 초과

평가: 예선전은 지정된 기준을 통과한 자를 합격시키고 최종전은 예선전 기준 이상을 참가자가 신청하여 실시하며 상위자를 입상자로 한다.

운동으로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경연시간은 2~3분으로 제한하며 필요시 음악 또는 음향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단체종목

• 일반품새

구분	내용	품 새	선 택	지 정
유품자	태극~급강	1	고려, 태극 8장중 1	
유단자	고려~일여	1	고려, 태백, 평원 중 1	

평가: 예선전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를 합격시키고 최종전은 고득점자 우선으로 입상자를 결정한다.

• 창작품새

기존품새와 유사한 형태로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새로서 기존품새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공방 또는 무기를 든 상대와의 공방기술로 구성할 수 있으며 태권도 동작 원리에 부합되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품새는 20~40개로 구성한다.

• 건강품새

건강품새는 태권도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품새와 창작품새의 구성과는 달리 일반인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쉽게 태권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 하되 형태는 전신

4. 참가인원

가. 개인종목: 경연자 1명  
(종합격파는 보조자를 대동)

나. 단체종목: 5, 9, 12, 15명을 구성  
다.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개인종목 참가자의 단체종목 출전은 한 종목에 한함)

5. 참가신청

가. 접 수 마 감: 1993. 11. 10(수) 17:00

나. 대표자회의: 1993. 11. 12(금) 14:00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

다. 접수처: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7호 대한태권도 협회  
전화: 420-4271~3  
FAX: 420-4274

라.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부(창작·건강품새부문, 종합격파부문 참가자만 해당) **태권**

# 대통령기 경기방식 변경

## 무제한급 5명 단체전 시행

내년부터 대통령기 대회가 체중에 관계없이 무제한 5명제로 대전을 펼치는 명실상부한 단체전이 치루어지게 된다.

지난 7월 12일 기술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대통령기 경기방식 변경내용을 보면 종전의 대통령기 대회가 단체전임에도 불구하고 체급별 개인전에 의한 메달수에 따라 단체성적이 부여된 것과는 달리 특별로 체급에 관계없이 최강의 선수들이 출전해 단체전 경기를 갖게된다.

따라서 대통령기 대회는 선수들이 체중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기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팀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팀의 응원전을 확대함으로써 팀웍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관중들도 야구경기처럼 팀의 선호에 따라 경기를 응원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제한급 5명의 시합은 그동안 체급별 경기에 의해서 체급만 다르던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도 별 신경쓰지 않았던 선수들이 상대팀의 전력분석에 민감하게 대처하게 됨으로써 기술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가 박진감을 띠게 될 것이고 관중들은 최고의 실력자가 누구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경기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 대회요강

1. 대회 명 : 제2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2. 대회기간 : 1994년 6월경
3. 주 최 : 대한태권도협회
4. 참가자격

가. 당해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

나. 국기원 단종 소지자로서 심신의 결격이 없는자.

### 5. 단체구성

가. 각 부별 단체는 체중에 관계없이 5명의 선수로 구성한다.

나. 단체는 학교, 군·경 및 직장의 팀으로서 한소속의 단일팀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다.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한다.

### 6.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전으로 한다.

나. 무제한 5명제로 각 팀 별로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순으로 대전한다.

다. 대전순위 제출은 경기 10분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전 선수의 경기종료 전이라도 승부가 확정되면 나머지 경기는 생략할 수 있다.

7. 경기시간 :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단,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8. 시 상

가. 입상팀의 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나. 단체 우승자 :

우승기, 배, 상장

단체 준우승상 : 배, 상장

단체 3위상 : 배, 상장

단체 감투상 : 배, 상장

단체 장려상 : 배, 상장

### 9. 기 타

가. 계재망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태권도**

# 대회 신설 실업 및 여자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대한태권도협회는 내년부터 국가대표선발 2차전을 폐지하는 대신 실업 및 여자부 태권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실업 및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대회인 실업 및 여자 전국단체대항태권도 대회는 체급별 8명제로 경량급에서부터 중량급 순으로 동일체급 선수끼리 겨루어 5선승제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내년도 4월에 개최될 실업 및 여자 단체대항태권도대회는 여자부의 경우 단체전이 전무한데다 남자부 실업팀 단체전도 대통령기 대회밖에 없어 실업팀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업 및 여자 단체전의 신설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실업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여자 태권도의 활성화와 기술 증진, 우수선수 발굴 등 태권도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 \* 국내 실업팀 현황

기업체 소속: 서울지하철공사, 현대자동차(주), (주)금복주

군 및 일반단체: 상무, 충남 보령군청, 대전 동구청, 대전 대덕군청, 강원도 춘천군청, 강원도 횡성군청, 경북 경산시청, 전북 전주시청, 체육선교신학교

## \* 여자팀 현황(92년도 팀등록 현황)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68개교, 대학교 9개교 총 139개교

내년도 4월에 첫 대회를 치르게 될 실업 및 여자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의 대회요강은 다음과 같다.

## 대회요강

1. 대회명: '94년도 실업 및 여자 전국단체대항태권도 대회
2. 대회기간: 1994년 4월경
3. 주 최: 대한태권도협회
4. 참가 자격
  - 가. 당해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
  - 나. 국기원 단증 소지자로서 심신의 결격이 없는자.
5. 단체 구성
  - 가. 각부의 참가팀 구성은 체급별(편급~해비급) 각 1명씩 8명의 선수로 한다.
  - 나. 단체는 학교, 군·경 및 직장의 팀으로서 한소속의 단일팀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 다. 실업(남자)부, 여자부(15세 이상)로 구분한다.
6.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전으로 한다.
  - 나. 체급별 8명제로 경량급에서부터 중량급 순으로 동일 체급 선수끼리 겨룬다.(5선승제)
  - 다. 전 선수의 경기종료 전이라도 승부가 확정되면 나머지 경기는 생략할 수 있다.
  - 라. 전 체급의 경기결과 동률로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때는 각 팀에서 지명한 1명의 대표끼리 겨루어 승패를 가린다.
7. 경기시간: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단,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8. 시상
 

입상팀의 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다.





▲ 종합우승을 거둔 한국 대표선수단

## 금4, 은1개를 따내며 최강국 자랑

지난 7월 22일 부터 8월 1일 까지 11일간에 걸쳐서 '93년 월드컵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태권도를 비롯하여 무려 25개 종목에 달하는 경기가 축제 분위기에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불링과 보디빌딩, 그리고 태권도가 참가하여 선전하고 돌아왔다.

그중에 태권도 경기는 24개 국가가 참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되므로 해서 한국의 대표선수단은 지난 7월 28일 낮 12시55분 KZ901기편에

올라 네덜란드로 향했다. 북부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풍차로 유명한 나라(실제로는 전국토의 25%가 바다보다 낮음), 전유럽에 꽃을 수출하고 있다는 튜립꽃으로 유명한 나라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86년전에 '일성' 이 준 열사가 장렬하게 순국하시고 문헌 역사의 명예이그를 향하는 우리 선수단일행의 마음은 감개무량 했다.

양영모/ 한국대표선수단 감독  
대한태권도협회 홍보본부  
위원장

암스테르담 시키폴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선수단 일행은 다소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와보니 네덜란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명수 사범의 환영을 받았다. 선수들은 서사범이 추천한 네대의 승용차편으로 경기가 치루어질 헤이그 시내에 위치한 숙소 Bel Air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 수가 있었다. 다음날부터 시차의 현상(약 7시간빠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습에 돌입 했다. 그러나 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내의 여유공간을 말하는데 한 경기장에서 두, 세가지 경기가 치루어지고 있어서 여유공간이라고 하여도 연습장으로는 너무 협소하여 여의치가 않았다.

더구나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흔하게 있는 사우나 시설이 없어 한국선수 6명중 3명이나 체중감량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보니 한국팀의 경기출전준비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선택의 여지도 없고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트레이닝을 보장하면서 식사를 굶는 도리 밖에는 없었다. 보고 있기가 민망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선수들의 체중감량 방법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여기에 연습장소(보조경기장)조차도 여의치 않고보니 각국 선수들과 다를 바 없이 한국선

수들도 호텔복도나 경기장 주변 공간에서 개별적인 연습이 실시되고 있으니 각국팀의 전력분석이나 평가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았다.

좀더 나은 연습장을 찾다못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 의뢰하니 대사관 지하실을 활용하도록 해주었다. 경기장 주변보다는 한결 나은 편이라 그곳에서 연습하기로 하였으나 경기가 진행되면서 시간상 여의치가 않아 사용하지도 못하고 말았다.

7월 30일부터 한국팀 숙소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HOUTRST SPORT 경기장에서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Hall I II III 중 I에서 치루어 졌다.

한국의 잠실 학생체육관 정도의 규모이나 전체적으로 더 넓어 TRAMPOLINZ 경기와 TUMBLING 경기가 같은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태권도 경기는

오전 11시부터 남자 핀급과 여자 플라이급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리 선수단 중에서는 여자 플라이급에 서미라 선수가 출전했는데 멕시코의 PEREZLOPEZ AGUEDA 선수와 겨루면서 역부족으로 첫 패배를 기록하자 한국선수단은 초긴장 상태가 되면서 굳어 지고 있었다.

경기를 마치고 나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첫 경기를 거울삼아 남아있는 경기를 충실하게 치루자고 당부 하면서 내일의 경기를 위한 전력분석으로 첫날을 마감하게 되었다.

여자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대만의 LOCHUNMEI 선수가 1위, 멕시코의 PEREZLOPEZ



▲ 헤비급 김현일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AGUEDA 선수가 2위를 차지하였다.

이날 팔목할 만한 것은 외국의 남자 핀급 선수들의 신장이 거의가 한국 페더급선수와 맞먹는다는 것과 체력면에서 그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였을까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 둘째날(7월 31일) 오후 17시 30분(현지시간)에 경기가 시작되면서 한국팀에서는 남자 플라이트급에 서성교 선수와 페더급의 김정호 선수가 그리고 여자 웰터급의 조항미 선수가 출전하여 금2, 은1개를 따내며 첫날의 패배를 설욕하는 선전을 펼쳤다.

서성교 선수는 첫 경기에서 터어키 선수를 제압하고 요르단 선수를 누르면서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HOANG NEHI 선수와 격돌. 마치 한국에서의 대표선 발전을 연상케하는 경기가 펼쳐지는 한편의 승부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장식하였다.

은메달을 차지한 프랑스의 HOANG NEHI 선수는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선수로 기대해 볼만한 선수였다.

페더급의 김정호 선수는 오스트리아 선수와 모로코 선수를 차례로 누르면서 결승에 진출해 스웨인의 ZASCOUCE FRANCISCO 선수와 격돌했는데 안타깝게 2위로 끝나고 말았다.

싸움에 이기고 판정에 진 어처구니 없는 한편 승부였다.

그리고 조항미 선수는 브라질



남자팀은 비교적 고르게 실력들이 향상되고 있는 현상에서 스페인이 강세였고 여자팀은 단연 대만이 강세를 보였고 독일과 덴마크, 이집트, 미국, 이태리 그리고 네델란드가 주목할 만하다.



▼ 주네덜란드대사관의 임인조대사와 부인이 경기장에 나와 선수단을 격려했다.

선수를 누르고 캐나다 선수를 제압하면서 결승에 올라 멕시코의 DELREALJAIMZ MONICA 선수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식이 끝나니 밤 22시 15분(현지시간)이었다.

이날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이없이 무너지는 한국팀을 보고 종주국인 한국팀을 제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던지 시종 열띤 경기를 펼치는 유럽 세와는 반대로 한국팀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경기중 한국 선수들은 잦은 경고를 받음으로써 종주국 선수로서의 체면을 깎았다.

경기장에는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 임인조 대사와 부인이 냉동시킨 음료수와 생수를 막스 체 들고와 선수단과 자리를 함께하며 시종일관 응원과 격려의 갈채를 보내주었다.



마지막날 경기(8월 1일)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한국팀에서는 남자 웰터급의 장종오 선수와 헤비급의 김현일 선수가 출전했다. 태권도 중주국의 체면을 지킬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전의 날이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의 종합 성적은 스페인이 1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선에서 장종오 선수가 독일 선수를 눌렀고 이어 김현일 선수가 러시아와의 부전승후 헤비급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독일의 SCHAWELIVER 선수를 2회전에서 통쾌한 K.O. 승으로 마무리짓자 경기장내 는 삽시간에 중주국의 저력으로는 뒤엎는 분위기로 바뀌고 말았다.

결승에 오른 장종오가 대만의 WEI CHENGHUNG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고 김현일 선수가 이집트의 ACAM YEHLA 선수를 꺾으면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3일간의 열전에서 한국팀이 금 4, 은 1로 종합 1위, 스페인이 금 3, 은 1, 동 1로 2위, 대만이 금 2, 은 2, 동 1개로 3위, 멕시코가 금 1, 은 2, 동 1개로 4위를 기록했다.

남자팀은 비교적 고르게 실력들이 향상되고 있는 현상에서 스페인이 강세였고 여자팀은 단연 대만이 강세를 보였고 독일과 덴마크, 이집트, 미국, 이태리 그리고 네델란드가 주목할 만하다.



▲ 금메달을 목에 건 플라이급 서성교선수.

특히 노메달이었지만 브라질팀의 선전도 돋보였다 하겠다.

한국팀에서 바라보는 경기진행상의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하겠으나 88 서울올림픽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체중감량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뿐더러 강력한 체력과 신장의 우세로서 추격해오는 유럽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한국 선수단은 대회기간중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 86회 추모식이 거행되어 참석함으로써 많은 교훈을 받았고 감회가 깊었다.

끝으로 선수단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주네덜란

드한국대사관의 임인조 대사와 박상식 영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안겨드리고 싶다.

#### 월드게임 한국대표선수단 명단

- 감독 : 양영모(대한태권도협회 홍보분과위원장)
- 코치 : 지용범(청주대학교 코치)
- 국제심판 : 김갑식(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부위원장)
- 선수 (남자부)  
플라이급 : 서성교(춘청군청)  
페더급 : 김정호(경희대)  
웰터급 : 장종오(용인대)  
헤비급 : 김현일(서울지하철공사)
- (여자부)  
플라이급 : 서미라(용인대)  
웰터급 : 조향미(경희대)

## 제 4 회 월드 게임 태권도 경기

### 메달리스트 프로필

#### 플라이급: 금메달 서성교

소속: 춘천 군청

현단: 4단

신장: 170cm

체중: 61kg

학력: 광희국·서울체육중·동성고·한체대졸업

경기실적: '90 제2회 세계대학선수권 편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플라이급 1위

'92 제10회 아시아선수권 플라이급 1위

'92 올림픽 대회 플라이급 3위

#### 웰터급: 금메달 장종오

소속: 용인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85cm

체중: 75kg

학력: 약대국·부천북중·정명고 졸업·용인대 3학년

경기실적: '92 27회 대통령기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 헤비급: 금메달 김현일

소속: 서울지하철공사

현단: 4단

신장: 186cm

체중: 82kg

학력: 용인대 졸업

경기실적: '88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89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89 제3회 월드컵대회 헤비급 3위

'90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3위

'90 우수선수선발전 헤비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1위

#### 웰터급: 금메달 조항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67cm

체중: 65kg

학력: 산곡국·북인천여중·인천체육고 졸업·경희대 2학년

경기실적: '91 국가대표선발전 웰터급 1위

'91 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웰터급 3위

'92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 웰터급 2위

'92 춘계대학연맹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선발전 웰터급 1위

#### 페더급: 은메달 김정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73cm

체중: 69kg

학력: 서울 한강국·경희대 2학년

경기실적: '92 73회 전국체전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2차 선발전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페더급 2위

#### 제4회 월드게임 태권도 경기 종합성적

순 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4	1	
2	스	페	3	1	1
3	대	만	2	2	1
4	멕시코		1	2	1
5	독일		1	1	1
6	덴마크		1		1
7	이집트			2	1
8	미국			1	3



▲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선수단.

## 금 5개로 종합우승 차지 이란 2, 독일 1개의 금메달 따내며 기량과시

### 한국팀 참가 선수단 명단

- 단장: 박기인(국방부 인사국 체육담당관)
- 감독: 황영갑(국군체육부대 태권도감독)
- 주무: 강진우(국군체육부대)
- 선수
  - 핀 급: 이정원(국군체육부대)
  - 플라이급: 이화진( )
  - 밴 팀 급: 박기정(1군 중사)
  - 페 더 급: 이종현(국군체육부대)

- 라이트급: 성의천( )
- 웰 터 급: 이동희(해군 1함대)
- 미 들 급: 정주석(국군체육부대)
- 헤 비 급: 홍윤기( )
- 밴 팀 급: 최인자(특전사여군중사)
- 페 더 급: 김정아( )
- 라이트급: 이미선(육군본부여군하사)
- DTC 장: 김해룡(해군중령)
- 국제심판: 김길래(1군사령부)
  - 김용대(2군태권담당)
  - 임성섭(정보사령부)



황영갑 / 한국선수단감독  
국군체육부대태권도감독

## 13개국에서 155명 출전

각국 군인들의 태권도 제천인 국제 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금년 5회를 맞이하여 캐나다 킹스턴시 왕립 군사 학교에서 13개국에서 155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 되었다.

우리 선수단은 6월 7일 하오 7시 50분 대한항공 072편으로 장도의 길을 올랐다. 뱅쿠버를 경유 토론토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다시 버스로 3시간여 지나보니 우리가 여장을 풀 킹스턴시 왕립 군사학교 기숙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우리선수단은 여장을 풀고 3시 30분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한국과는 13시간의 시차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어 우리는 시차를 극복해야만 했다. 이틀 후인 9일부터 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에 여념이 없었다.

## 시가행진 등 성대한 개막식

6월 8일 우리는 6시 30분에 기상하여 마중나온 머빈이라는 이 군사학교 재학생의 안내로 아침을 먹고 I·D 카드를 발급 받고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은 특이하게 킹스턴 시내의 시가행진과 함께 시청앞 광장에서 성대히 치뤄졌다. 자원 봉사자들과 그곳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였으며 킹스턴 시장과 함께 각국의 귀빈들도



▲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참석하였다.

## 대회 첫날 2체급 우승

경기 첫날 우리 선수단에서는 경량급인 핀급과 플라이급경기에 출전하였다.

플라이급 이화진 선수는 이란 선수와 독일 선수에게 월등한 경기로 우승하였으며 핀급의 이정원 선수도 다양한 발 기술로 우승하였다.

## 헤비급 흥윤기 캐나다, 독일, 이태리선수 이기고 우승

경기 둘째날 밴텀급과 헤비급 경기가 있었다. 밴텀급 박기정 선수는 이란 타마세비 선수에게 아깝게 분패하였으며 헤비급 흥윤기 선수는 취약체급임에도 불구하고 예선에서 캐나다 선수에 7-0으로 승리하였으며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독일팀의 윌켄스 선수에게 3-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 이태리선수에게 오늘밤 찍기와 뒷차기 공격을 적중시키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다음날은 주최처에서 킹스턴 시내 및 사우전트 아일랜드(이곳 킹스턴시 주위에는 천연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를 관광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약 한시간여 섬들을 구경하고 점심 식사후 우리는 포트헨리라는 기념관과 박물관을 구경하고 근무교대식 포츠는 관광, 죄수들의 옥살이, 장교들의 숙소 등 캐나다 군대의 옛모습을 견학하고 많은 것을 느껴오며 피곤함과 긴장감을 갖고 있던 선수들에게 여유를 갖는 좋은 기회였다.

## 라이트급, 미들급 탈락

6월 12일 경기 셋째날은 대회도 중반을 지나면서 각 국가간

의 치열한 경쟁으로 대회장 분위기가 한층 가열 되었다. 연일 캐나다 국영 T·V에서도 취재의 열을 올렸다. 특히 이란 팀은 대사관 직원까지 동원되었으며 전통복장으로 열띤 응원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라이트급 성의천 선수와 미들급 정주석 선수는 부상을 무릅쓰고 화이팅있는 경기를 펼쳤으나 아쉽게 분패했다.

## 핀급과 웰터급에서 금메달 획득

13일 경기 마지막날, 첫번째 경기는 우리팀 주장인 페더급 이종현 선수가 출전했다. 첫개입은 그리스 선수와 대전하여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3-0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개최국인 캐나다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노련한 경기운영과 고도의 기술을 보여주며 우승의 영

광을 안았다. 웰터급 이동희 선수도 준준결승에서 독일 선수와 백중환 경기를 펼쳐 이겼으며 결승에서도 사우디 아라비아 선수에게 과감한 공격과 화이팅있고 강한 체력으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날 우리 교민들 3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선수단에게 찬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이로써 우리 한국 선수단은 금 5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나머지 3체급은 이란 2체급과 독일 1체급에서 정상을 차지하였으며 여군 선수는 모두 예선탈락했다.

## 이란 및 유럽 태권도 막강

태권도가 국제적인 스포츠인 만큼 외국 선수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특히 중동권 이란의 수준은 종주국인 한국에 버금갈 정도의 수준이며 유럽권인

독일, 이태리의 수준도 만만치 않았다.

금번 제 5회 국제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통해 한국 선수들에게는 고난도의 기술발전기 개발과 특기발 개발의 시급함을 느끼고 종주국 태권도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매진 해야 할 것이라 고 본다.

한편 대회기간중 한국 유학생들의 식사 대접과 캐나다 한인회의 조구동 목사와 이성우 사범의 저녁 식사 초대와 그곳 교민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번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 뉴욕에 들렀을 때 그곳 뉴욕 태권도 협회장과 올해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오상근 사범 및 상무팀 선수 출신인 김광섭, 김용웅 사범 그외 여러 사범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태권도**



◀ 뉴욕 태권도 협회장 초청 저녁  
만찬후 기념 촬영



## 경성여실고 · 동성고 · 자양중 · 구월중 부별 우승 차지

### 제 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93. 8. 21~27, 잠실학생체육관)

유난히도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마는 출전 선수들의 마음을 알아주듯 무더위를 식혀주었고 피서철에 잠념이 생겨 연습에 지장을 줄까 걱정이나 하듯 불규칙하게 많은 비를 내려 주고 있었다. 물론 선수들에게는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농사일을 하는 많은 분들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무더위와 긴긴 장마를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태권도를 수련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과시하고자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필승을 향한 각오가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은광여고의 밴드부 연주에 맞추어 회장단과 내외 귀빈의 입장에 이어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회 선언되었다.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마침 같은 시기에 미국 뉴욕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 남·여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는 격려 말씀과 세계속의 무술인 태권도를 건전한 무도로 발전 시키는데 중교 태권도인들이 주역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문화 체육부 장관을 대신하여 최창신 차관보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만드는 수준 높은 무도 스포츠로 세계 스포츠 무대에 한국인 상을 심는데 기여한 자긍심 높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치사 말씀과 협회장을 대신한 격려사에서 홍종수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선수들에게 종주국의 영광과 명예를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장차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였다.

개회식이 끝나고 4개부에서 치열한 경기가 수행되었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저마다 모교의 명예를 위하여 선전 분투하는 선수들에게 각별 응원단의 격려 박수가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더 고조시켰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고등부 834명, 여자 고등부 153명, 남자 중등부 651명, 여자 중등부 135명(참가 학교 총 232개교)등 총 1773명이라는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무척 진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할 만한 것은 여자부의 기량이 향상되어 평준화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대회 우승자 등 기량이 우수한 여자선수들이 과거와 달리 어느 선수에게도 매경기 방심하지 않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어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었다. 여고부에서는 경성여실고가 3체급을 석권하는 실력을 보이며 지난해 우승한 리라공고를 누르고 우승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자양중이 11개 체급중 핀, 밴텀, 웰터 3체급 금메달을 따내며 최강을 자랑했다.

한편 남고부에서는 동성고가 4체급을 휩쓸며 태권도 명문고로서의 위용을 떨쳤고 중등부에서는 구월중과 부천동중이 막상막하의 기량을 보이며 각각 우승과 준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끝으로 매년 본 연맹대회에 적극 취재, 보도함으로써 태권도를 널리 홍보해준 각 일간지 보도진, 라디오, TV방송 특히 결승전 중계 방송에 임하여 주신 MBC TV 관계자 들에게 지면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태권**

(중고연맹 김부영 편집위원)

## 제 4 회 월드 게임 태권도 경기

### 메달리스트 프로필

#### 플라이급: 금메달 서성교

소속: 춘천 군청

현단: 4단

신장: 170cm

체중: 61kg

학력: 광희국·서울체육중·동성고·한체대졸업

경기실적: '90 제2회 세계대학선수권 편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 플라이급 1위

'92 제10회 아시아선수권 플라이급 1위

'92 올림픽 대회 플라이급 3위

#### 웰터급: 금메달 장종오

소속: 용인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85cm

체중: 75kg

학력: 약대국·부천북중·정명고 졸업·용인대 3학년

경기실적: '92 27회 대통령기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 웰터급 1위

#### 헤비급: 금메달 김현일

소속: 서울지하철공사

현단: 4단

신장: 186cm

체중: 82kg

학력: 용인대 졸업

경기실적: '88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89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89 제3회 월드컵대회 헤비급 3위

'90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3위

'90 우수선수선발전 헤비급 1위

'92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2위

'9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헤비급 1위

#### 웰터급: 금메달 조항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3단

신장: 167cm

체중: 65kg

학력: 산곡국·북인천여중·인천체육고 졸업·경희대 2학년

경기실적: '91 국가대표선발전 웰터급 1위

'91 제3회 세계여자선수권 웰터급 3위

'92 제3회 세계대학선수권 웰터급 2위

'92 춘계대학연맹 웰터급 1위

'93 국가대표선발전 웰터급 1위

#### 페더급: 은메달 김정호

소속: 경희대학교

현단: 4단

신장: 173cm

체중: 69kg

학력: 서울 한강국·경희대 2학년

경기실적: '92 73회 전국체전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2차 선발전 페더급 1위

'93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페더급 2위

#### 제4회 월드게임 태권도 경기 종합성적

순 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4	1	
2	스	페	3	1	1
3	대	만	2	2	1
4	멕시코		1	2	1
5	독	일	1	1	1
6	덴	마크	1		1
7	이	집	2		1
8	미	국		1	3

## 상무, 경희대, 상명여대, 해병대 우승

제2회 국방부장관기대회  
(93.9.6~10, 국군체육부대)



▲개회식 모습

국방부가 민주화합의 적극적 의지로 작년에 창설한 국방부장관기대회가 금년으로 2회를 맞으며 대학·일반·여자부 및 군팀간의 새로운 전통의 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개최된 제2회 국방부장관기대회는 전체 43개팀 34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개팀이 출전한 일반부 경기에서는 상무팀이 금5의 월등한 성적으로 지하철공사(금1), 보령군청(금1)팀을 제치고 1회대회에 이어 2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전국의 유명 대학강호 13개팀이 출전한 대학부에서는 경희대(금3)가 전년도 우승팀인 한국체대(금3)를 은1의 간발의 격차로 우승기를 빼앗았으며, 대학·일반 통합으로 진행된 여자부경기(11팀 출전)는 상명여대(금3)가 전년도에 이어 2연패를 안았다.

각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군팀(7팀) 경기는 각팀의 뜨거운 응원전속에 해병대(금3)가 우승기를 가져갔다. 군팀 경기는 군의 특성상 과열경쟁이 예상되었으나, 한치의 양보없는 경쟁속에서도 질서있는 운영과 성숙된 경기매너로 한 건의 사고 없이 치뤄내 많은 갈채를 받았다.

한편 대회를 주관한 국방부와 국군체육부대는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이 대회를 민간간의 전통있는 대회로 성장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전 준비단계부터 언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참가팀들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경기운영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국방부는 이 대회를 군태권도의 전반적 활성화 계기로 삼고 대회규모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권위있는 단체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태권**

## 한국체대 · 경희대 남녀 대학부 정상

제16회 회장기 전국대학 태권도대회

(93.9.16~17, 국기원)

열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대학연맹 회장기 전국 대학 대학 태권도대회가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대학에서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245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수준높은 기량을 발휘하였고 승리를 응원하는 관중석의 함성은 대회 열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대학 태권도인들의 축제 한 마당을 펼쳤다.

전년도 남녀 종합우승팀인 경희대학의 정상고수와 정상을 탈환하려는 각 대학의 불꽃튀는 접전은 대회본부석과 응원팀을 흥분의 도가니로 이끌었다.

(대회 첫날)

플라이급 정준호(목포대학) 선수와 임진표(인천전문대) 선수의 경기는 1, 2회전 열띤 공방전을 벌이며 얼굴을 가격하는 임진표 선수의 우세속에 3회 종료직전 임진표 선수가 들어가며 오른쪽 앞

돌려차기로 얼굴강타하여 K.O승으로 16강에 진출에 성공. 두번째 미들급 경기에서는 최승일(용인대학) 선수와 강병삼(한국체대) 선수의 경기는 중량급 답지않는 빠른 연결동작으로 시종일관 따름을 쥐게하는 공방전으로 마치 결승전 같은 응원전으로 경기를 끝냈다.

1회전에 최승길 선수 1득점 강병삼 선수 2득점 2회전 무득점인 가운데 3회전 각각 1점 득점의 팽팽한 긴장감속에 용인대학 최승길선수 뒤돌려차기로 종료 직전 득점올려 3:3 동점을 이루는 막상 막하의 경기를 펼쳤다. 심판판정은 최승길에 우세승 판정을 내리자 한국체대의 멋진 승복이 있었다.

이어서 계속된 여대부 경기중 해비급의 강철(경희대학)과 이용화(용인대학) 선수의 경기는 1, 2회전 무득점인 가운데 3회전에서 용인대학의 이용화선수 밀어차기 기술에 장철선수 다운되며 이 선수 1득점, 이어 장선수의 받아치기 공격으로 1득점 만회, 이용화선수가 뒷차기 1득점 성공으로 밀고밀리는 역전끝에 이용화 선수가 2:1로 승리하며 여대부 전체급 4강 진입하며 경기가 마무리되었다.

(대회 둘째날 경기)

남자 A조 플라이급 경기는 김봉찬(조선대) 선수와 김건일(계명대) 선수의 경기로 시작되어, 2회전에서 서로 별다른 공격없는 탐색전으로 끝나고 3회전 김봉찬 선수가 오른 얼굴 앞돌려차기로 1득점 성공에 이어 김건일 선수의 원발 앞돌려차기 1득점만회, 이어 종료직전 김봉찬 선수가 오른 앞돌려차기로 1득점 올려 2:1로 승리하였다.



▲대표선수 선사



▲시상식 모습

남자 A조 페더급 결승전에서 신보현(청주대) 선수와 안홍엽(용인대)는 경기 2회 안홍엽 선수가 오른 앞돌려차기로 1득점, 3회 안홍엽 선수가 뛰어엎차기 1득점, 신보현 선수 앞돌려차기 1득점에 이어 오른발 받아차기 1득점을 얻는 가운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공방전으로 심판진의 거듭된 숙의 끝에 청주대학 신보현 선수에게 우세승이 선언되었다.

웰터급 결승전은 김동민(한국체대)과 김실용(명지대학) 선수의 대결로 1회에 먼저 김동민 선수 1득점, 2회에 김동민 선수 밀어차기로 1득점, 오른앞돌려차기로 1득점 등을 따내며 승리를 굳힌 가운데 3회에 김실용 선수의 1득점 만회에 김동민 선수 돌려차기로 1득점 추가, 김동민 선수는 5:1로 승리하여 한국체대 정상탈환에 한몫을 했다.

(여대부 핀급 결승)

김진성(한국체대) 선수와 유수진(경희대) 선수의 결승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김진성 선수를 시종일관 따돌리며 앞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린 유수진 선수가 승리, 경희대학 여대부 정상고수에 한몫을 담당했다.

(대회를 마치며)

어느때보다 짜임새있는 운영으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대회준비도중 지난 8월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가 갑자기 장소 변경을 요구해 와서 연맹 임원들을 당황하게 했으나 국기원에서 경기를 함으로써 선수와 관중의 많은 참가를 유도했다.

승패에 대한 깨끗한 승복은 대학인의 자량이었으며 특별히 대학 동아리의 모임인 B조 경기가 제법 활기를 띠었다.

각 대학의 응원팀은 질서있는 응원속에 경기장 분위기를 한결 뜨겁게 했다.

끝으로 남자부 정상을 탈환한 한국체육대학교와 여자부 정상을 사수한 경희대학교, 남자 B조의 우승팀인 용인대학교에 축하와 함께 남대부 준우승팀인 동아대학교와 선전분투한 청주대학교, 조선대학교 팀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대학교 및 진주전문대학, 중부대학팀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대회 임원 및 관계자와 본부진행을 담당하며 수고를 한 권순만, 이재봉 도제선씨에게 감사드린다. **대신**

(대학연맹 지병윤 편집위원)

예시에종(禮始禮終)

# 전화 예절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예(禮)로서 시작하고 예로 끝나는 태권도.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씀으로써 예절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난 호(85호)부터 언어생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간결하고 친절한 한 마디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상대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말로만 의사 소통을 하게 되는 전화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말에 따라 감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 전화를 받을때

###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거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집에서는 이 상황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입니다”, “네, ○○동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동’은 전화 번호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여보세요”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말로도 전화를 건 사람에게 충분히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지역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보세요” 다음에 잠깐 틀을 두고 “안국동입니다. 찬샘골입니다. 잠실 시영아파트입니다”등과 같이 지역이나 아파트 이름을 넣어 말하는 것이 좋다. “네”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 말은 간결하기는 하나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고, “○○동입니다”하고 바로 지역 이름을 밝히는 것은 너무 비약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동입니다”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고, “네”라고만 하거나 “○○동입니다”만 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친절할 말이어서 후보로 올리기로 했다.

직장에서는 “네, ○○○○(회사 이름)입니다”로 결정했다. 이 말은 직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듣기에도 좋은 말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물론 “네, 총무과 ○○○○(이름)입니다”와 같이 부서와 이름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밝히는 여유를 두었다. 일부 영업체에서 “감사합니다, ○○○○입니다”와 같이 “네” 대신 “감사합니다”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친절할 느낌이 들기 때문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네” 없이 “○○○○입니다”만 하는 것은 집에서 전화 받을 때와 같은 이유로 피하기로 했다.

### 전화를 바꾸어줄 때

이 상황에서의 말은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바꾸어드리겠습니다”를 쓰는 것이 좋다. 이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 것은 전화를 건 사람이 신분을 밝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 드릴까요(여쭙까요)?”라고 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도 소홀하게 전화를 받아서는 안된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하도록 한다. 특히 직장에서는 그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분(또는 ○ 시간)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등과 같이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간결하고 친절할 말써야 한다.

### 잘못 걸려온 전화일 때

전화가 잘못 걸려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아닌데요”라고만 말하면 상대방이 제차 “거기 ○○○○번 아닌가요?”하고 물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때 ‘아닌데요’와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사이에 ‘몇 번에 전화하셨습니다?’와 같은 확인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는 느낌이 들어 전화 건 사람의 자존심



을 건드릴 수도 있다.

### 전화를 걸 때

####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집에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입니다. ○○ ○씨 계십니까?”하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 예절임을 밝힌 것이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 친구 ○○입니다. ○○ ○있습니까?”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예절이다. 만약 상대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택입니까?”하고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이 “네”라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묻는 것이 올바른 대화법이다. 즉 “거기가 어디죠?”라고 물어 상대방이 “운니동입니다”라고 서술식을 대답하게 하는 것보다 “운니동이죠?”하고 물으면 “네” 또는 “아니는데요”하고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질문하는 방법이 긍정적이고 친절한 질문법이라는 것이다. 직장에도 집에 걸 때와 같이 “안녕하십니까?(저는, 여기는) ○○○인데요, ○○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올바른 말로 택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

### 전화를 받을 때의 말

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들고	집	여보세요.[모범답] 여보세요.(지역이름)입니다. [허용] 네,(지역명)입니다.[후보]
	직장	네, ○○○입니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	집	(네,)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드리겠습니다.
	직장	(네,)잠시/잠깐/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집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 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직장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 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잘못 걸려 온 전화일 때	집	아니는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직장	아니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고 하는 사람입니다.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환을 통해 전화를 걸 때도 “안녕하십니까? ○○번(또는 ○○부서) 좀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을 해

야 하는데 어느 경우어나 상황에 따라 어미를 바꾸어 쓸 수 있다.

### 전화를 걸 때의 말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집	안녕하십니까?(저는, 여기는) ○○○입니다. ○○○씨 계십니까?
	직장	안녕하십니까?(저는, 여기는) ○○○인데요. ○○○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교환일 때] 안녕하십니까? ○○번 좀 부탁드립니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집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직장	죄송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대신 거는 전화	직장	안녕하십니까? ○○○님의 전화인데요, ○○○씨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입니다. ○○님의 전화인데요, 바꿔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미안합니다만), ○○○한테서 전화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을 한다. 이 상황에서도 ‘전해 주시겠습니까?’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으로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전해 주십시오’ 등과 같이 명령형은 피하도록 한다.

### 대신 거는 전화

직장에서 전화를 대신 걸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적당한 말로는 “안녕하십니까? ○○○님의 전화인데요, ○○○씨를 부탁드립니다”가 바람직하다. 부탁한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과 ○○입니다. ○○○님의 전화인데요, 바꿔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정중하게 말한다.

###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귀찮은 듯이 전화를 탁 놓지 말고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 전화를 끊을 때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를 하고 끊는다. “ 들어가세요”라는 인사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주로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한다. **태권**

### 전화를 끊을 때의 말

안녕히 계십시오./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경기 중 부상선수에 성금 모금전달

코치협의회, 경희대 자원봉사요원 및 선수들도 동참

17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중고연맹대회가 펼쳐진 잠실학생체육관에는 대회기간 중 부상자가 발생하여 태권도 코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부상자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모아졌다.

광주체고 1학년생인 김래현은 경기도중 뒷차기에 아래복부를 맞으며 장파열을 일으키는 부상을 입었다.

경기장내에는 국립의료원에서 파견된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 응급치료와 함께 바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시켜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전국코치협의회에서는 회원교 학생의 경기중 부상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의 치료비를 지급해 왔는데 광주체고의 경우 코치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부상선수의 딱한 입장을 봐서 할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아 성금 모금을 펼쳤다.

코치협의회 장용규교치는 "경기장에 있던 코치들은 한명도 빠지지 않고 성금모금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학



▲ 치열한 접전중에는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들도 성금모금에 동참해 주었습니다."라며 총 43만 3천원이 모여 광주체고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코치협의회에서는 부상당한 천안여고의 양소희선수에게 별도로 회비에서 30만원을 치료비로 전달했다.

이밖에도 대회기간 중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약한 경희대 태권도학과 학생 13명이 1만원씩을 성금으로 내놓아 13만원을 부상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태권도 코치들은 태권도

경기가 경미한 부상이 대부분이라 간단히 의사의 응급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이번 대회처럼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선수들의 보호차원에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호구의 강도면에서도 선수의 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둘 수 있는 장비의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 했다.

# 불가리아의 장경수 사범, 태권도 보급으로 외교적 성과 높여

태권도 사범으로 92년 10월에 최초로 불가리아에 파견된 장경수사범이 태권도 보급 및 활성화로 외교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주불가리아대사가 문화체육부를 통해 협회에 알려왔다.

주불가리아대사는 장경수사범이 파견된 이래 태권도 대회 개최, 태권도 순회 시범경기 개최, 군, 학교를 중심으로한 불가리아 국민에 대한 태권도 보급으로 90년 3월 한국과 불가리아간 수교이래 지대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고 장경수사범의 파견을 연장토록 요청해왔다.

장경수사범의 불가리아에서의 활동사항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군부대 및 학교 중심의 시범 대회 성과 올려

올해 2월에 육·해·공사를 비롯한 7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경기를 개최하여 주재국 언론에서 크게 호평을 받았음은 물론, 각 부대단위로 최

소한 500~600명의 군인이 참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시범경기 개최후 주재국 국방부에서는 군대에서의 WTF 태권도 보급문제를 검토중에 있으며 국방부 교육 및 체육담당 국장인 Vakavliev 장군은 WTF 보급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까잔루크 지방 시범에서는 체육회 관련인사 및 국민학교·유치원 교장, 체육선생을 대상으로 시범경기를 개최하였다. 시범결과 93년 5월부터 까잔루크 전 국민학교 체육시간에 태권도를 정식학과목으로 편입키로 하였으며, 전 유치부에서도 체육시간에 희망자에 한하여 태권도를 가르치기로 하였다.

## ITF 계의 WTF의 전향 도모

올해 6월에는 ITF 태권도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겸 사범으로 알려진 Stanislav Yordanov 가 제자 80명과 함께 WTF로 전향하였다. 또한 Dimitrovgrad

시의 ITF 태권도사범들도 WTF로의 전향을 희망하여, WTF 태권도 설명회 및 시범회를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불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ITF계의 WTF의 전향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사범이 전향의 촉매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주재국 국민에 보급 가속화

그간 장사범은 소피아 시내 소규모 체육관인 슬라비아클럽에서 WTF 지도활동을 전개하였으나, 92년 11월에 창설된 태권도 후원회의 지원으로 올해 5월부터 대규모 체육관인 Bonsist 스타디움에서 다수의 교육생을 지도중이다.

특히 급변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WTF 전국 태권도 대회를 계기로 TV, 라디오, 신문 등 주요언론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주재국 국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태권도 보급에 일대전환기를 마련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노력하는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다”

10명의 선수중 6명이 전국체전 광주대표로 선발

“태권도 광주”라는 가치를 내걸고 장래 태권도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발차기가 힘차게 뻗는다.

“언더 위의 하얀집” 어디에선가 들어봄직한 제목이다.

광주직할시 오치골 깊숙한 곳, 흰구름 떠도는 산기슭에 위치한 학교법인 춘태학원의 국제고등학교.

학교이름에 걸맞게 예절바르고 불타는 젊음의 학구열정이 느껴진다. 춘태학원은 고(故) 춘담 최병채선생께서 충무정신

의 함양을 위해 1957년 무광사(武光祠)를 건립하고, 1966년 정식으로 학교법인 춘태학원을 설립하여 전남외국어 고등학교라는 교명으로 일어·불어·중국어 등 국제정세의 선두주자 역할을 위해 외국어를 열심히 지도해 오다가 1989년 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력하는 자만이 정상에 설



박장웅 교장



▲ 전국체전 대표선수들

수 있다"라는 박장용 교장선생님(사진)의 가르침에 따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제고등학교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광주직할시에서 열리게 된다. 전남과 분리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체전을 앞두고 선수 및 임원들은 광주체전의 면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10~11일 전국체육대회 최종선발전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국제고교의 선전은 임원 및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태권도 남녀선수를 육성하는 유일한 학교로서 여건상 남녀 10명의 선수밖에 없지만 이들 선수들의 활약은 실로 눈물겨운 승리였다.

남학생 7명, 여학생 3명중 남자고등부 밴텀급 김경조, 페더급 박진영, 라이트급 나덕호와 여자부 플라이급 운비들, 페더급 박광순, 라이트급 김지연 등 6명의 선수가 광주대표선수로 선발이 되었다.

국제고 태권도부는 90년 3월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인 김재천교사의 건의에 따라 창설되어 그동안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박장용 교장 선생님의 격려와 학부모임들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굳세게 성장해왔다. 팀장단 초창기때는 선수들에게 장학혜택도 주어지지 않아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고, 또한 학교



▲ 태권도부선수들과 김재천 지도교사, 김동은 코치

에 체육관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이들은 방과후 조선대학교 태권도 훈련장에서 김동은 코치(광주협회소속)의 지도를 받아가며 대학생 선배들과 함께 피눈물나는 훈련을 거듭해왔다.

그러한 훈련의 결과로 이들은 전국대회에서도 꾸준한 기량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지도한 김재천 교사는 92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시상하는 표창수 여식에서 경기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작년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이 학교 출신 헤비급 하중선선수(현 조선대학교 1년)가 고등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나타내어 광주 선수 및 임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지금은 선수 전원 장학혜택과 더불어 훈련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이번 여름 체력강화훈련때 안

타가운 사고가 있었다.

1학년 조재관 선수가 훈련도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동료선수들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가 온 몸이 거의 마비되어버린 조재관 선수의 팔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면서 깊은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훈련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들은 부상당한 조선수의 몫까지 열심히 훈련하여 기필코 좋은 성적을 거두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결의한다.

"태권도 광주"라는 가치를 내걸고 대학부·일반부 선배들과 함께 장래 태권도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발차기가 힘차게 뻗는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 전북 화랑태권도장

# “도장에서 학교에서 태권도 지도에 인생을 걸고 뛰었다.”

전주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달리다 보면 한지와 순두부로 유명한 작은 면소재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태권도하면 쉽게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전정근 사범! 「관장님」이란 호칭으로 불리우는 것보다 「사범님」이라고 불러지길 바라는 외고집을 간직한 태권도인이다.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인근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오가면서 태권도지도 사범으로 활약하다가 91년 7월에 소양면 소재지에 30

여평의 공간을 마련하여 화랑태권도장이란 간판을 내걸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자의 첫발을 들인 셈이다. 그동안 학교와 도장을 기친 제자중 유단자 200여명과 유급자 400여명이 있으며 현재 도장에는 80여명이 수련에 정진하고 있다. 2층에 마련된 도장을 들어서면 시야를 가득 메우는 각종 많은 상장과 태권도 관계자료를 모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 오고 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의례히 시선이 모아지는 자료 스크랩이



전정근 사범(화랑태권도장)

송광국민학교 태권도선수단 ▶  
현경철 교장선생님(가운데),  
한광엽감독(왼쪽), 전정근  
지도사범(오른쪽)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3단이상 유단자가 많다는 것과 색다른 경영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도장에서 실시하지 않는 독특한 수련과정과 체계화된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 결과 수련자들이 쉽게 가질수 있는 시간 채우기식 수련태도와 오랜 수련뒤에 올수 있는 태권도 수련기회현상을 현저하게 감소 시켰으며 수련자의 생활태도 또한 모범을 보여 주위분들로 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으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다.

현재 전북 태권도 협회 심판분과위원장이신 김현덕(전주도장, 다미광고) 관장의 1기 수료생인 전사범은 여러해 동안의 선수생활과 심판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활동에 그의 열의는 대단하다. 태권도가족이기도한 3형제 모두가 3단과 4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둘째동생은 현재 군복무중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전사범의 주도로 올해로 태권도부 창단 4년째의 송광국교는 4, 5학년울 대상으로 매월 1시간씩 의무지도 수련하게 하여 그동안 도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하는 등 50여차례의 입상 실적을 올리면서 도내 최강을 자랑하며 지난해 부터는



▲ 전정근 지도사범(뒷줄 오른쪽끝)의 지도로 전북교육감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송광국민학교

전국국민학교 태권왕 대회를 비롯 전국대회에서 여러차례 개인전 우승을 하는 등 태권도 명문 학교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전북도내 국민학교론 최초로 여자 선수를 창단 시킴으로써 이에 자극 받아 인근 소양서국교와 소양국교에서도 남자부와 여자부를 정식 창단케 함으로써 지역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교생이 18명뿐인 동광분교에도 지난 봄부터 주 2회씩 방문 수련케 하여 태권도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면소재 시골 학교가 겪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지난 여름방학기간 동안 4개국민학교에서 선발된 40여명

의 선수를 하루 4시간씩 수련하여 9월초에 실시된 94년 소년체전 지역 선발대회에서 국교부 여자부 전체급 석권과 남자부 10체급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입상 실적에 교육청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교실 한칸을 비워서 운동을 하는걸 아신 교육장님께서 훈련장 마련을 약속하시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셨다고 있다.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는 굳은 신념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정근 사범은 올해 가을부터 어머니 태권도 교실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태권**

(전북 정철 편집위원)

## 진주경찰서 무궁화 도장 무료로 시민들에게 태권도 지도

진주경찰서가 경찰관들의 심신 수련장인 상무관을 무궁화도장으로 개설하여 현역 경찰관인 한규학경장(6단)이 직접 태권도를 지도하며 국기 태권도 저변확대 및 태권도 활성화와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 있다.

상무관은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데 상무관 개관 10개월을 맞고 있는 현재 250명이 등록을 하였고 매일 약 90여명의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작년 12월 무궁화 도장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문을 연 이래 지역 주민과 초·중고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태권도장은 매일 오후마다 열기와 기합소리로 가득하다.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한규학 경장은 현재 6단의 고단자로 2급 경기지도자자격증, 2급 심판자격을 갖고 있으며 진주시체육회 이사과 진주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경장은 "태권도 지도후 시



민들이 경찰을 가까운 이웃으로 느끼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교육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질서 교육과 범죄예방, 호신술, 범죄 신고 등 각종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태권도를 통한 기술 향상 뿐만이 아니라 명랑한 시민의식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

다.

무궁화 도장은 "무릇 말은 참되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독실해야 하며 음식은 삼가고 절제해야 하며 걷는 것은 안정되어야 하며 거처는 바르고 조용해야 하며 항상 나 자신의 마음은 태양처럼 밝고 물처럼 고요한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수련생들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태권**



# 태권도 경기중 감점행위 분석



한상진/대한태권도협회 생활체육분과 부위원장  
명지대학교 체육대학원 졸업  
한스 생활체육관장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경고(감점)행위가 특점의 중요성 못지 않게 승패에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점요인 및 회전별 빈도수에 관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는 태권도 경기가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조사 분석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일정

연구대상은 1993년 6월 16일~19일 제28회 대통령기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고등부(20게임), 대학부(20게임), 일반부(20게임) 총 60게임 선수 120명을 대상으로 무제한 선정하여 현장 촬영 분석하였다.

### 2. 조사방법

- 경기장에서 태권도 경기가 진행되는 내용을 VIDEO CAMERA에 담아 감점행위를 조사하였다.
- 경기 진행중 감점 사항을 주관적 판단을 피하고 주심이 싸인한 동작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 전광판에 표출된 감점수와 주심의 싸인수

가 일치한 것을 원칙으로 조사하였다.

- 감점(-1)은 경고(-0.5) 2회로 합산 처리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부별 경고 횟수와 회전별 횟수

#### 1) 고등부

표 1)에서와 같이 20게임 경기회수의 경고 행위 총사용 횟수는 65회이며, 1게임당 평균 3.25회로 나타났으며, 회전별로는 1회전(16회), 2회전(20회), 3회전(29회)로 나타났다.

경고사항으로는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상대를 잡는 행위순으로 나타났다.

#### 2) 대학부

표 2)에서와 같이 20게임 경기 회수의 경고 행위 총사용 횟수는 106회이며, 1게임당 평균 5.3회로 나타났으며 회전별로는 1회전(22회), 2회전(41회), 3회전(42회)로 나타났으며, 경고사항으로는 손, 팔로 상대를 끼는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상대

를 잡는 행위 >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순으로 나타났다.

### 3) 일반부

표 3)에서와 같이 20게임 경기 회수 경고 행위 총사용 횟수는 74회이며, 1게임당 평균 3.7회로 나타났으며, 회전별로는 1회전(23회), 2회전(28회), 3회전(23회)로 나타났다.

경고사항으로는 손, 팔로 상대를 끼는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를 잡는 행위 >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 2. 부별 1게임당 평균 경고사용 회수

1게임당 평균 경고 사용회수는 4.08회로 나타났으며, 각 부별로는 대학부(5.3회) > 일반부(3.7회) > 고등부(3.25회)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부가 경고회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각 대학선수들이 고등부 선수 시절부터 서로의 기량을 알고 있어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방어를 위주로 한 경기를 펼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여진다.

## IV. 결론 및 제언

1993년 제28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항 총 60게임(인원120명)을 대상으로 경고사항에 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고등부

1게임당 경고회수 평균 3.25회로 나타났으며, 경고행위 사용회전 별로는 3회전 > 2회전 > 1회전순으로 나타났다.

### 2) 대학부

1게임당 경고회수 평균 5.3회로 나타났으며, 경고행위 사용회전 별로는 3회전 > 2회전 > 1회전순으로 나타났다.

### 3) 일반부

1게임당 경고회수 3.7회로 나타났으며, 경고행위 사용회전 별로는 2회전 > 1,3회전순으로 나타났다.

경고행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별로는 대학부 > 일반부 > 고등부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고행위 사항으로는 손, 팔로 상대를 끼는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상대 선수를 잡는 행위 > 고의로

(표 1) 고 등 부

20게임(40명)

경 고 사 항	1회전	2회전	3회전	사용회수	순 위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	3	4	8	15	1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3	5	6	14	2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1	5	4	10	3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2	2	3	7	4
선수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3	1	3	7	4
상대를 잡는 행위	3	1	2	6	5
어깨, 몸, 손팔로 미는 행위	1	2	1	4	6
고의적으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	0	0	1	1	7
선수자신이 손을 들어 득감점을 시위하는 행위	0	0	1	1	7
얼굴을 주먹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0	0	0	0	
합 계	16	20	29	65	
1게임당 평균	0.8	1.0	1.45	3.25	

(표 2) 대 학 부

20게임(40명)

경 고 사 항	1회전	2회전	3회전	사용회수	순 위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	3	9	17	29	1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8	6	10	24	2
선수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5	12	6	23	3
상대를 잡는 행위	3	6	5	14	4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2	4	4	10	5
어깨, 몸, 손팔로 미는 행위	0	2	1	3	6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0	1	0	1	7
고의적으로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를 차거나 강하게 밟는 행위	0	1	0	1	7
얼굴을 주먹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1	0	0	1	7
합 계	22	41	43	106	
1게임당 평균	1.1	2.05	2.15	5.3	

(표 3) 일 반 부

20게임(40명)

경 고 사 항	1회전	2회전	3회전	사용회수	순 위
손, 팔로서 상대를 끼는 행위	6	5	9	20	1
상대를 잡는 행위	8	6	1	15	2
고의로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3	6	3	12	3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2	4	4	10	4
선수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2	2	6	10	4
어깨, 몸, 손팔로 미는 행위	0	3	0	3	5
등을 보이며 피하는 행위	1	1	0	2	6
고의로 사타구니를 가격하는 행위	1	0	0	1	7
얼굴을 주먹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0	1	0	1	7
합 계	23	28	23	74	
1게임당 평균	1.15	1.4	1.15	3.7	

넘어지는 행위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와 양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지 않아 주심으로부터 감점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중 호구의 끈이 자주 풀려 경기에 흐름을 저해하고 있었다.

선수는 경고행위에 있어 승패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이 필요하며 태권도 경기가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

감점 행위를 최대한 줄이는 경기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는 스포츠맨십의 정신이 절실히 요망된다.

아마추어 태권도 경기에 있어 3분 3회전이 전개되면 감점에 의해 많은 선수들이 감점패 당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심판위원은 감점을 주는 것보다 사전 감점행위를 범하지 못하도록 경기 운영의 감각을 살려서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태권**

## 대한태권도협회

###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9월 1일 개선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벌어진 제11회(여자 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남녀 종합우승을 거두며 11연패(여자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대표 선수단(단장 송봉섭)이 9월 1일 오후 8시 25분에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130개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중 87개국에서 1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는 플라이급과 미들급을 제외한 6체급을 휩쓸며 금 6개로 종합우승, 11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여자부는 금 5, 은 1, 동 1개를 획득하는 개가를 올리며 종합 4연패에 성공했다.

남자부의 헤비급 금메달리스트인 김제경(26세, 상무)은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헤비급 정상에 오름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챔피언으로 남자부 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차기 세계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는 이집트의 키이로가 선정되어 오는 95년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 제4회 월드컵 게임 한국대표선수단 귀국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트로우스트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월드컵 태권도 경기에서 한국대표선수단(감독 양영모, 코치 지용범, 남자선수 4, 여자선수 2)은 금4, 은1개를 획득하고 8월 4일 개설했다.

남자부 경기에는 24개국 64명



세계대회 한국대표선수단

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8체급 경기가 펼쳐져 한국은 금3, 은1 개를 따냈다.

여자부 경기에는 총 19개국에서 32명의 선수가 출전 4체급 경기(플라이, 페더, 웰터, 헤비)가 치뤄져 한국은 금 1개를 따냈다.

종합 성적을 보면 한국은 금 4, 은 1개로 참가국 중 최강국임을 자랑했으며 뒤를 이어 스페인이 금 3, 은 1, 동 1, 대만이 금 2, 은 2, 동 1개로 태권도 강국의 위상을 보여 주었다.

## 제2회 베트남 오픈 태권도 대회 한국대표선수단 파견

월남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한국대표시범단이 파견되어 태권도 교류가 이루어진데 이어 올해 두번째 한국과 베트남간의 태권도 교류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태권도연맹 주최로 제2회 베트남 오픈 태권도선수권 대회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되어 한국선수단은 강원식 전무이사를 단장으로한 국가대표선수단 12명을 파견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9개국의 참가가 예상되는데 한국은 선수권 대회 참가에 있어 우승의 목적보다는 체육외교적 성과를 심화시키고 태권도 보급 촉진을 강화시키는데 선수단 파견의 의의를 두었다.

대표선수단 명단은 다음과 같



▲월드게임 태권도 한국대표선수단

다.

- ▲ 단 장: 강원식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 감 독: 김선규  
(경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 코 치: 김진도  
(사당중학교 교치)
- ▲ 국제심판: 김영철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 부위원장)
- ▲ 남자 선수

핀 급: 석운용(용인대)  
플라이급: 박재완(경상대)  
밴 팀 급: 권태호(춘천군청)

페 더 급: 안홍엽(용인대)  
라이트급: 성의천(국군체육부대)  
▲ 여자 선수  
핀 급: 양소희(천안여고)  
플라이급: 모선영(한국체대)  
밴 팀 급: 김은숙(용인대)  
페 더 급: 권혁실(용인대)  
라이트급: 강해은(경성여실고)

노우종 운영부장, 문창현씨  
장기근속 표창 수상

대한태권도협회의 노우종 운영부장과 문창현씨가 대한체육



▲베트남 오픈 태권도대회 한국대표선수단

# 태권도 소식



회 김운용회장으로부터 장기근속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 7월 14일 올림픽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대한체육회 창립 73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는 노우중 운영부장이 20년 장기근속상을, 문창현씨가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 ▲ 노우중

1947년생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1972년 대한태권도협회입사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 ▲ 문창현

1954년생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수료  
1982년 대한태권도협회 입사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직원

## 서울특별시험회

### 고단자 심사 대회

서울시 협회는 지난 6월 12일

국기원에서 금년들어 두번째 4·5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4단 응심자 148명, 5단 응심자 32명 등 총 1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 지도자로서의 입문과정(실기 및 필답고사)을 테스트하여 그중 4단 100명, 5단 29명이 합격하였다.

서울시험회 엄운규회장은 4·5단 승단자들이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직접 수련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적 자질을 갖춘 태권도인으로 성장하길 당부하였다.

### 승품·단 심사, 9회 실시

서울시 협회는 6월부터 8월사이 승품·단 심사대회를 9회 실시하였다. 6월중에 승품심사 2회, 승단심사 1회를 실시했으며 7월중에는 승품심사만 3회를 실시하였다.

8월중에는 승품심사 2회, 승단심사 1회를 각각 실시했으며,

응심인원은 승품 9,656명·승단 1,731명으로 총 11,387명이 참가해 전년도에 비해 약 5%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단순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상승곡선을 그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국제화된 태권도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여러가지의 문제점과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이에 우리 사범들도 양적인 팽창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태권도문화의 질적 선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설·환경·지도방법 등 수련현장의 질적 경영과 경쟁원리의 자극속에 미래 창출을 위해 확실한 목표 설정을 하여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 심기 일전하여 재도약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제14회 협회장기, 광희국민학교 단체우승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선수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협회장기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20여개 국민학교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었는데 각도장 사범들이 충실히 지도해온 태권도 꿈나무 선수들의 열기가 대단했다.

단체 우승은 6년만에 광희 국민학교가 차지했으며 각 계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우승기를 수여하는 엄운규 서울시협회장

- ▲ 편 급 : 김호진(광희국교)
- ▲ 플라이급 : 최왕진(망원국교)
- ▲ 밴 텀 급 : 채승호(광희국교)
- ▲ 페 더 급 : 한규동(중마국교)
- ▲ 라이트급 : 임지광(광희국교)
- ▲ 라-웰터급 : 윤성희(은천국교)
- ▲ 웰 터 급 : 김택희(마천국교)
- ▲ 라-미들급 : 강선호(봉천국교)
- ▲ 미 들 급 : 조재성(신상도국교)
- ▲ 라-헤비급 : 명승철(원당국교)
- ▲ 헤 비 급 : 한동훈(동교국교)

협회는 우승자들에게는 각각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 사기를 앙양시키기도 하였다.

〈서울 박노규·김중오 편집위원〉

## 부산직할시협회

### 태권도 훈련장 이전

부산태권도 훈련장이전식이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부산사직동 양정모 올림픽 재패기념

종합실내체육관에서 부산태권도협회 김차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수와 회원도장 관장 그리고 부산체육회 홍상표 사무처장과 내빈들의 축하속에 성대히 개장되었다.

그동안 부산 태권도 훈련장으로는 1981년도에 설치된 구덕운동장내의 훈련장을 사용해왔는데 중앙의 기둥으로 인해 훈련하기가 불편하여 폐쇄조치하고 훈련장으로 적합한 사직운동장내의 "양정모" 올림픽 재패기념 종합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한 것이다. 80여평 규모(훈련실 60평, 사무실 및 코치실 20평)에 최신 시설을 갖춘 부산 태권도 훈련장은 부산태권도협회의 소정절차에 따라 각 학교팀이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훈련장 이전 개장 기념으로 제7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고등부)선수 선발 대회도 성대히 개최되었다.

## 제4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협회는 8월 22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93 제4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1,96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990, 2품 436, 3품 131, 1단 209, 2단 88, 3단 77, 4단 33, 5단 3명이며 지난 3회 심사대회시 우수도장으로 선정된 체육관에 대한 표창도 수여하였다.

(수상자명단)

송하수(부산제) 문부조(동래극동체) 홍순호(대호체) 오만택(백두체)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 대구직할시협회

제9회 대구 협회장기 및 국민학교 여자 개인선수권대회

대구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7월 27일 대구체육관에서 협회장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번대회에서는 국교부 176명, 중등부 129명, 고등부 57명, 일반부 69명, 여자부 20명, 국교여자부 25명 등 총 481명이 참가하여 대구대회 사상 처음으로 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기록을 갱신하였고 태권도 저변확대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다.

부별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 국교부

1위: 아양국 2위: 문성국 3위:

고산국 장려상: 동인국 감투상: 동신국

▲ 중등부

1위: 경일중 2위: 철곡중 3위: 대구동중

▲ 고등부

1위: 경상공고 2위: 오성고 3위: 배영고

▲ 일반부

1위: 수창체육관 2위: 보국체육관 3위: 성광체육관

▲ 여자부

1위: 충효체육관 2위: 장원여상

##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대구협회에서는 8월 31일 대구체육관에서 올해 제4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 157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824명, 2품: 416명, 3품: 84명, 1단: 166명, 2단: 39명, 3단: 32명, 4단: 10명, 5단: 1명이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 인천직할시협회

### 제10회 회장기 대회

인천 태권도협회는 18일 인천 실내체육관에서 제10회 회장기 태권도대회 겸 국민학교 품새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8, 19일 이틀간에 걸쳐 펼쳐진 이날 태권도 대회는 국교부, 남중, 여중부, 남고, 여자부로 나누어 겨루기부문 5백94명, 품



새부문 2백34명 등 총 8백28명이 출전 연면 경기력을 펼쳤다.

경기에 앞서 윤치영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태권도를 통해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예의 범절을 기르고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는 태권도인이 돼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량을 이 대회를 통해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임 전무이사에 노순명씨



『인천지역 태권도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태권도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협회 신임 노순명 전무이사는 52년 인천출신으로 선인고, 인천체대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60회 전국체전 5연패를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친 노련한 선수출신으로 업무에 능통하고 일선지도자들과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평.

김정화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바둑.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 광주직할시협회

광주직할시협회는 7월 10일과 11일 제7회 회장기 초중고등학교 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3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본 대회의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 초등부 : 1위 대자국민학교, 2위 봉주국민학교, 3위 광주남국민학교

▲ 중등부 : 1위 문성중학교, 2위 체육중학교, 3위 북성중학교

▲ 고등부 : 1위 광주체육고등학교, 2위 고려고등학교, 3위 국제고등학교

(체급별 우승자)

▲ 초등부 :

최연호(상무국), 이우영(봉주국), 문병욱(중흥국), 전신재(대자국), 최홍식(대성국), 오다현(극락국), 이휴성(광주남), 오경제(두암국), 김태형(백운국), 김일구(봉주국), 김재승(상무국).

▲ 초등부 :

이현호(용봉중), 박성준(문성중), 김의철(문성중), 이주한(문성중), 김남곤(문성중), 김정민(문성중), 이상훈(봉성중), 임순섭(체육중), 고태수(체육중), 서성복(체육중), 최희성(체육중).

▲ 고등부 :

서연수(고려고), 조성현(고려고), 정철(고려고), 박진영(국제고), 김래현(체육고), 신진구(체육고), 이정훈(광주실고), 정희중(조대부고).

## 심판 보수 교육 실시

광주직할시 협회는 7월 24일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78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광주협회는 8월 1일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총 600명이 응시한 가운데 펼쳐진 승단심사대회의 응시자현황을 보면 1품-281명 2품-114명 3품-25명 1단-106명 2단-25명 3단-35명 4단-9명 5단 5명이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 대전직할시협회

대전협회는 9월 24일 충무체육관에서 승품단심사를 개최하고 94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 경기도 협회

### 두차례 심사, 3천여명 합격

경기도협회는 8월 8일과 9월 5일 두차례에 걸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승품단심사대회를 열었다.

8월 심사에는 1099명, 9월 심사에는 2009명 등 총 3108명이 합격했다.

# 태권도 소식

## 강원도 협회

### 제11회 교육감기 대회

강원도 협회는 9월 25일과 26일 2일간 도계실내체육관에서 제11회 교육감기단체 및 개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단체전(학교대항) 및 개인전으로 치루어졌다.

###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강원도 태권도협회에서는 9월 15일 제4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였다.

속초시 중앙체육관에서 열린 승품단 심사대회에는 800여명이 응시했다.

(강원도 김남주 편집위원)

## 충청북도협회

### 19회 중고연맹회장기 대회

충북협회는 지난 6월 5일 청주중학교 강당에서 제 19회 중고연맹회장기 대회를 실시하였는데 종합성적은 다음과 같다.

#### ▲ 중학부 :

- 1위: 서원 중학교
- 2위: 증평 중학교
- 3위: 보덕 중학교

#### ▲ 고등부 :

- 1위: 청주 신흥고등학교

2위: 충북 체육고등학교

3위: 청주 기계공업고등학교

### 정갑순회장 15주기 및 제 74회 전국 체전 예선대회

충북협회는 7월 3일과 4일 충북학생회관에서 정갑순회장 15주기 및 제74회 전국체전 예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부별 우승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등부: 강정필(체육고), 김항수(청주기공), 유원철(신흥고), 최정훈(체육고), 박현석(신흥고), 김현진(신흥고), 지상규(체육고), 김원호(신흥고).

▲ 대학부: 강정필, 박석근, 김창윤, 민경환, 신경수, 양원철, 김정신, 이광성(이상 청주대).

▲ 일반부: 최병락(오륜체), 양대환(체천체), 김인환(청주체), 이관우(상일체), 김정진(청운체), 이진형, 안치영, 고재관(이상 상일체).

▲ 여자부: 신상미(대성여상), 고승자(충북체고), 이화진(경희대), 신동선(성신여고), 윤미영(충북체고), 최영렬(제천농고).

### 하계 전지훈련 실시

충북 태권도 협회는 천태종 본산 구인사 총무원장(전운덕: 충북 태권도협회장)의 주선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4일간 단양군 단양 팔경의 하나인 하선암에서 충북 선수단 전지 훈련이 실시하였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전지 훈련장으로 떠나기 직전 구인사를 방문한 충북선수단

## 충청남도협회

### 승품단 심사, 501명합격

충남협회는 8월 29일 대천시 민체육관에서 제4차 승품단심사를 실시하여 총 50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246명, 2품 33명, 3품 9명 1단 146명, 2단 36명, 3단 17명, 4단 9명, 5단 5명이다.

## 전라북도협회

### 신임회장에 유기대씨 선임

전북협회는 7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유기대씨를 선임하였다.

또한 집행부 임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신임 집행부 명단—

회 장 : 유기대  
 부회장 : 정금수, 유영환, 이병화, 정운영, 김용재  
 전무이사 : 강영수  
 경기이사 : 강홍렬  
 총무이사 : 전철기  
 심판이사 : 김현덕  
 심사이사 : 신재룡  
 상벌이사 : 윤홍기  
 이 사 : 전정술, 김용균, 정성진, 김석주, 김태영, 김창석, 김인배, 강상수, 남중태, 박창섭, 백양수, 송인호, 신조영, 오영복, 임귀택  
 홍보분과 위원장 : 이운영  
 감 사 : 강동희, 박장규

### 승품단심사, 872명 합격

전북태권도협회는 93년도 제4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8월 29



유기대 회장



이병화 실무 부회장



강영수 전무

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고 87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현황을 보면 1품 391, 2품 144, 3품 40, 1단 163, 2단 58, 3단 31, 4단 42, 5단 3명이다.

### 전국체전 대표선발

전북협회는 7월 9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74회 전국체전 대권도 최종선발대회를 실시하였다.

# 태권도 소식

전북대표로 전국제전에 출전하게 될 부별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고등부: 신용우(체육고), 김을식(전주농고), 양현모(체육고), 김종우(체육고), 남국환석(체육고), 김상우(영선중고), 김남국(전주농고), 김근호(전북체고)

▲ 여자부: 김보인(김제북고), 박은경(김제상고), 황정은(고창여고), 채영주(김제북고), 이은정(김제북고), 신은정(용인대), 양춘희(김제북고), 박정숙(김제북고)

## 신임 편집위원에 정철씨

전북 태권도 협회는 전북편집위원회(지역편집위원)에 정철(우전 체육관)관장을 선임했다.

정철 편집위원은 전주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전북협회 홍보분과 편집위원으로 2년간 활동했다.



—정철 편집위원 약력—

- ▲ 66년 8월 16일생
- ▲ 전주 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 ▲ 현재 우전 체육관장
- ▲ 현재 전북 태권도 협회 홍보분과 편집위원

(전북 정철 편집위원)

## 경상북도협회

### 제26회 교육감기대회

제26회 경북교육감기 초·중·고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7월 22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초등부 67명, 중등부 73명, 고등부 20명 등 총 160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 박운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 경북 태권도는 긴 동면에서 깨어나 힘찬 약동을 전개하려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며 선전을 당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부별로 우승팀 30만원, 준우승 20만원, 3위 1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대회성적은 다음과 같다.

#### ▲ 초등부

- 1위: 지산국민학교
- 2위: 박곡국민학교
- 3위: 형곡국민학교
- 지도상: 박세동(지산국감독)
- 최우수선수상: 하종훈(지산국)

#### ▲ 중등부

- 1위: 경북체육중학교
- 2위: 영천중학교
- 3위: 봉양중학교
- 지도상: 문종국(경북체중교치)
- 최우수선수상: 노우석(경북체중)

#### ▲ 고등부

## 전 국가대표 출신 유기대씨 전북협회 회장으로 취임

전라북도 협회는 1962년 2월 에 창립됐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우승 하는등 화려한 선수생활이 시작된 유기대 회장은 1963년 전주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1964년 경희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경희대학교 주장 선수로 활약중 다시 국가 대표에 선발되어 일본 원정개임 등에 출전하며 국제적인 선수로 활약하였다. 유기대회장의 가장 빛나는 전적은 1967년부터 해병대 태권도부 창설(감독·코치:이승완)을 통해 대통령기 쟁탈전에 5회 연속 우승의 주역이었다는 점이다.

선수 생활중 무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유기대 회장은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후배양성과 개인 사업을 꾸준히 병행해 오다 오늘날 전북협회 회장직의 영광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9일 전북협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유기대 전북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유기대 회장은 전북 태권도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을 초월한 국기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전북협회 유기대회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다.

얼마전에 있었던 제1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관람하고 온 유기대 회장은 외국에서는 국내 사범들의 상상을 초월한 태권도 인기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국내 태권도도 제도약을 위해서 무언가 혁신적인 새 태권도가 개발 되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기대 회장은 전북협회와 전북태권도 지도자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화합하여 새롭고 신임 받는 전북협회를 탄생시킬 각오이다.

그동안 문제 되어왔던 비공개 행정을 완전 공개시켜 추호도

의심받지 않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범관장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혁신적인 행정과 재무관리를 지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유기대 회장은 선수출신인만큼 선수 양성을 위한 특별한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전북태권도인들은 개혁과 민주주의 물결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기대 회장의 포용력과 지도력이 얼마만큼 발휘되느냐에 따라 전북협회의 발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며 유기대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 정철 편집위원〉

# 태권도 소식



1위 : 영천고등학교  
 2위 : 경북체육고등학교  
 3위 : 안계종합고등학교  
 지도상 : 김재규(영천고감독)  
 최우수선수상 : 백환철(영천고)

## 제5회 도지사기 시·군 대회

제5회 도지사기 시·군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가 8월 6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초등부 46명, 중등부 24명, 고등부 23명, 대학부 23명, 일반부 17명 등 총 13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방식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경기로 채택된 초등부와 기존 대학부는 개인전으로 중·고 일반부는 5명 단체전으로 치루어졌다.

개회식에서 예조해 상임부회장은 대회를 통해 경북의 가장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출전인원이 저조한 것은 태권도 사회체육의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일선 지도자들은 태권도의 생활체육에 힘써줄 것과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부별로 우승 30만원, 준우승 20만원, 3위 1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출전한 각팀의 종합순위는 다음과 같다.

### ▲ 종합순위

1위 : 영천시 2위 : 의성군 3위 : 영일군

### ▲ 중등부

1위 : 영일군 2위 : 의성군 3위 : 포항시

### ▲ 고등부

1위 : 영천시 2위 : 의성군 3위 : 포항시

### ▲ 대학부

1위 : 상주산업대 2위 : 영남대학교 3위 : 대구대학교

### ▲ 일반부

1위 : 경산시 2위 : 영천시 3위 : 의성군

〈경북 신문우 편집위원〉

## 전라남도협회

### 승품단 심사대회

전라남도협회는 7월 25일 전

남태권도훈련장에서 전남지구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50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명단을 보면 1품 255명, 2품 86명, 3품 17명, 1단 73명, 2단 39명, 3단 24명, 4단 7명, 5단 5명이다.

## 경상남도협회

### 전국체전 대표선발전

경남협회는 제74회 전국체전 대표최종선발전을 7월 2일과 3일 마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경남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될 부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일반부: 배대길(삼천포체육관), 이승욱(현대자동차), 김성명(남해체육관), 이상영(고성용호도장), 정상수(함양종합체육관), 박종록(화랑제2체육관), 정주석(상무), 김제경(상무)

▲남자대학부: 이강철, 박재완, 박영민, 김태호, 천일구, 박신준, 임상도, 김상록(이상 경성대)

▲남자고등부: 김현진(경남체고), 손용주(통영고), 김희영(통영고), 김영수(경남체고), 김신영(경남체고), 승진식(경남체고), 김호권(경남체고), 김명일(창원고)

▲여자일반부: 박은옥(거창여고), 유혜진(상지여중고), 권정

우(함양실업고), 장임정(철원중양도장), 최명숙(고성용호도장), 정윤경(상명여대), 김진영(인화여상)

## 제주도협회

### 정기심사실시, 439명 합격

제주협회는 8월 14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정기승품단심사를 실시하여 총 439명의 승품단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를 보면 1품 219명, 2품 128명, 3품 23명, 1단 23명, 2단 25명, 3단 14명, 4단 5명, 5단 2명이다.

## 국기원

### 심사규정 일부 개정 8단이상 해외거주자도 국기원서 심사

국기원심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외거주 8, 9단 응심자에 대한 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 실시한다.

심사규정개정내용은 해외거주 내외국인 8단이상 응심자에 대해 국기원에서 출장하거나 국제대회 시 개최지역에서 심사를 실시하던 것을 국기원에서 분기마다 실기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거주 7단 이하 응심자에 대해서는 국기원에서 지역 및 국가별로 심사위원을 출장, 현

지 고단자와 합동으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시간안내

### 한국상고무예사

고동영 지음/ 한뿌리/ 6천원

한국무예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특색과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 등 우리 무예의 뿌리를 밝힌 저서가 한뿌리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상고시대 우리 무예의 형성과정과 전수, 무예교육, 무예정신, 중국과의 관계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 무예의 실상을 시대별로 기술하고 있으며, 동양 무예사에서 한국무예의 위치를 규명하고 있다. **한글**

# 태권가족



이항원



어머! 당신 일찍 들어 오시네

토요일 아니까



따르르르



아~ 예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온 전화예요?



체육관에서 오거야

아이고, 얼마나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전화까지...



모르시는 소리!



관장님이 바깥일이 생겨 체육관을 비우게 됐다고

날더러 아이들 격파술 지도를 좀 부탁한대



어깨 힘 빼고 아랫배엔 힘을 모으고

호흡을 가다듬어



격파 실시!







## 소녀의 웃음

김 선생은 교문을 향했다.  
킁킁, 쿡쿡 .....

아이들이 쫓아오며 자꾸 웃었다.

저애들이 3학년 2반이던가?  
아니면 2학년 10반?

왜 그러는지 야단을 쳐버릴까 순간 김선생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볼라치면,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들 입을 탁 막았다. 표정이 굳어졌고, 얼굴이 벌개져 있기까지 하였다. 겁을 내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김선생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 맞아. 저때는 공연히 저렇게 우스울 때지. 바람만 불어도, 꽃가루만 날려도 볼이 간지러워 웃음이 흐드러질 때지. 아무하고나 얼굴만 마주쳐도 그치 웃음이 함박 풍선처럼 터질 때야.....

김선생은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소녀시절도 그랬었다. 그냥 그렇게 웃음이 났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무슨 우스울 만한 까리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유도 모르게 간지럼을 타듯 교실 이쪽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구르기 시작하면 또 저쪽에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굴러오곤 했다. 하루종일 그랬다.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의 옷에 먼저만 물어 있어도 웃었고, 햇빛이 그의 얼굴에 음영을 만들어도 웃었으며, 누군가가 볼펜을 떨어뜨려도 웃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또 그래서 웃었다. 연이어져 화려하게 펼쳐지는 부채춤에서의 커다란 꽃이파리처럼 웃음은 소녀들의 특징이요, 특권이였다.

아마 저희들끼리의 무슨 우스운 이야기가 있겠지. 아니면 자신의 지난날처럼 이유가 없는 웃음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 옷 뒷자락에 무엇이 묻어 있는 것일까?

김선생은 강아지가 제 꼬리를 물려고 하듯이 고개를 획 틀어 자신의 엉덩이며 다리, 허리께



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이상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도로 평상의 걸음걸이로 돌아와 사뿐사뿐 걸었다.

교문 밖으로 나오자 분갑스러운 오후가 사람들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선생은 전철역으로 걸음을 빨리 했다. 백화점에 들러 가을 옷을 한 벌 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쪽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아까의 그 아이들은 어디로 스며들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이 따라오며 허죽 허죽 웃는 눈치였다.

김선생은 다시 자기의 뒷 배무시를 돌아 보았다.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저애들을 불러 세워 물어볼까? 왜 웃는지?

그러나 이 아이들도 그녀가 돌아보는 눈치자 얼른 고개를

숙이고 표정이 굳어졌다.

김선생은 옛날 생각이 났다.

**중** 학교 2학년 때던가, 3학년 때던가…… 그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었다.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학년 아래인 같은 마을의 미순이와 함께 가게 되었다. 읍내가 끝나는 지점인 다리계에서 우체국에 다니는 역시 같은 마을의 평자언니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별판을 길게 걸어 정미소와 미류나무집을 지나 마을로 가야 했다. 한 시간은 죽히 걸릴 거리였다. 평자언니는 교환수 생활 및 년제여서 아주 멋쟁이가 되어 있었다. 녹두빔이 도는 반질반질한 감의 바바리 코트에 높은 하이힐, 머리카락에 구불구불한 쥘을 넣어 등어리까지 기르고 있는 품이 아주 아름다웠다.

언니는 앞에 걸어가고 중학생인 그녀들은 뒤에 걸어가는 구도로 세 사람은 별판을 걸어갔다. 벼가 누렇게 익고 있었다. 그런데 예의 그 웃음이 터진 것이다. 그녀와 미순이는 분명히 저 언니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었고, 또각또각 일정한 소리를 내는 저 하이힐을 신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니의 머리랑 바바리코트도 만져보고 싶은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그런 표시는 커녕 언니 뒤에서 그저 웃음을 터트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눈에 실처럼 끊임없이 후후 히히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이었다. 미순이가 웃는 끝에 그녀가 웃기시작하고 그녀가 입을 가리며 웃음을 다스리고 나면 또 미순이가 킁킁 웃는 식이었다. 책가방을 들고



서로 웃지 말라고 팔뚝을 꼬집어 가면서도 그녀들은 그 웃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처음 몇 번은 언니도 돌아보며 왜 그러니? 내 뒤에 뭐 묻었니? 하며 같이 웃어 주었지만 그래도 그녀들이 웃음을 그치지 않자 점차 화난 얼굴이 되어 걸음을 아주

빨리 떼어놓았다. 그녀들도 언니가 화가 나서 파르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꼈지만 웬일인지 그날은 그토록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웃음은 참 한번 솟으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았다. 특히 소녀의 웃음은. 그녀들은 언니를 좋아하고 있었

는데 언니는 쪼끄만 것들이 자기를 홍보는 줄 알고 빨리 빨리 걸어 그녀들 앞에서 도망가버렸다. 그리고나서는, 그 후로 동네에서나 읍내에서 그녀들이 아무리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김선생은 지금도 그것이 애석

했다.

언니와 그녀들의 사이는 그렇게 해서 아주 영영 틀어져버리고 만 것이다.

그때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우리들은 언니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게 아니었으며 그때 언니를 뒤에서 흉본 게 절대 아니었다고, 그것은 소녀시절에 찾아드는 저 알 수 없는 웃음보 때문이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변명할 사이도 없이 그들은 각기 혼자서 저 소식에 닿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다른 어른이 되었다. 미순이는 지금 재일교포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었고, 팽자언니는 어느 택시 기사의 아내로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지만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채였다. 또 중년이 다 되었을 언니를 이제 새삼스럽게 찾아 그때 그 일을 얘기하며 용서를 구한다 해도 그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느낌이라 순간적인 것이며,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찌고 저찌고 해봐야 김빠진 맥주 같은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녀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은, 안타깝지만, 사람은 매 순간 순간의 느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확히 알릴 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이나 형편, 감정 같은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리가 없었다. 이것은 소통의 한계이고, 절망 비슷한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존재인가 보았다. 김선생은 지금 그것을 생각했다. 또다른

외로움을 이제 또 만들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은 일없이 저렇게 웃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공연히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되었다.

소녀의 웃음에 대해서는…… 그녀는 그렇게 아랑을 갖는 마음이었다.

김선생은 전철역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쉬엄쉬엄 플랫폼의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그녀의 뒤쪽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녀를 다시한번 쳐다보고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뒤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것 때때 그래요.”

하고는 그녀의 등뒤에서 무엇을 비벼 떼어내 주었다. 납작하게 눌러진 새우튀김이었다! 어떤 경로론지 오늘 옆의 이선생이 싸왔던 도시락 반찬 중의 한 개가 그녀의 등뒤에 올라 붙어 있는 것이었다! 의자에 뒤로 기대느라고 그들은 아주 몽그러지며 자기 등쪽에 붙어버렸던 모양이

다.

김선생은 놀랐다. 그리고 아연했다. 아이들은 자기를 따라오며 웃었다. 선생님의 옷에 붙은 반찬을 보며, 그것은 자기의 소녀시절 웃음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때 그녀들은 팽자언니에 대한 호감에서 그렇게 웃음이 나온 것이었고, 무엇인가가 - 아마도 바람 같은 것이 간지러워 그렇게도 웃음을 참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의 웃음은 달랐다. 이것은 아주 베타적인 비양거림이었다. 남은 어떻게 좋다는, 상대방은 똥을 바르고 있어도 나오는 상관이 없다는, 나는 그저 뒤에서 웃어나 준다는…… 그런 냉랭한 시선이 들어있는 웃음이었다. 말하자면 비웃음이었다. 그것은 상대가 선생님이어도 마찬가지로였다.

김선생은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



#### 이청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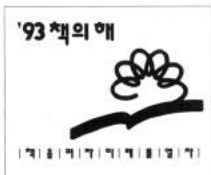
서울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졸업

문학사상 신인발굴로 등단

KBS 방송문학상 수상

KBS 수상집 <감>과 창작집 <빛소리>가 있다.



어린이를 위한 읽을만한 책 소개

# “이 책들을 읽고 가을을 노래하는 어린이가 되자”

송 재 찬 / 동화작가, 서울한신국민학교 교사

## 김병규 창작동화집 나무는 왜 겨울에 옷을 벗는가 (대원사)

창작 동화집 나무는 왜 겨울에 옷을 벗는가에는 한국 동화의 참된 맛을 느끼게 해주는 21편의 동화가 실려있다. 우리의 생활 주변과 자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낸 동화들은 향기가 제각기 다르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잘 다듬어진 문장에선 우리말이 갖는 아름다움도 맛볼 수 있다.

<물지게 타령>이란 작품을 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물장수 소년 만태가 나온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는 만태. 그러나 그는 물을 지고 올 때마다 어떤 사람도 하지 않은 놀라운 말을 한다.

“오늘 물은 향기로운 거예요. 아카시아나무 밑을 지날 때, 하얀 꽃송이들이 온통 물통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별이 담긴 물을 길어 오느라고 늦었어요. 별이 뜰 때 까지 기다리느라고……”

“물맛이 좋을 거예요. 흰구름도 함께 담아 왔거든요.”

이처럼 김 병규 선생님의 동화들은 지금껏 우리가 읽은 동화와는 전혀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준

다. 짙막한 동화들이지만 긴 동화를 읽었을 때의 감동을 맛볼 수 있다. 이야기 한편 한편에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너무나 생생한 이 작품집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여보자.

## 미카엘 엔더의 장편 동화집 꼬마 친구 짐크노프 (글수레)

<모모> <끝이 없는 이야기>로 우리 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독일의 동화작가 미카엘 엔더의 장편 동화 꼬마 친구 짐크노프는 재미와 감동을 함께 주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다.

임금님과 신하 두명만이 사는 작은 나라 <푸른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껏 읽어온 외국 작품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미카엘 엔더는 아주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꿈꾸는 그런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아주 작은 나라, 푸른 나라에 어느 날 잘못 배달된 소포가 날아든다. 소포 속에는 뜻밖에도 검둥이인 갓난 아이가 들어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동화의 주인공인 짐크노프.

짐크노프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침벨기의 명수이며 기관사인 루카스를 사귀게되고 마침내는 둘



이서 섬을 떠나게 된다. 푸른 나라는 짐크노프 때문에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기관차를 배로 개조하여 항해를 시작한 짐크노프와 루카스는 여러 날 후에 꿈나라에 도착하는데…… 이 동화는 읽을 수록 재미있다. 유괴당한 꿈나라 공주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는 두 사람 앞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흥미있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도 읽지 않을 수 없는 흥미있는 이야기. 이 책은 가을을 맞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 박명희 장편소설

#### 꿈이 흐르는 강 (재능 출판)

박명희 선생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긴 소설로 잘 쓰는 동화 작가이다. 꿈이 흐르는 강 역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의 아주 솔직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멋진 친구를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오해가 얽혀 친구끼리 싸우는 이야기, 이혼한 부모 때문에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야기…… 어디서나 흔하게 만나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흔한 이야기면 서도 재미가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거기에

작가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비밀스런 마음들이 마치 오월의 신록처럼 싱그럽고 들꽃처럼 아기자기하다. 언니 친구를 좋아하는 진영이, 그 진영이를 좋아하는 김 형, 세 아이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 노원호 동시집

#### 내 가슴에 초인종 하나 있다면 (상서각)

#### 신형건 동시집

#### 바퀴달린 모자 (현암사)

이 가을에는 음악을 들으며 시를 읽어보자. 긴 이야기도 좋지만 시는 또 시대로 다른 맛을 준다. 여기에 추천하는 두 권의 시집은 우리 동시인 중에서 좋은 시를 쓰기로 소문난 선생님들의 시집이다. 노원호 선생님의 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시로 써내는 마술사같은 분이다. 외위되고 싶은 시가 한두편이 아니다. 신형건 선생님의 이번 시집은 아주 특이하다. 시면서도 동화를 읽는 기분이 드는 그런 시들이 아주 재미있다. 아하 이렇게 써도 시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은 저절로 감탄하게 될 것이다.

자, 가을이 왔다. 이 가을에는 시도 외고 멋진 시를 적어 벽에도 붙여보자. 시인이 된 기분으로.

'93 책의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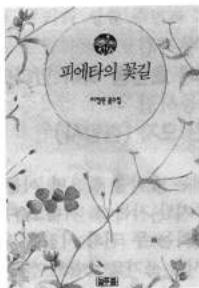


1월 10일 | 11월 10일 | 12월 10일

성인을 위한 읽을 만한 책 소개

## 꽃과 삶, 그 치열한 만남

—이정원 꽃수필 『피에타의 꽃길』—



김 중 회 /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경희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준.  
문학박사. 저서 「한국소설의 낙원의  
식 연구」 「문학의 이해」  
평론집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

이정원의 두 번째 수필집 「피에타의 꽃길」과 만난 일은, 내게 있어 하나의 놀라움이었다.

매달 물밀듯이 나의 책읽기 시간을 압박해 오는 문예지의 소설과 단행본들에 쫓겨, 수필 쪽에는 눈을 돌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산보라도 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한 이 수필집은, 수필에 대한 나의 안일한 생각을 적지않게 허물면서 일반적인 문학 이론의 통념에 비추어서도 새로운 지평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소재의 집중성이 강하게 눈길을 끈다. 꽃이라는 특정한 대상만을 글의 소재로 선택하는 고집은 그의 첫수필집 「어느 꽃인들 이쁘지 않으랴」에서 부터 일관되게 지켜져온 것으로, 어쩌면 편집증적인 집요함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정적인 범주의 소재로 글을 쓰면서도, 그 내면풍경은 전혀 고정적이지 않다. 마치 백화난만한 화원의 풍경처럼, 다채로운 빛깔과 세미한 음색이 글의 문면을 또 그 행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 꽃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은 이정원의 마음 속 깊은 자리로부터 세계를 내다보는 창으로 기능한다. 그는 꽃을 통하여 세상사와 인간관계의 여러 절목들을 가능한다. 때로는 꽃의 외면적 형상이, 때로는 꽃의 내포적 의미가, 또 때로는 꽃에 투영된 자신의 심상이 그러한 기능의 잣대가 된다.

일찍이 블레이크는, “한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들은 핀 꽃에서 우주를 본다”고 진술했는데, 이와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꽃은 이정원에게 하나의 소우주이다. 그는 꽃을 통하여 유장한 자유의 공간을 여행한다. 이 관념적인 세계인식의 방법이 지적유희의 형태로 결말이 났다면, 우리가 이정원의 수필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정원의 꽃의 내밀한 의미망을 현실적인 삶의 구체성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을 뒤따르자면, 어느새 관념의 무계가 여과되어 없어지고 순정한 감성이 물안개처럼 어려 옴을 느끼게 된다. 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엄중한 치환의 방식, 그것을 촉진하는 일은 무슨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것은 소재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그의 따듯하고 진실한 정성으로부터 말미암을 터이다.

예컨대 길쇠의 이름모를 풀꽃에 공여하는 정성 어린 손길이 참된 사랑을 건네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꽃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한다. 인간과 자연의 순후한 교감은 단박에 범상한 일상을 신비로운 체험의 영역으로 증폭시키는 힘을 발산하고, 그로부터 추수되는 다양한 삶의 깨우침은 작고 소박하지만 깊고 소중하기 이를테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꽃이라고 한정적 성향의 소재를 탐색하면서도 각기의 작품들이 그가 얻은 깨우침의 유형에 따라 서로 선명하게 다른 주제의식을 표출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수필문학에도 이토록 특이하면서도 삶의 보편적 진실을 밝혀주는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기쁨을 전해주는 대목이다.

또 하나 놀랄만한 일은, 글의 안과 밖이 한가지로 어울목의 차돌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는 사실이다. 겉으로 노출된 문제에 있어서나 안에서 내비치는 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느 한구석 소홀해 보이는 데가 없다. 꽃잎 한 장, 꽃 한 송이에 그가 기울인 정성이 오래도록 공들여 쓴 문맥에도 그대로 스며있는 셈이다.

어느 한 떨기꽃이나 무리꽃에 의해 투영된 삶의 진실, 유별나게 모난 곳이 없는 삶의 저 깊이있는 바다에서 건어올려진 진실이 문학적 변용의 모양새를 얻도록 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글의 형식이 꽃수필이다.

그런 만큼 이 작가는 편편마다 수미상관한 열개와 열갈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꽃을 응대하는 자신의 심사와 여기에 반응하는 꽃의 전언을 탄력적으로 접목시킨다. 이 연결고리는 그의 수필을 수필답게 하는 맛이요, 미덕이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재제가 어떠한 표현법을 얻어야 옳을지를 명민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이정원의 이처럼 빼어난 수필들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습득된 글재주의 소산일 리 없다. 이번 수필집을 읽으면서 여러 번 놀란 나는, 다시금 그의 첫수필집을 찾아 읽었고 거기에서도 지금껏 살펴본 특징들이 고스란히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흙 속에 묻힌 옥들을 찾아낸 듯한 기쁨이 나만의 감상적이고 주관적인 소화가 아니라면, 그는 첫수필집에서 글의 실상에 비해 너무도 정당한 조명과 평가를 받지 못한 작가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시답잖은 감정파잉의 잠문들이 대중문화의 현란한 날개를 달고 있는 세대와 견주어 보면 더욱 그렇다. 그의 글이 안고 있는 단정한 외관과 진솔한 발화, 그리고 꽃이라는 유일한 소재만으로 구축한 다양한 의미의 성체들은 우리 수필문학이 매우 귀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성과에 해당된다.

# 컴퓨터 구입, 어디서 어떻게?

박성욱 / 대한태권도협회

컴퓨터를 사긴 사야 할텐데 대기업 기종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전자상가에 가서 사야할지 386을 사야할지 486을 사야할지.....

불과 몇년전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 하면 XT와 AT 두종류에 불과 했다.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대부분 AT 기종으로 알고 쉽게 선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386, 486, 486DX, 486DX-2 라고 하는 기종과 얼마후면 나온다는 586 등 여러종류가 있어 컴퓨터를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컴퓨터 진가를 확인조차 못하는 일생일대의 불행을 맛보리라!

'486이 1백만원 이라고 와! 싸다. 내일 당장 가서 아니 지금 사야지.'

그러나 컴퓨터 구입의 경우 '싼게 비지떡' 이라는 속담이 잘 통하는 경우이다. 컴퓨터를 구입하기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이 있다. 바로 사양이다.

동급 기종에 비해 값이 형편없이 싼 컴퓨터는 사양을 비교해 보면 속빈 컴퓨터라는 걸 알 수 있다.

CPU	80386 DX
속도	55 MHZ
VIDEO	SUPER VGA
FDD	5.25
HDD	100 MB
RAM	2 MB

컴퓨터를 구입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마이크로 프로세서(CPU)가 무엇인지.

80286(286AT)인지, 80386(386)인지, 80486(486)인지. 지난호에서 말했지만 컴퓨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알맞는 용량의 컴퓨터를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컴퓨터의 기능은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과 정비례한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신이 컴퓨터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딱 꼬집어 내지 못한다.

많은 DATA 들을 처리하는 그래픽, 설계 등 전문적 업무로 컴퓨터를 활용 하겠다면 고급 기종을 선택 해야겠지만 문서 관련 작업, 교육용, 개인 사업상 사무도구 등은 386 기종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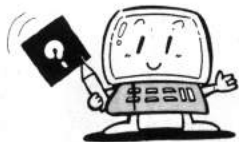
요즘음의 소프트웨어들은 큰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낮은 기종선택은 한번 생각해 볼일.

야!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업무에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하드웨어를 결정하는 것도 쉬워지겠구나.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부분은 속도와 모니터이다.

속도는 AT 급이 12-16 MHZ, 386은 16-55 MHZ, 486은 100 MHZ 이상 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던데 빠를수록 좋겠지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사람이 느끼기에 그저



눈깜짝할 순간에 지나지 않으니 만큼 16-33 정도면 적당 할테고 모니터는 컬러 그래픽이 아니면 작동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니 컬러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으로는 플로피 디스크(FDD)와 하드 디스크(HDD) 그리고 RAM 이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플로피 디스크는 5.25 인치 또는 3.5 인치 하나 정도면 좋겠고 하드디스크는 80MB(필요 하다면 좀 큰것을 써도 무방), RAM은 2MB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급 기종에 비해 값이 싼 컴퓨터는 일단 의심을 해볼만하다.

속도가 떨어지는 메모리와 작은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고 플로피 디스크도 싸구려를 사용 한다면 얼마든지 값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살때는 사양을 잘 살펴 보라는 말씀.

그런데 막상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야하는지? 대기업 제품이 좋을지 상가 제품이 나올지.

대기업 제품이나 상가 제품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우선 대기업 제품의 장점은 신용과 안정성이다.

그렇다고 대기업 제품이 무조건 안전한건 아니다. 대기업 제품은 서로간의 호환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반해 상가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대기업의 동급 기종에 비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 다음은 뛰어난 호환성이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문제이니 값만 비싼 대기업 제품보다는 실속있는 상가 제품이야!!'

'무슨소리, 상가 제품은 불량도 많고 A/S도 문제가 되니, 확실한 대기업 제품이야!!' 타당한 말도 있고 비논리적인 말도 있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겠느냐의 질문에는 컴퓨터 전문가라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얼마의 예산을 생각하는지, 어떤 사용 목적인지.

결론적으로 컴퓨터 구입시 자신의 예산과 사용 목적의 설정과 적당한 가격 기종을 잘 선택 해야 만이 그야말로 컴퓨터의 진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말씀!!! **END**

## 56세에 1단 승단심사에 응심한 정찬도씨

“내년에 2단에 응심하고 도민체전에도 나가 젊은이들과 뛰고 싶어요”



▲정찬도씨의 태권도 수련 모습(가운데)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다. 이맘때면 누구나 나름의 결실을 위해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 볼 때이다. 이러한 계절을 맞아 9월 19일 경북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3/4분기 승단심사는 수련생이나 사범들에게 그만큼 큰 의미를 갖게했다.

특히 56세의 장년에도 불구하고 1단 승단심사에 응심하여 젊은이 못지않은 기량을 발휘하며 맘을 홀리는 사람이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태권도의 수련생들이 점차 저연령화함에 따라 심사장에

서 성인을 찾아보기 힘든때에 늦은막히 태권도를 배워 태권도 정신을 가다듬고 태권도 기술을 보여준 정찬도(포항 가나안농장 사장)씨는 태권도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찬도씨가 포항 청룡체육관(관장:張泰榮 30세, 前浦瑠水高 코치)의 문을 두드린 것은 1년 전이었다. 우연히 연수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새벽공원에 노인들이 나와 중국무술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이들은 자기나라 무술을 쉽게 익힐 줄 알았고, 어느 것보다 사랑하고 있

### 정찬도

포항청룡체육관에서 수련  
포항 가나안농장 사장 56세

었다. 그곳에서 정찬도씨는 우리의 태권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본 모습을 찾아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사랑받는 생활 스포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보았다. 때마침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해오던 정찬도씨는 50을 넘긴 나이에 때문에 망설임도 많았지만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힘찬 기합소리에 이끌려 청룡체육관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체육관에 입관하면서도 가장 큰 걱정이 '몸이 굳어서 제대로 될까' 하는 것과 '젊은 수련생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관한지 일주일도 지나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장태영 관장이 직접 고연령자들을 위한 유연성 배양과 기초체력 강화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쉽게 수련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땀몰으키기를 스무개도 겨우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백개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는 팔십이키로나 나갔는데 지금은 칠십이키로도 겨우 나가요. 무려 십이키로나 빠진 것입니다.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우선 몸이 가볍고 하루종일 기분도 상쾌해요."

정찬도씨의 말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듯이 그도 이제 어엿한 태권도인이 되었다. 포항제일교회 장로, 동로타리클럽 부회장,



▲태권도와의 인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가나안농장 경영 등 무척 바쁜 생활을 하는 그이지만 밤 11시건 12시건 하루도 빠짐없이 도장을 찾아 1시간씩 수련을 한다. 어쩌다 수련을 하지 못하는 날은 통 잠을 이루지 못해 결국 도장을 찾게 만든다. 모두가 정찬도씨의 부지런함과 열성 때문이라.

얼마전 그는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청룡도장 성인 수련생 10여명을 중심으로 유단회를 만들고 회장을 맡아 불우이웃돕기, 회원들의 경조사 참석, 도장내 헬스기구 확충, 수련관내 샤워장 건립 등 태권도인들의 편의제공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56세의 나이에 아직 염색도 하지않고 다닐 수 있고, 태권도와 인연을 맺게해 나에게 젊음을 안겨주었으니까요. 하나님과 인연이 맺은 인연을 천륜이라 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맺은 인연을 인륜이라 하지요. 이렇게 사랑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과 인

연을 맺어가게 마련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많은 인연을 맺어왔지만, 늦게나마 태권도와 인연을 맺은걸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단에 합격하면 내년에는 2단에 응심하고 도민체전에도 출전하여 젊은 사람과도 겨뤄보고 싶어요. 태권도 덕분에 항상 자신감도 갖게 되고 매일 컨디션이 좋으니까 집사람도 좋아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땀 생각입니다."

새삼 우리 태권도인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정찬도씨. 태권도 지도자들도 30대 후반만 되면 도복을 입지않고 쉽게 수련생을 지도하려 하는 것이 오늘의 태권도계 현실이다. 이제 우리 지도자들도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금도 56세의 수련생이 도복을 입고 뛰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국기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 모든 이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더욱 연구개발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태권**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 태권도와 함께한 나의 인생



호주 이 춘 봉 / Lee's Taekwondo Academy  
수석사범(8단)

## ▼가족과 함께



나는 1944년 이북 평양에서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4남매의 막내둥이로 태어났다.

부친은 6·25 동란전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시고 1·4 후퇴때 어머니는 어린 4남매를 데리고 이남으로 피난하여 고향을 잃고 말았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성격이 강했던 나는 여러가지 운동을 좋아했고, 싸움도 선수였다. 나를 걱정한 큰형님께서 태권도(그당시 당수도) 도장에 입관시켰다. 4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 때만 해도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은 도장에서 거의 보기 힘들었다. 나는 열심히 수련했다. 어머니께서는 피난 당시 교회를 개척하시고 권사일을 보시면서 태권도가 무슨 싸움질을 배우는 것으로 아시고 도복을 몇번이나 불태워 버리셨지만, 나는 계속해서 수련했다. 또 나는 학교에서 육상과 축구선수 생활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 당시 3단으로 승단했고,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였다. 1964년 2학년 재학 당시 군에 입대하여 의정부에 있는 미 1군단 11대대 본부에 카츄사로 근무하면서 2년반동안 미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다. 그때부터 외국에 나갈 계획을 하고 67년 3월에 제대하여 대학에 복학하며 영문과로 전과하였다. 같은 해 영등포구 신길동에 처음 내 도장을 설립하고 69년도에 신림동에 신림체육관을 설립하였다. 졸업후 남강 중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 당시 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드디어 1973년 9월 12일 희망하던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어린 아들과 아내와 남호주주의 수도인 아들레이드(Adelaide) 시에 첫 한국 교포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호주는 시드니와 멜번에 한국교포가 겨우 20세대로 되지 않았었다. 아들레이드시는 인구가 약 100만 가량되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예술, 교육과 종교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다.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호주 전역에 약 3만명이 넘는 교포가 살고 있다. 태권도 사범도 많이 늘어났고 태권도 인



▲ 호주 아틀레티스 이촌봉사팀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호주사람들의 열기가 뜨겁다

구도 무척 많다. 20년 전에는 일본의 가라데가 성행했으나 지금은 태권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나는 74년 제1회 아시아 대회에 관한 4명을 출전시켜 내개의 동메달을 획득했고 75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77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79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호주 대표로 참가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한 아틀레티스 중앙에 Lee's Taekwondo Academy 본부를 두고 많은 사범들을 배출하여 지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 만여명이 넘는 태권도인들을 양성했다.

이제 나이 50이 된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새벽 여섯시에 기상하여 중앙도장에서 개인지도를 하며 저녁에는 클래스를 지도한다. 나는 20년 동안 한 도장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국기 태권도를 가르치며 사범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그동안에 유도, 검도, 합기도를 배웠고, 가르치기도 한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청년들과 축구를 하며 특히 18년전에 시작한 골프는 프로는 못되지만 싱글이다. 그러나 나에게 태권도가 우선이다. 그러기에 고국을 방문할 때면 우선 태권도 선후배들의 안부를 묻고 또 협회와 국기원에 들려 인사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다.

피난 당시만 해도 우리 4남매는 흠어머님을 모시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것 같았지만 지금은 뿔뿔이 헤어져 인생의 행로가 인간의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큰 형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며 누님과 작은형님은 미국 뉴욕에서 사업을 하시며 한인교회 장로일을 보시고 막내인 나는 아틀레티스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8년 전에 첫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3년전 장로직을 맡아 이제에는 교회 일을 보게 되었다. 해외나 국내의 많은 사범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50이 된 나는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다. 남은 내 인생을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충실할 것이며 변함없는 무도인으로서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한다. 나는 20년간 호주에서 일한 것이 많고 배운 것도 많다. 내게는 세 아들이 있다.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이며 태권도 4단과 3단 승단 준비중에 있다. 한 건물에 중앙도장과 한국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20년 전통을 지닌 태권도 도장에서 흘러나오는 기합 소리에 만족을 느끼며 이 중앙도장이 아틀레티스에 지속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뒷받침해준 내 아내와 후원해주신 어머니와 내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태권**

#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 목 차

- ① 글을 준비하며
- ② 체육관현황 및 우리의 모습
-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 ④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
- ⑤ 글을 마치며



이 중 천 /

-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졸업
- 태권도 프로그램 연구회 회원
- 경기도 여수 오학체육관 관장

이번 글의 주제는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이다. 이번 주제에 대한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 할까 한다.

첫째는 교육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며,

둘째는 경영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아마도 두번째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글의 내용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몇가지 예를 들까 한다.

아울러 경영적 측면에서 필요한 몇가지 사항과 프로그램을 다뤄 볼까 한다.

이 글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요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구분 했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사실 이 두 부분은 굳이 나눌 필요성도 부족하고 나누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하나의 명제에 가깝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함은 체육관에서는 무엇보다도 태권도를 통한 가르침, 교육이 최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과 태권도 교육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시기이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부분은 상당히 밀접한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얼핏 두 부분을 보면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하나 여기엔 숨겨진 질서와 원칙이 존재



하고 있음을 일선 사범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첫번째 측면 즉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적 사명의식을 갖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체육관 교육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가르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두번째 부분은 건강하고 충실한 모습으로 다가오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첫번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두번째 경영적 측면만을 추구한다면(사실 나는 경영적 측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솔직히 경제적 측면이라고 쓰고 싶지만) 두 부분중 어느 한 쪽도 성공의 결과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두번째 측면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지만 혹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어떤 의미의 성공 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1. 교육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간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내일 먹을 빵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극복할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일게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목표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교육에서의 목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교육과 교육자에게 반드시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범에게는 '오늘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의 작은 예를 들어 보자.

교육 목표에는 여러 단위의 크고 작은 개념이 있을 수 있다.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

다. 어느 단계든지 이러한 독특한 정신을 기초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우리에게도 큰 개념의 교육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각 체육관이 갖고 있는 관훈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이 관훈을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각 체육관이 갖고 있는 관훈은 우리 태권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관훈이 큰 개념의 교육 목표였다면 다음 단위의 목표는 연간 목표이다.

연간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피교육자의 수준이 일정치 않으며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해하고 복잡하지만 경영자에 의해서 부분은 분명히 설정되어져야 한다.

다음 단위의 목표가 월간목표이다. 나는 여러 단위의 목표 중에도 월간 단위의 교육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아마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준비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얼른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월간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계절과 운동시기 수련생들의 분위기 체육관 대 내의 행사 등의 많은 부분 참고와 계획이 필요하다.

11월에는 태권도 한마당이 열린다. 그렇다면 그 달의 교육목표는 태권도 한마당에 교육 목표가 설정되는 것도 한 예인 것이다. 이렇게 월간 목표가 설정됐다면 이를 위한 철저한 주간 교육계획, 일일 교육계획이 준비되고 실시되어져야 한다. 구체적 예문을 들어 보겠다.

필자가 운영하는 체육관의 교육 목표는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할 줄 아는 참다운 태권인을 만드자."

이것이 내가 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최대의

교육목표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연간 교육목표, 월간 교육목표, 주간, 일일 교육목표를 작성한다.

큰 개념의 교육목표에서 작은 개념의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왜 프로그램이 중요한가!

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프로그램은 도복을 입으며 생각나는 즉흥적 발상의 가르침이나, 느낌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교육, 자신의 경험과 습득 기술만을 전수하는 단순 기능 전수에서 벗어나 오늘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구체적 교육 내용을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교육을 실시하자는 그 구체적 방법이다.

무엇을 가르칠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잊게하며 오늘, 일주일, 한달의 교육을 표류하게 하며 그 시기에 따라서는 체육관 혹은 태권도 교육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표류 현상은 경영적 측면에서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 2. 경영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태권도 교육에 있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글에 대한 결론은 독자 여러분의 지분으로 남겨 놓고자 한다.

경영에서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하면 먼저 앞서서도 경영적 측면이라는 표현 보다는 경제적 측면이라고 쓰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끝없이 이윤을 추구한다. 역시 체육관 경영도 최대의 이윤을 추구한다. 무엇을 통

해 이윤을 추구하는가. 그 매개체가 태권도다. 태권도는 무엇인가. 사람의 사는 길, 사람이 되게 가르치는 것, 참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태권도 교육을 통해 우리는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떠한 물질적 상품을 만들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민케하고 생각하게 하는가. 그것은 태권도사범의 교육자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교육자에게 교육이 우선이며, 가르침에 최선을 다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교육자의 시대적 사명감이라 생각한다.

체육관의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수련생 현황에서 아주 간단히 나타난다.

지금까지 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이 짧은 표현을 위해 중복되고 반복되는 글을 써왔다.

체육관의 경영적 측면이란 것은 수련생이 얼마나 많으나? 또는 적으나로 아주 간단하게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나는 그 결과, 즉 교육 결과의 구조(경영)를 튼튼히 하려면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경영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가르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피부로 느끼는 대상은 아마도 수련생들일 것이다.

수련생들은 스스로 나태함을 극복할 것이며 그 어느 곳보다도 체육관엔 먼저 가고파 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재미 있고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준비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변화를 약속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을



▲ 도장에서 수련하는 수련생들.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가르칠 것인가. 오늘 교육의 목표가, 교육 진도량이 없는데 어디에서 반성하고 어디에서 가르침의 흥을 찾을 것인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수련생 현황 즉 경영적 구조에서 바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 지금 계획없이 생각나는 대로 기술만을 전수하고 있다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련생이 퇴관하는 이유를 잘 분석해보면 대부분 약 70%이상은 본인의 컨태로 인한 것이다. 이 경영적 취약점을 프로그램의 다양화 계획화를 통해 극복해 보자. 가능한 일이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분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쉽게 느끼고 느꼈던 부분,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사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밤을 새워가며 쓰고 있으니 나 자신도

우습다.

태권가족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가 아닌가 “잘 가르치면 체육관은 잘 돼” 백 번 옳은 말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독자 누구나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실천이 가능한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글은 주로 가르치는 사범의 역할과 그 사명에 대해 적어 보았다. 끝으로 사범을 두고 경영하는 분이나 교육자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적어 볼까한다.

그 첫째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일지를 작성 하자는 것이다.

교육일지는 교육자 자신에게는 준비와 계획을 통한 철저한 교육이 가능하며 평가 및 반성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표 1>

# 教育日誌

199    년    월    일    요일(날짜 )

결 계	사 범	사 범	관 장

## 오늘의 교육 내용

시간 구분	1 부	2 부	3 부	4 부
내일의 교육내용				
특별사항 및 전달사항				입 관
평가 및 반 성				퇴관및사유
교육상의 문 제 점				
주간 및 월간목표	주 월			

## 관 원 현 황

구분	부별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여성부	합 계	목 표
총 원						수업누계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사유						

## ( 일 ) 관 원 현 황

부 별	인원	구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원
		이월 관원													
유 치 부	명	입 관													
국 민 1	명	및													
	2		명												
	3		명												
	4	명	부 관												
	5	명	인 원												
	6	명	퇴 관												
국민총원	명	및													
중 등 부	명	사 유													
고 등 부	명														
일 반 부	명	인 원													
총 원		총 원													

이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교육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표2>는 수련생 분포 현황이다. 표2는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체육관 수련생 분포현황을 간단히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별 학교별 분포를 추가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표2>에서 중요한 것은 퇴관 및 사유관이다. 이 부분을 잘 분석해보면 체육관이 취약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며 그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경영부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표1>과 <표2>는 각 체육관의 현황과 주위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 작성하는 것에 바람직 하다. **한글**



# 무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최대의 효과 획득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지난호(85호)부터 연재되는 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실장의 태권도 트레이닝 방법론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 지도자뿐 아니라 도장에서 일반 수련생을 지도하는 사범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목 차

- 1 태권도와 에너지 시스템
- 2 무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번 호)
- 3 유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4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칭
- 5 태권도와 운동상해

지난 8월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태권도의 종주국임을 확인하는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대회에서 얻은 교훈은 세계속에 날로 보급되는 한국의 국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점이며 또 한편으로는 경기력 측면에서 날로 향상되는 유럽이나 남미의 경기력 향상이 종주국인 우리 태권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 프랑스의 경우 미들급에서 우승한 선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웅이 되면서 이번 프랑스 외교사절단중 한 멤버(Member)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외국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권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태권도 운동을 통하여 일반인이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지난 호에서 열거한 에너지 동원관계의 서술대로 무산소성 시스템인 인원질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에 의한 운동형태를 실시하며 이와 함께 충분한 산소를 섭취하며 심폐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산소 시스템에 의한 유산소 운동을 계획하여 양쪽다 운동시 실시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워나 스피드를 향상시키며 강한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중 젖산 시스템에 의한 트레이닝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 경기는 3분 3회전 경기임으로 3분동안 긴장과 공격 그리고 방어동작 수행 및 접전이 안

태권도 선수가 가져야 할  
체력 요인은 무산소성 운동 능력  
즉 무산소성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성과  
그 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불은 상황에서도 심박수는 120-170정도의 높은 심박수가 기록된다. 즉 운동강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동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박수가 높게 유지되면서 운동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근수축은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공급과 관련시켜 태권도 선수가 가져야 할 체력 요인은 무산소성 운동 능력 즉 무산소성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성과 그 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태권도 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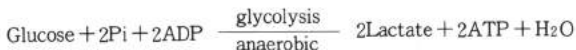
## 1. 무산소성 운동과 젖산

태권도 경기의 경우 3분 3회전 경기를 하고 나면 만사가 귀찮고 쉬고 만 싶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인간은 활동후 휴식을 취해야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데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활동시 그 시초인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너지가 소모된다. 따라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 경기의 경우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피로감이 회를 거듭할 수록 증가되는데 이것은 운동시 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함께 근육에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젖산은 무산소성 운동(태권도 및 모든 구기는 다 포함)시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때 산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성되는 것으로 흔히 피로의 산물이라 표현하고 있다. 1983년 브룩스(Blooks)는 활동중 근수축시 근육세포가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인 ATP의 수요량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개합성하는 ATP의 량을 초과할 경우에 젖산이 생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태권도 경기의 경우 높은 강도로 운동을 계속할 때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ATP의 수요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생성량을 초과하게 되어 경기가 계속 진행될수록 젖산의 축적이 증가되는데 이로 인해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축적된 젖산의 량은 개인의 무산소성 운동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축적량을 이용하여 무산소성 파워를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의 경우 젖산의 축적량을 이용하여 그 사람의 무산소성 운동능력 혹은 태권도에 필요한 체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젖산의 생성이 신체의 몸안에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피로감이 회를 거듭할 수록  
증가되는데 이것은 운동시 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함께  
근육에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서 생성되는 화학적 과정을 요약하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젖산과 태권도운동

일반적으로 안정시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신체는 원활한 대사과정이 일어나 안정시 수준의 혈중젖산농도는 0.56~2.00mM로 유지된다. 이러한 축적은 일상적인 활동을 실시할때 즉 도장에서 간단한 체조나 준비운동(warming-up)시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는 운동이 충분한 산소공급에 의해 근수축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체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반복적인 기술훈련이 거듭될 수록 부족한 산소의 이용 때문에 젖산의 축적은 증가되면서 서서히 실시되는 운동에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며 신체적으로 근육이 피로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축적된 젖산의 최대량은 실시되는 운동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반 건강을 목적으로 도장에서 수련하는 일반인의 경우는 강한부하이지만 아주 짧게 근력을 발휘하거나 기술을 표현하고 다시 동적인 휴식시간을 갖기 때문에 운동형태에서 본다면 젖산이 쌓이지 않은 비젖산 시스템 즉 ATP-PC 시스템과 유산소성 운동에 의한 운동 수행으로 젖산의 축적없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은 이들과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3분 3회전의 경기 시간 동안 빠르고 강한 파워있는 경기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한부하에 의한 운동시간 지속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됨으로써 젖산의 축적은 도장에서 수련하는 수련원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젖산의 축적이 증가되고 젖산이 쌓인 정도에 따라 기술발휘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 강한 훈련에 의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에 속달된 선수의 경우 젖산의 축적량의 정도에 따라 운동량 수행이 차이가 있고 또 같은 량의 젖산의 축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의 경우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한부하에 의한 트레이닝 및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파워를 오래동안 경기시간 내내 발휘될 수 있도록 무산소성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훈련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Interval Training)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개개인 선수에게 설정된 부하를 이용하여 최대운동을 중간휴식을 취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양식의 트레이닝으로 이때 부하결정은 체력수준에 맞는 설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인터벌트레이닝에 의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부하를 최대로 7-10초 정도 수행한후 30-40초정도 휴식을 취하며 5세트 정도 실시하는 하이 파워 인터벌 트레이닝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한 부하에 의한 트레이닝 및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파워를 오래동안 경기시간 내내  
발휘될 수 있도록 무산소성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훈련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Interval Training)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High Power Training)이나 강한부하를 30초 동안 실시하며 90-120초정도 휴식을하며 3회 실시하는 미들 파워 트레이닝(Middle Power Training)이 대표적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선수의 경우 운동과 휴식시간을 조정하여 개인의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 방법론을 찾는 일은 지도자에게 매우 필요한 훈련방법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건강을 목적으로 태권도 운동을 수련할 때에는 이러한 운동보다는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의 증가를 위한 수련진행 방법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설정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본다.

### 3. 젖산을 제거하는 능동적 방법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 3분 1회전 경기후 휴식시간은 1분인데 이때 어떠한 방법이 빠른 에너지 보충 및 축적된 젖산제거에 효과적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1분이란 짧은 시간에 쌓인 젖산제거를 위한 인위적 방법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경기의 경우는 경기시 증가했던 심박수의 저하와 보다 원활한 호흡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능동적 동작이 휴식시간에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순산소(100%산소)가 들어 있는 인위적인 방법을 이

용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한 피로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 있지만 그러나 태권도 경기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원활한 호흡운동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조절이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반도장의 경우 건강을 목적으로 수련을 할 경우 많은 운동량과 높은 강도의 운동수행에 의해 젖산이 근육에 축적될 수 있는데 이때 축적된 젖산을 제거한다는 것은 피로회복을 위한 보다 능동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에 의해 축적된 젖산은 휴식시 또는 회복시 주로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되거나 노(오줌) 또는 땀을 통해서 제거된다. 또한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재합성하기 위해 다시 대사과정에 동원되기도 한다. 근육내에 운동실시에 따른 젖산의 축적은 Blocks(1973)의 보고에 의하면 약 75%가 대사과정에 다시 동원되어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고 나머지는 축적된다고 하였는데 최근의 보고에서는 1/5~1/6만이 에너지 동원에 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 젖산농도가 축적된 시점에서 운동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경우 25분에서 50%정도, 45분에서 95%정도가 회복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때 휴식방법에 따른 회복률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자는 빠른 회복을 위한 정적 휴식보다는 동적 휴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피로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적극적 휴식인 동적

태권도 선수의 경우  
운동과 휴식시간을 조정하여  
개인의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 방법론을 찾는 일은  
지도자에게 매우 필요한 훈련방법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휴식의 수준을 찾기 위해 산소회복률이나 젖산 제거율을 검사한 결과 최대산소섭취량의 30-55%의 동적인 활동에 의해 빠른 회복을 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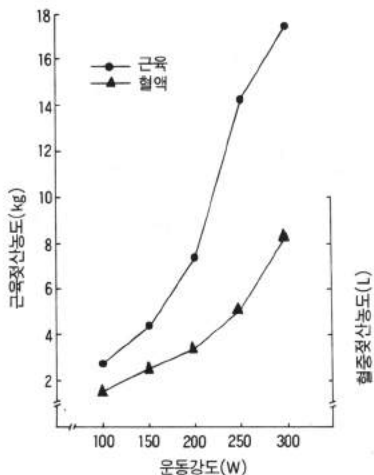
그러나 태권도 운동의 경우 도장에서 자신의 최대 산소섭취량의 몇 %정도 동적 휴식을 찾기 힘들므로 맥박수가 10초당 16-20번 정도 떨어 수 있는 움직임으로 체조나 정리운동을 실시한다면 보다 빠른 젖산제거에 의한 피로회복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도자의 경우 경기시나 훈련시, 또는 수련인에게 운동후 정적인 상태에서 오래동안 지적 사항을 이야기하는건 피로회복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전달사항은 동적휴식(정리운동, 체조 등)을 마친 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4. 무산소성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초체력은 간단한 방법에 의해 기초체력 요소별로 측정 및 간접평가가 이루어 지지만 여러 체력요인이 서로 합쳐 발휘되는 무산소성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기에 의해 서만 그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운동생리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무산소성 파워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내용을 참고 하였으면 한다.

#### 1) 윈 게이트 측정방법

이 방법은 이스라엘 윈 게이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측정방법이다. 이는 특수 개발된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어진 시간대(7초, 10초, 30초, 60초, 90초)에 최대로 페달링 운동을 실시하여 주어진 시간에 나타난 파워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때 손가락끝에서 성난알 정도의 피를 뽑아 혈중젖산농도를 분석하면 더욱 신뢰성있는 무산



(그림-1) 최대운동 및 회복시 근육과 혈액의 젖산의 농도

경기시나 훈련시, 또는 수련인에게 운동후 정적인 상태에서 오래동안 지적 사항을 이야기하는건 피로회복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전달사항은 동적휴식(정리운동, 체조 등)을 마친 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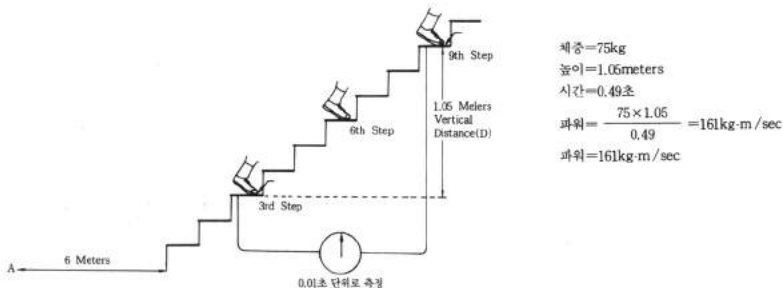
소성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근육속의 젖산을 측정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이거나 (그림-1 참조) 이러한 방법은 침습적이고 신체에 커다란 해를 입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혈액을 채혈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로 많이 이용된다. 현재 태권도 대표팀의 경우 훈련시 이와 같은 측정을 주기적으로 받아 무산소성 운동 능력의 변화를 관찰하여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 만약 약간 비과학적이지만 일반도장에서 무산소성 파워를 측정하려면 요즘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전수가 나타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10초간 최대 페달링 운동시 3초째 나타나는 회전수와 마지막 10초에 나타나는 회전수를 이용하여 떨어지는 감속율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

## 2) 마가리아 칼라멘 측정방법

이 방법은 1964년 마가리아 칼라멘(Margaria-Kalamen)이 개발한 방법으로 (그림-2)에 나타난 바와 같이 9개의 계단을 빠르게 한 계단씩 뛰어 오를때 나타난 3번째부터 9번째 계단까지의 이동시간을 이용하여 파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체중과 3번째부터 9번째 계단까지의 높이 1.05m를 이용하여 파워를 구하는 방법이다. 만약 도장의 공간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련원에게 무산소성 파워에 대한 자료제시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인 체력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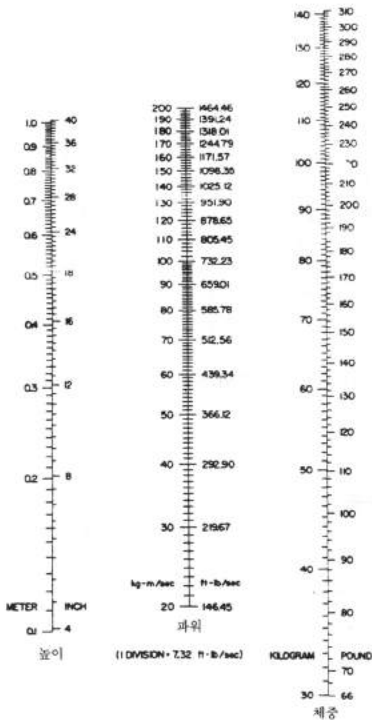
## 3) 제자리 높이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이 방법은 실시하는 체중과 위로 높이 뜬 거



(그림-2) 마가리아 칼라멘 파워 측정방법

운동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과연 수련원에게 필요한 운동실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연구해야 할 문제



(그림-3) Lewis 노모그램을 이용한 방법

리를 이용하여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같은 길이의 점프라 하더라도 체중이 다르면 계산된

파워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같은 간단한 방법에 의해 도장을 이용한 수련원에게 무산소성 파워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 그외의 측정방법

비교적 신뢰도가 낮지만 필드 테스트라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50m달리기, 10m 왕복달리기 등이 있으나 이같은 측정방법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측정은 학교체육 뿐만 아니라 도장에서 실시한다면 훈련의 과학성, 운동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게 해주는 교육의 연장이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운동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만약 공간적, 물리적으로 이런 봉사가 힘들다면 다른 기초체력 요인은 쉽게 측정,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업을 함께 실시한다면 매우 유익한 운동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태권도 운동은 운동시 공급되는 에너지 동원이 주로 무산소성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산소성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의한 훈련방법이 경기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도장을 이용한 수련원에게 스피드와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운동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과연 수련원에게 필요한 운동실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연구해야 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태권**

# 학위 논문 소개

최근 태권도 관련 학위논문이 다량 발표 되고 있다. 이는 그간 종주국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태권도학의 이론적 정립 측면에서 실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태권도誌는 최근 출간된 학위논문을 간략하게 소개-연구목적, 연구내용, 결론부분-키로 하고 '92년 근착논문부터 게재한다. 지면관계상 전문을 실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나, 지도자 및 수련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태권도지에 게재되지 않은 '92년 이후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을 협회로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

〈편집자註〉

## 목 차(발표순)

-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92. 12)
  - 양대승(한국체육대학 대학원 체육학과)
- 태권도 경기의 공격 및 발놀림 유형에 따른 시도횟수와 성공도 분석(93. 8)
  - 김세혁(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 태권도 경기기술 구조에 관한 연구(93. 8)
  - 임신자(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93. 8)
  - 김석련(한국체육학회 '93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양대승

### 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성인의 50% 이상 형

성되어 일상생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이 아동기의 태권도 수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태권도 수련을 통한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성별간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태권도부가 있는 국민학교의 4, 5, 6학년 중 유층집락법을 사용하여 630명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우석(1985)이 5가지 영역에 10문항씩 구성하여 검사한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서울시내 거주하는 4, 5, 6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1년이상 수련하여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품증을 획득한 "유품자 집단", 1년 이하 태권도를 수련한 "유급자 집단", 전혀 태권도를 수련하지 않은 "비수련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태권도 수련생과 비수련생은 다른 절차 방법

에 의해 검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각 문항에 부호화 작업(Coding)을 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원 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 하였으며, 사후검증은 Newman-Keuls 방법을 적용 하였다.

### 3. 결 론

1) 신체적 자아개념 : 태권도 수련은 신체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유품자 집단, 유급자 집단, 비수련자 집단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 $P < .01$ )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한 신체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 $P < .01$ )을 받았다.

2) 사회적 자아개념 : 태권도 수련은 사회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유품자 집단과 비수련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 $P < .05$ )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한 사회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3) 도덕적 자아개념 : 태권도 수련은 도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유품자 집단과 유급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 $P < .01$ )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한 도덕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 $P < .05$ )을 받았다.

4) 성격적 자아개념 : 태권도 수련은 성격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유품자 집단과 유급자 집단, 유품자 집단과 비수련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 $P < .01$ )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한 성격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5) 학업적 자아개념 : 태권도 수련은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유품자 집단과 유급자 집단, 유품자 집단과 비수련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 $P < .05$ )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한 학업적 자아개념의 형성은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6) 총 자아개념 : 태권도 수련은 5가지 영역의

합계인 총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유품자 집단과 유급자 집단, 유품자 집단과 비수련자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 $P < .01$ )가 나타났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한 총 자아개념의 형성은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 4. 제 언

이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태권도를 수련한 아동이 비수련 아동보다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태권도 수련이 아동기의 자아개념 형성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일한 조건의 태권도 비수련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태권도 수련을 적용한 실험연구를 한다면 보다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들의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건전한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성인, 여성 등 각 계층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태권도 경기의 공격 및 발놀림 유형에 따른 시도횟수와 성공도 분석

김세혁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공격유형과 발놀림을 이용한 공격의 시도횟수와 성공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술지도에 활용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품」을 제외한 발놀림을 이용한 공격을 복합공격으로 하여 먼저공격과 나중공격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공격유형과 발놀림유형 그리고 발놀림유형에 따른 각 발놀림 별로 분류하여 상호 비교 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대상은 92년도 대통령기 대회, 92년도 전국체육대회, 92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92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의 준결 및 결승전 50게임 100명으로 하였다.

공격 시도의 횟수를 시도횟수로 하였고 공격을 시도하여 득점한 횟수를 성공횟수로, 무득점과 실점을 실패횟수로 하였다. 그리고 실패횟수는 득점하지 못한 횟수를 무득점으로, 실점한 횟수를 실점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총시도횟수와와 관계에서 성공빈도는 총시도횟수에 대한 각 유형이나 발놀림의 성공횟수를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시도빈도, 무득점빈도, 실점빈도는 성공빈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성공도는 공격유형, 발놀림 유형이나 발놀림의 시도횟수에 대한 성공횟수를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무득점도, 실점도는 역시 성공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 3. 결 론

태권도 경기에서 발놀림을 이용한 공격의 시도횟수와 성공횟수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92년 5월부터 93년 2월까지 남자 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에서 거행된 비경있는 4개 전국대회의 준결 및 결승경기를 대상으로 공격유형 및 발놀림 유형별 공격 시도횟수와 성공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격유형 비교에서 복합공격이 단일공격에 비해 969회(36.08%)의 많은 시도횟수와 176회(6.55%)의 많은 성공을 보였고 시도에 대한 성공도에서는 단일공격이 복합공격에 비해 2.73% 높게 나타났다. 먼저공격이 나중공격에 비해 321회(11.96%)의 많은 시도횟수를 보이나 성공횟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시도에 대한 성공도에서는 나중공격이 먼저공격에 비해 4.60% 높게 나타났다. 공격유형별로 보면 시도횟수가 많은 정도는 복합먼저공격, 복합나중공격, 단일나중공격, 단일먼저공격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공횟수가 많은 정

도는 복합나중공격, 복합먼저공격, 단일먼저공격, 단일나중공격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도에 대한 성공도의 높은 순서는 복합나중공격, 단일먼저공격, 단일나중공격, 복합먼저공격으로 나타났다.

2. 발놀림유형별 비교에서 시도횟수가 많은 유형은 앞놀림 먼저공격으로 나타났으며 시도에 대한 성공도는 옆놀림 나중공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발놀림유형별 발놀림 비교에서 제자리놀림 먼저공격에서는 「바탕폼」, 앞놀림 먼저공격에서는 「뒷발 들어」, 제자리놀림 나중공격에서는 「바탕폼」, 뒷놀림 나중공격에서는 「같이 뒷걸음」, 옆놀림 나중공격에서는 「옆걸음」이 가장 많은 시도횟수로 나타났고 시도에 대한 성공도는 제자리놀림 먼저공격에서는 「바탕폼」, 앞놀림 먼저공격에서는 「은 돌아 걸음」, 제자리놀림 나중공격에서는 「앞발 굴러」, 뒷놀림 나중공격에서는 「몸틀어 걸음」, 옆놀림 나중공격에서는 「옆걸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 제 언

그동안 태권도 경기의 발동작 및 기술에 대하여 사용 되어오던 용어는 외래어와 우리 말이 혼용되어 왔으며 그나마 통일성있이 사용되어 많은 혼란을 가져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종주국의 의무에도 위배 될 뿐 아니라, 한국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우리의 자긍심을 더 높이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순수한 우리말로 된 용어들로 통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말로 된 기술용어를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외래어와 우리말로 사용되던 모든 발의 움직임에 관한 다양한 용어들이 '발놀림'이라는 우리말 용어가 사용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용어의 정립은 그동안 습관적, 경험적 작위에 의하여 난립하던 다양한 움직임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폭넓은 연구들이 이어져 태권도 용어의 완전한 우리말화가 차제에 이

투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권도의 경기나 훈련 지도시에 지금까지 경험에만 의존하여 실시하여 왔던 기술지도의 문제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경기시의 가장 중요한 발놀림 형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훈련이나 경기운동 지도에 사용하면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기는 단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기본 20가지 발놀림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발놀림의 형태들이 이러한 기본 발놀림에서 파생된다고 보았을 때, 기술적 의미 체계의 시대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다양한 복합적인 발놀림에 의한 공격이나 방어들에 의하여 경기를 보다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들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남자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의 국내경기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자료이므로 모든 태권도 경기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의 국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여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대회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태권도 경기기술 구조에 관한 연구

임신자

### 1. 연구 목적

지금까지 태권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묘사분석적 연구나 개별적 기술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그쳤을 뿐 내용에 관한 일반화된 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원인은 모든 학문적 이론이 갖는 현장파악의 결여에서 기인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져 온 경기기술에 관한 개별적 연구들을 토대로 경기기술 현장에서 기술을 구성하고 사용되고 있는 각각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경기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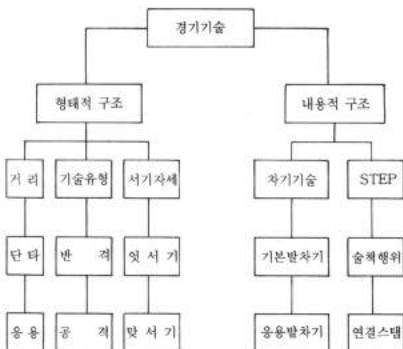
이 갖는 단편적이고 정량적 한계를 극복하여 총체적인 경기기술의 구조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2. 연구 방법

연구의 방법은 주로 지금까지 분석된 경기기술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문헌자료가 부실한 부분은 실전경기에서 통용되거나 응용되고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경기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술의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 그대로 분석하는 것을 Knapp(1964)은 "서술적 정의에 의한 체계적 사고법"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경기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이외의 부족한 부분은 이같이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보충하여 분석의 틀로 마련하였다.

경기기술들은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구조화 될 수 있는데 각각의 기술적 구성요소들이 경기시 유기적으로 조합 또는 결합될 때 하나의 경기기술이 생성되고 생성된 일련의 기술들은 전술이란 의미로 경기기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경기기술에 관한 문헌과 실전경기속에 내포 되어 있는 각각의 기술들을 경험에 의한 서술적 체계적 사고법에 의해 경기기술을 분석하였다.



태권도 경기기술의 구성요소



경기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인 첫째: 기술거리에 관한 것, 둘째: 기술유형, 셋째: 서기자세, 넷째: 차기기술, 다섯째: STEP 등에 대해 각각의 것을 보다 자세히 규명하리므로 연구를 구체화 하려한다.

### 3. 결 론

본 연구에서 논의된 태권도 경기기술에 관한 본 연구는 태권도가 경기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기술의 변화로서 경기만을 위한 경기기술이라할 수 있다. 경기기술이란 일정한 경기규정에 의해 통제받는 기술들로서 경기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고 결합하여 득점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기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술의 특성과 구성요인을 분석하리므로 경기기술의 구조를 규명하였다.

먼저 경기기술을 다섯가지의 구성요소로 분류했는데 첫째, 기술거리로서 제한된 공간에서 경기의 궁극적인 목표인 상대와의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여 적합한 차기기술로 원하는 목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준비거리, 응용거리, 단타거리 등이 있으며 이런 거리에 대한 세가지의 구분은 상대와 주어진 거리가 단일동작인 단타에 그칠 것이나, 아니면 복합적인 연결기술에 의해 응용되느냐에 따라 기술거리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둘째, 상대가 어떤 유형이나 형태로 변화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두가지의 기술유형이 주어지는데 기술동작의 선, 후에 따른 공격, 반격과 차기기술의 복합성에 따른 단일동작과 복합동작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구분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네가지로 세분화 되는데 단일공격, 단일반격, 복합공격, 복합반격 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의 형태와 유형이 상대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경기기술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두 선수가 경기시 취하는 자세로서 각자서는 자세에 따라 차기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앞에 놓는 선택된 발의 위치에 따라 맞서기와 엇서기로 구분했고 이러한

서기자세는 득점을 효율적으로 얻기위한 기술적 요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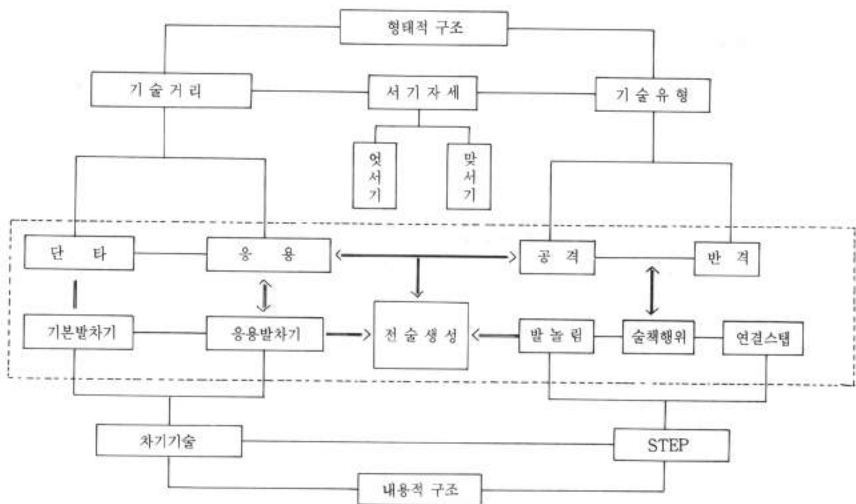
넷째, 태권도 경기기술의 중핵적인 기술유형으로서 차기기술은 8가지의 기본차기로 구성되는데 1. 앞차기 2. 돌려차기 3. 뒷차기 4. 후리기 5. 찍어차기 6. 돌개차기 7. 나래차기 8. 밀어차기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런 기본 발차기들은 신체의 방향과 고관절의 회전각도, 신체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기본발차기+STEP)이라는 공식에 의하여 차기기술의 다양함을 설명하였다.

다섯째, 경기기술속에 Step은 상대의 헛점이나 약점을 노출시키게 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역습의 기회를 잡거나, 차기와 차기를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차기기술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경기기술의 핵심을 이루는데 단순한 발의 움직임인 발놀림, 상대를 속이기 위한 술책행위, 차기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차기연결 등 세가지의 기능들이 신체 중심이동에 따라 1. 체자리 Step 2. 전진 Step 3. 후진 Step (직선, 사선) 4. 회전 Step 과 유기적인 결합으로 전체 Step을 구성하고 있다 하였다.

따라서 태권도 경기기술의 구조는 이러한 다섯가지의 구성요소들이 각각의 결합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구도를 창출해 낼 수 있는데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결과적으로 태권도 경기기술의 구조는 <그림5>와 같이 구도화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기술요소들은 실전경기에서 득점을 얻기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기술적 연관을 갖게되며 이렇게 연관된 기술들은 경기상황에서 개인의 경기능력과 상대에 대한 정보 또는 코칭의 역할에 의해 어떠한 기술적 요소를 어떻게 하나 하나 조합하고 결합시킬 수 있으나에 따라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질때 그것은 태권도 경기기술에 의한 "전술생성"이라는 경기기술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 경기기술의 구조는 다섯가지 기술의 구성요소들이 실전경기에서 득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전술화"할 수



태권도 경기기술의 구조

있을까에 귀착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다섯가지의 경기기술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태권도 경기기술의 구조는 지금까지 논의된 5가지의 기술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 하겠다.

## 연구논문

###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성장 발육에 미치는 영향

김석련

#### 1. 연구 목적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점은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이미 규명된 바 있다.

태권도 수련장은 앞으로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전인적 인격 형성을 통해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에도 부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태권도 수련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면 키가 잘 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본 연구자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중 태권도 수련생과 비수련생이 1년 동안에 성장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고 신체충실지수를 분석하여 그 상황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태권도 명문 국교인 M국교를 비롯하여 K, N 3개 국교의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① 연구 대상 인원 300명을 일주일에 걸쳐 체중과 신장을 1차 측정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② 1년 뒤 동일인 대상 인원을 같은 방법으로 2차 측정한 다음 자료를 분석하였다.

③ 1, 2차 측정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④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신체 총실 지수표에 의한 신체 총실 지수를 개개인으로 산출해서 신체 총실도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⑤ 각 개인별 신체 총실 지수는 1908년 Rohrer 씨가 발표한 신체 총실 지수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신체총실지수 =

$$\frac{\text{몸무게(kg)}}{\text{키(cm)}^2} \times 100(\text{1자리 미만은 사사오입})$$

이 지수는 키를 한 변으로 하는 입방체 중에 몸무게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본 신체 총실 지수를 쉽게 해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 나, 다, 라, 마의 5단계 판정급을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분류한 것을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주 마른 체격

나: 일반적으로 마른 체격

다: 표준 체격

라: 일반적으로 뚱뚱한 체격

마: 아주 뚱뚱한 체격

⑥ 측정 방법과 사용된 기구는 서울 특별 시립 학교 건강 관리소에서 매년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 표본 체격 검사 자료 보고를 위해 사용하는 한국 표준 검사 방법과 기구를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태권도 수련군과 비수련군의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 수련군과 비수련군이 실험 시작 당시에 신장과 체중의 수준이 동일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학년별 수련군과 비수련군의 신장 및 체중을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검정하였다.

### 3. 결 론

태권도 수련생이 비수련생에 비해 성장 발육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년간의 간격을 두고 체중과 키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장에 있어서 1년 동안에 태권도 수련생이 개인 평균 5.88cm가 성장하는 반면 비수련생은 4.92cm가 성장하여 태권도 수련생이 비수련생에 비해 0.96cm의 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19.5%의 빠른 성장을 나타냈다.

2) 체중에 있어서 1년 동안에 태권도 수련생이 개인 평균 4.44kg이 늘어났고 비수련생은 4.42kg이 늘어나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체 총실 지수의 변화에 있어서는 태권도 수련생의 경우 "라"와 "마"에 해당하는 비만아의 수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비수련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4. 제 언

태권도를 배우면 키가 크지 않는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어린이들의 태권도 수련은 올바른 성격 형성의 발달과 더불어 균형있는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자가 그 동안 연구 발표한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올바른 태권도 수련은 I.Q.의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증가시켜 학습 능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태권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

# 행 사 기 록

## 고 단 자

### '93년도 제2차 고단자 (6,7,8,9단) 승단 심사 ('93.6.19, 국기원)

#### 6단

- ▲ 서울: 김경모 지성수 백성기 박영환  
문윤관 남영호
- ▲ 부산: 김재호 박창용
- ▲ 대구: 정재석 이동열
- ▲ 인천: 윤기섭
- ▲ 경기: 박종은 최학근 김임식 강광섭
- ▲ 강원: 최성식
- ▲ 충북: 박승동
- ▲ 경북: 김범선 박상원
- ▲ 국군: 정승래

#### 7단

- ▲ 서울: 민병인 이준호 송후섭 김형원  
김명덕
- ▲ 부산: 양요환
- ▲ 대구: 우영하 김동화
- ▲ 인천: 이화현
- ▲ 경기: 홍성무
- ▲ 경북: 고봉신

#### 8단

- ▲ 서울: 윤선기 김승선 이성우 최주열  
김기용
- ▲ 경기: 이완기
- ▲ 전남: 김현수

## 사 범

### 제75기 사범교육 합격 자 명단 ('93.6.16~29, 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 ▲ 서울
- 최병남 강대진 김준경 송종인
- 강규열 김준기 김도형 이희우
- 서범석 임진동 진홍식 김찬호
- 최진규 정봉래 김두원 장재관
- 유경환 나영진 홍성진 나상수
- 박 호 황귀복 김범산 이종섭
- 김채문 허석균 이희종 권도영
- 염갑수 임기택 최근식 도재효
- 염 일 이천희 김기오
- 조한용 이육기 이현호 김연광
- 서승현 홍세정 이진용 이경원
- 한성선 이용환
- ▲ 부산
- 송학재 김병철 이태학
- 김빈훈 이승룡 손상현 김태갑
- 강명수 차삼선 진기성 김봉윤
- 정익화 김철현 박진호 허승배
- ▲ 대구
- 황성종 우오구 도정환 이대환
- 이우삼 김윤규 양진호 이재상
- ▲ 인천

- 김남근 안성희 권용도 고방선
- 김수환
- ▲ 광주
- 장덕주 정민호 김성주 나광운
- ▲ 대전
- 송길용 조영길
- ▲ 경기
- 김민식 최대욱 이상관 성태호
- 엄성기 이종재 김중원 남정동
- 황인호 김준태 이재우 김종한
- 박선종 이도성 김태근 호중섭
- ▲ 강원
- 김소영 강성인 박현호 최양순
- ▲ 충북
- 김현주 김동현
- ▲ 충남
- 우창화
- ▲ 경북
- 손계용 이정학 권기덕 임보섭
- ▲ 경남
- 김형륜 김경수 임만영
- 최재화 김덕현 안성규 김순현
- ▲ 전북
- 황동순 정병모 김중수 양성주
- ▲ 전남
- 김성현 나상재 김진호 최득룡
- 임민철
- ▲ 제주
- 김현남 김장범
- ▲ 국군

박광길 양승득 박준한 서 인  
 나장영 변재복  
 ▲ 해외  
 유석현 백창훈

## 국 제 대 회

### 제11회 (여자4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8.19~21,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

(남자부)

#### ▲ 핀급

- 1위: 진송태 (한국)  
 2위: GERGELY SALIM (덴마크)  
 3위: EAMON NOLAN (캐나다)  
 CARLOS AYALA (멕시코)

#### ▲ 플라이급

- 1위: JAVIER ARGUDO (스페인)  
 2위: ALYSON YAMAGUTI (브라질)  
 3위: RUBEN PALAFOX (멕시코)  
 HYON LEE (미국)

#### ▲ 밴텀급

- 1위: 김인경 (한국)  
 2위: SAYED NAJEM (캐나다)  
 3위: WONG CHINBENG (말레이시아)  
 WALTER DEAN VARGAS (필리핀)

#### ▲ 페더급

- 1위: 김병철 (한국)  
 2위: MILTON IWAMA (브라질)  
 3위: DAVID KANG (미국)  
 FRANCISCO ZAS (스페인)

#### ▲ 라이트급

- 1위: 박세진 (한국)  
 2위: VICTOR LUKE (캐나다)  
 3위: NUSTAFA DAGDELEN (터키)  
 AZIZ ACHARKI (독일)

#### ▲ 웰터급

- 1위: 임영호 (한국)  
 2위: TSU-IEN LIU (대만)  
 3위: AHMED ZHRAN (이집트)  
 PILAVAKIS ANDREAS (시프러스)

#### ▲ 미들급

- 1위: MIKKAEL MELOUL (프랑스)  
 2위: VICTOR M. ESTRADA (멕시코)  
 3위: JOHN WRIGHT (스페인)  
 LUIS NOQUERA (베네주엘라)

#### ▲ 헤비급

- 1위: 김재경 (한국)  
 2위: ALI SAHIN (터키)  
 3위: THIERRY TROUDART (프랑스)  
 OGHENEJOB O. PETERS (나이지리아)

(여자부)

#### ▲ 핀급

- 1위: ISABEL CRUZADO (스페인)  
 2위: RAHMI KURNIA (인도네시아)  
 3위: LIZA LOPEZ (캐나다)  
 VICKI SLANE (미국)

#### ▲ 플라이급

- 1위: 유수미 (한국)  
 2위: AGUEDA PEREZ (멕시코)  
 3위: INAS ANIS (이집트)  
 GULNUR YERLISU (터키)

#### ▲ 밴텀급

- 1위: WEN TANG (대만)  
 2위: ELIZ DELGADO (스페인)  
 3위: DIANE MURRAY (미국)  
 원선진 (한국)

#### ▲ 페더급

- 1위: 이승민 (한국)  
 2위: MURAY DELIKITAS (터키)  
 3위: WONG CHINBENG (말레이시아)  
 CATHRIN VETTER (독일)

#### ▲ 라이트급

- 1위: MA JESUS SANTOLARIA (스페인)

- 2위: 박경숙 (한국)  
 3위: INEBELLE DIAZ (푸에르토리코)  
 MARINA AGUERO (아르헨티나)

#### ▲ 웰터급

- 1위: 김미영 (한국)  
 2위: MOREO DROSIDOU (그리스)  
 3위: CAROLINA BEJARANO (콜롬비아)  
 PEI-SHAN (대만)

#### ▲ 미들급

- 1위: 박은선 (한국)  
 2위: KATERINA BASSI (그리스)  
 3위: JU YA HSU (대만)  
 VEERA LIUKKONEN (핀란드)

#### ▲ 헤비급

- 1위: 정명숙 (한국)  
 2위: ADRIANA CARMONA (베네주엘라)  
 3위: ANNA WIDEHOV (스웨덴)  
 ELSAVET MISTAKIDOU (그리스)

### 제4회 월드컵 태권도 경기 (9.7.30~8.1, 네덜란드 헤이그)

(남자부)

#### ▲ 핀급

- 1위: HAIDER Abror (덴마크)  
 2위: HSIEH Yao-Yuan (대만)  
 3위: SEKKAT Younes (모로코)  
 MONTALVO David (미국)

#### ▲ 플라이급

- 1위: 서성교 (한국)  
 2위: HOANG Nghi (프랑스)  
 3위: ABUISBEITAN Tareq (요르단)  
 OGU Emmanuel (나이지리아)

#### ▲ 밴텀급

- 1위: ESPARZA PEREZ Gabriel (스페인)  
 2위: FEBRES Joey (미국)

3위: TAPILATU Django (네덜란드)  
CHENG Shao-Hung (대만)

▲ 페더급

1위: ZAS COUCE Francisco (스페인)

2위: 김정호 (한국)

3위: EL UHATTAB Abderrahim (모로코)

MADIGAN Colin (영국)

▲ 라이트급

1위: SANCHEZ ORTEGA Oscar (스페인)

2위: OEZKURU Ercan (독일)

3위: HASSAN Hassan (루웨이트)

MAMNOUH Mustafa (네덜란드)

▲ 웰터급

1위: 장종오 (한국)

2위: WEI Cheng-Hung (대만)

3위: GARCIA BELTRAN Hugo (멕시코)

ZAHARAN Ahmed (이집트)

▲ 미들급

1위: ESTRADA GARIBAY Victor Manuel (멕시코)

2위: BORGATO Paulo (이태리)

3위: BOUWHUIS Jos (네덜란드)  
PETRONE Billy (미국)

▲ 헤비급

1위: 김현일 (한국)

2위: ALAM Yehia (이집트)

3위: PINONTOAN Allan (네덜란드)  
WILKENS O. (독일)

(여자부)

▲ 플라이급

1위: LO Chun-Mei (대만)

2위: PEREZ LOPEZ Agueda (멕시코)

3위: VOUSDEN Janet (영국)  
EL IDRISSE Lalla Bouchra (모로코)

▲ 페더급

1위: LIU Chao-Ching (대만)

2위: JIMINEZ SARAGUETA Idoia (스페인)

3위: MAITIMU Sarah (네덜란드)  
DEKRIEK Darcy (미국)

▲ 웰터급

1위: 조항미 (한국)

2위: DELREAL JAIME Monica (멕시코)

3위: MUSKENS Mirjam (네덜란드)  
PAKH Rozalia (캐나다)

▲ 헤비급

1위: HIPF Bettina (독일)

2위: EL-MARGANY Dina (이집트)

3위: NEJSUM M. (덴마크)  
MARTIN LOPEZ S. (스페인)

국 내 대 회

제5회 경희대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 대회 (93.6.28~30, 수원실내체육관)

(남고부)

▲ 펀급

1위: 박정호(부평기고)

2위: 김덕훈(풍생고)

3위: 장경호(송실고)

박규진(성동고)

▲ 플라이급

1위: 김대훈(동천고)

2위: 김원기(부평기고)

3위: 김천규(동성고)

나호동(풍생고)

▲ 밴텀급

1위: 김정현(서울체고)

2위: 정충민(한성고)

3위: 황주오(남주고)

황선봉(태성고)

▲ 페더급

1위: 최정훈(충북체고)

2위: 김대성(평안고)

3위: 이동주(풍생고)

이영진(성동고)

▲ 라이트급

1위: 이용국(송곡고)

2위: 이준희(태성고)

3위: 정낙기(선인고)

송재현(대성고)

▲ 웰터급

1위: 심기선(대천체고)

2위: 김민우(부산체고)

3위: 안용준(리라공고)

이진우(선인고)

▲ 미들급

1위: 장형철(리라공고)

2위: 장용중(서울체고)

3위: 방원철(여수고)

최석환(송곡고)

▲ 헤비급

1위: 문권수(풍생고)

2위: 문용철(인천체고)

3위: 공명택(리라공고)

홍기성(충남체고)

(여고부)

▲ 펀급

1위: 양소희(천안여고)

2위: 김보인(김제복고)

3위: 최영아(송곡고)  
주윤숙(고양여중고)

▲ 플라이급

1위: 최한솔(경성여실)

2위: 서동미(천안여상)

3위: 최남정(천안여고)  
윤दी희(배성여상)

▲ 밴텀급

1위: 이선영(송곡고)

2위: 김희진(배성여상)

3위: 전영식(천안여고)  
황정은(고창여고)

▲ 페더급

1위: 이경민(시온고)

2위: 신현순(송곡고)

3위: 이정숙(천안여고)

이지은(리라공고)

▲ 라이트급

- 1위: 김옥님(배성여상)
- 2위: 이해경(고양공고)
- 3위: 강해은(경성여실)  
윤미영(충북체고)

▲ 웰터급

- 1위: 한은진(해성여고)
- 2위: 최선미(배성여상)
- 3위: 유은진(문산공고)  
조미례(리라공고)

▲ 미들급

- 1위: 박은선(고양여중고)
- 2위: 정경선(리라공고)
- 3위: 양춘희(김제북고)  
이희영(고양공고)

▲ 헤비급

- 1위: 정명숙(해성여고)
- 2위: 김윤경(경성여실)
- 3위: 서정화(리라공고)  
박선훈(고양여중고)

※ 단체성적

(남고부)

- ▲ 우 승: 풍생고
- ▲ 준우승: 서울체고
- ▲ 3 위: 부평기고
- ▲ 감투상: 리라공고
- ▲ 장려상: 제주남주고
- ▲ 모범상: 부산체고
- ▲ 지도상: 이경배(풍생고)
- ▲ 최우수선수상: 김대훈(동천고)

(여고부)

- ▲ 우 승: 해성여고
- ▲ 준우승: 배성여상
- ▲ 3 위: 경성여실고
- ▲ 감투상: 송곡고
- ▲ 장려상: 시온고
- ▲ 모범상: 김제북고
- ▲ 지도상: 이재수(해성여고)
- ▲ 최우수선수상: 정명숙(해성여고)

## 제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등 대회 (8.21~27, 잠실학생체육관)

(남자중등부)

▲ 핀급

- 1위: 홍플락(구월중)
- 2위: 김태원(부천동중)
- 3위: 명재진(풍생중)  
신화강(청주중)

▲ 플라이급

- 1위: 유인형(청주중)
- 2위: 최원준(부천동중)
- 3위: 서지훈(순천이수중)  
최상목(구월중)

▲ 밴텀급

- 1위: 조원혁(오정중)
- 2위: 김광호(풍생중)
- 3위: 이광수(자양중)  
김광민(구월중)

▲ 페더급

- 1위: 이승재(동성중)
- 2위: 이 철(여수중)
- 3위: 김남규(덕원중)  
신준식(성남서중)

▲ 라이트급

- 1위: 박희철(관교중)
- 2위: 양태영(오주중)
- 3위: 류지광(수유중)  
윤석용(성남서중)

▲ L-웰터급

- 1위: 유승보(고명중)
- 2위: 장원모(함도중)
- 3위: 박창호(동성중)  
정지명(용곡중)

▲ 웰터급

- 1위: 장순호(동성중)
- 2위: 사기훈(여수중)
- 3위: 박동수(공릉중)  
박지훈(영북중)

▲ L-미들급

- 1위: 김선진(단국대부중)
- 2위: 이정태(청주중)
- 3위: 서기풍(배명중)

유경민(부흥중)

▲ 미들급

- 1위: 이상권(용곡중)
- 2위: 김석균(구월중)
- 3위: 진원민(문일중)  
윤귀상(공릉중)

▲ L-헤비급

- 1위: 박동현(문일중)
- 2위: 황동기(경수중)
- 3위: 박동순(배명중)  
박병조(구월중)

▲ 헤비급

- 1위: 한경수(부천동중)
- 2위: 김선철(순천이수중)
- 3위: 이정민(구월중)  
전명환(구월중)

(여자중등부)

▲ 핀급

- 1위: 이진영(자양중)
- 2위: 배순연(동인천여중)
- 3위: 이수진(대원여중)  
박경은(안서중)

▲ 플라이급

- 1위: 전성아(제천여자중)
- 2위: 장명원(대원여중)
- 3위: 안주미(예산여중)  
오성숙(안서중)

▲ 밴텀급

- 1위: 정재은(자양중)
- 2위: 김은혜(오주중)
- 3위: 황지현(만수여중)  
김현주(홍덕중)

▲ 페더급

- 1위: 진정화(홍덕중)
- 2위: 이수정(자양중)
- 3위: 우상원(영란여중)  
이서희(관동중)

▲ 라이트급

- 1위: 채해경(영북중)
- 2위: 오미니(용곡중)
- 3위: 박재연(예산여중)  
김지연(풍남여중)

▲ L-웰터급

- 1위 : 오정희(쌍문중)
- 2위 : 조지미(연희여중)
- 3위 : 정미향(실천중)

▲ 웰티급

- 1위 : 최윤희(자양중)
- 2위 : 이경숙(대원여중)
- 3위 : 김시경(경수중)

▲ L-미들급

- 1위 : 정진영(장평중)
- 2위 : 이현희(대원여중)
- 3위 : 차미경(고양여자중)

▲ 미들급

- 1위 : 박 전(신암중)
- 2위 : 김미란(금산동중)
- 3위 : 박정원(오금중)

▲ L-해비급

- 1위 : 최지은(홍익여중)
- 2위 : 임영지(영란여중)
- 3위 : 양효선(만수여중)

▲ 해비급

- 1위 : 권지희(용곡중)
- 2위 : 박효숙(대원여중)
- 3위 : 김지연(만수여중)

(남자고등부)

▲ 핀급

- 1위 : 최만용(동성고)
- 2위 : 정학재(동천고)
- 3위 : 김태호(대천체고)

▲ 플라이급

- 1위 : 최윤섭(동천고)
- 2위 : 이경호(대천체고)
- 3위 : 강성권(서울체고)

▲ 밴텀급

- 1위 : 이정석(송곡고)
- 2위 : 조삼동(단국대사범대부속고)
- 3위 : 김남수(송곡고)

유용열(풍성고)

▲ 페더급

- 1위 : 김동현(동성고)
- 2위 : 이동주(풍성고)
- 3위 : 김영수(경남체고)

▲ 라이트급

- 1위 : 정낙기(선인고)
- 2위 : 정재균(서울체고)
- 3위 : 김정수(개금고)

▲ 웰티급

- 1위 : 나태성(동성고)
- 2위 : 김경훈(동성고)
- 3위 : 전현우(장화고)

▲ 미들급

- 1위 : 차용희(동성고)
- 2위 : 정강국(송실고)
- 3위 : 목재균(인천체고)

▲ 해비급

- 1위 : 문용철(인천체고)
- 2위 : 김영호(서울체고)
- 3위 : 문권수(풍성고)

(여자고등부)

▲ 핀급

- 1위 : 윤영경(경성여자실고)
- 2위 : 최영아(송곡고)
- 3위 : 주윤숙(고양여자중고)

▲ 플라이급

- 1위 : 서동미(천안여자상업고)
- 2위 : 김병희(은평여자고)
- 3위 : 고승자(충북체고)

▲ 밴텀급

- 1위 : 정현주(송곡고)
- 2위 : 이선영(송곡고)
- 3위 : 이은하(철원여고)

▲ 페더급

- 1위 : 이지은(리라공업고)

- 2위 : 오은하(고양종합고)

- 3위 : 배은정(경성여고)

▲ 라이트급

- 1위 : 강해은(경성여자실업고)
- 2위 : 김옥남(배성여자상업고)
- 3위 : 강광숙(효원고)

▲ 웰티급

- 1위 : 유은진(문산종합고)
- 2위 : 조미례(리라공업고)
- 3위 : 한은진(배성여고)

▲ 미들급

- 1위 : 이희영(고양종고)
- 2위 : 박은주(경성여자실고)
- 3위 : 정경선(리라공업고)

▲ 해비급

- 1위 : 김윤경(경성여자실고)
- 2위 : 정혜옥(인천체고)
- 3위 : 최원아(배성여상고)

※ 단체 성적

(남자중등부)

- ▲ 우 승 : 구월중
- ▲ 준우승 : 부천동중
- ▲ 3 위 : 동성중
- ▲ 감투상 : 철주중
- ▲ 장려상 : 사당중
- ▲ 지도상 : 이화원(구월중)
- ▲ 최우수선수상 : 흥륜(구월중)

(여자중등부)

- ▲ 우 승 : 자양중
- ▲ 준우승 : 대원여중
- ▲ 3 위 : 흥덕중
- ▲ 감투상 : 만수여중
- ▲ 장려상 : 오금중
- ▲ 지도상 : 율곡(자양중)
- ▲ 최우수선수상 : 정재은(자양중)



### (남자고등부)

- ▲ 우 승: 동성고
- ▲ 준우승: 동천고
- ▲ 3 위: 서울체육고
- ▲ 감독상: 풍생고
- ▲ 장려상: 순천공업고
- ▲ 지도상: 이완희(동성고)
- ▲ 최우수선수상: 김동현(동성고)

### (여자고등부)

- ▲ 우 승: 경성여자실업고
- ▲ 준우승: 리라공업고
- ▲ 3 위: 평양여자종합고
- ▲ 감독상: 송곡고
- ▲ 장려상: 철원여자고
- ▲ 지도상: 양성관(경성고)
- ▲ 최우수선수상: 김윤경(경성고)

## 제2회 국방부장관기 전 국태권도대회 (93.9.6~10, 국군체육부대)

### (일반부)

- ▲ 편급
  - 1위: 이정원(상무)
  - 2위: 전수옥(보령군청)
  - 3위: 김병도(지하철공사)
- ▲ 플라이급
  - 1위: 유성호(보령군청)
  - 2위: 이화진(상무)
  - 3위: 배상철(지하철공사)  
최상동(체육선교)
- ▲ 밴텀급
  - 1위: 남학현(상무)
  - 2위: 최원열(상무)
  - 3위: 김완수(태평양체육관)  
박찬수(체육선교)
- ▲ 페더급
  - 1위: 임석섭(지하철공사)
  - 2위: 김병철(상무)
  - 3위: 이두상(상무)  
노창식(보령군청)
- ▲ 라이트급
  - 1위: 김병식(상무)

- 2위: 성의천(상무)
- 3위: 서영배(태평양체육관)  
김용만(상무)
- ▲ 웰터급
  - 1위: 김태형(상무)
  - 2위: 임창현(체육선교)
  - 3위: 신광수(보령군청)  
유봉한(청북선체육관)
- ▲ 미들급
  - 1위: 박종범(상무)
  - 2위: 정주식(상무)
  - 3위: 박세홍(지하철공사)  
조한호(보령군청)
- ▲ 헤비급
  - 1위: 김계경(상무)
  - 2위: 김현일(지하철공사)
  - 3위: 홍윤기(상무)  
최진수(체육선교)

### (대학부)

- ▲ 편급
  - 1위: 유종일(동아대)
  - 2위: 소병관(경희대)
  - 3위: 문성대(한체대)  
김정오(경원대)
- ▲ 플라이급
  - 1위: 임진표(인천천문)
  - 2위: 최영석(경원대)
  - 3위: 조재성(경희대)  
이정훈(군산대)
- ▲ 밴텀급
  - 1위: 김종윤(경희대)
  - 2위: 박병준(성대)
  - 3위: 김 준(경원대)  
유병석(성대)
- ▲ 페더급
  - 1위: 성대중(한체대)
  - 2위: 박병준(한체대)
  - 3위: 김현철(한체대)  
김민수(한체대)
- ▲ 라이트급
  - 1위: 정윤진(경희대)
  - 2위: 장용국(용인대)
  - 3위: 손효봉(충남대)

### 박태용(한체대)

- ▲ 웰터급
  - 1위: 임영호(경희대)
  - 2위: 김길훈(경원대)
  - 3위: 장종오(용인대)  
박동철(계명대)
- ▲ 미들급
  - 1위: 김광수(한체대)
  - 2위: 김정규(경희대)
  - 3위: 최승길(용인대)  
강동국(동아대)
- ▲ 헤비급
  - 1위: 강승수(한체대)
  - 2위: 박형래(용인대)
  - 3위: 서현석(단국대)  
이현석(동아대)

### (여자부)

- ▲ 편급
  - 1위: 유수진(경희대)
  - 2위: 김진실(한체대)
  - 3위: 한 진(태평양체육관)  
김희화(체육선교)
- ▲ 플라이급
  - 1위: 서미라(용인대)
  - 2위: 이순영(용인대)
  - 3위: 김진주(대구협화)  
김주연(대구협화)
- ▲ 밴텀급
  - 1위: 정유경(상명여대)
  - 2위: 황은숙(상명여대)
  - 3위: 김경애(용인대)  
홍지선(인천전문대)
- ▲ 페더급
  - 1위: 윤명숙(상명여대)
  - 2위: 이승민(경희대)
  - 3위: 김미선(인천전문대)  
양은정(성신여대)
- ▲ 라이트급
  - 1위: 박정희(한체대)
  - 2위: 서연화(성신여대)
  - 3위: 김혜선(용인대)  
강귀경(인천전문대)
- ▲ 웰터급

- 1위 : 조항미(경희대)  
 2위 : 정윤경(상명여대)  
 3위 : 이영미(성신여대)  
 정연옥(중부대)

▲ 미술급

- 1위 : 박선미(상명여대)  
 2위 : 박혜영(경희대)  
 3위 : 이은주(성신여대)  
 이종윌(중부대)

▲ 해비급

- 1위 : 추수연(용인대)  
 2위 : 이용락(용인대)  
 3위 : 김태희(성신여대)  
 장 철(경희대)

(군인부)

▲ 편급

- 1위 : 배남식(3군)  
 2위 : 노병승(해병)  
 3위 : 김승호(2군)  
 서원보(공군)

▲ 플라이급

- 1위 : 정현석(해병)  
 2위 : 김민표(3군)  
 3위 : 최진철(육적)  
 김성명(2군)

▲ 밴텀급

- 1위 : 이경호(해병)  
 2위 : 강윤석(공군)  
 3위 : 장용순(3군)  
 송인한(1군)

▲ 페더급

- 1위 : 서민관(해병)  
 2위 : 황동환(해군)  
 3위 : 이주상(육적)  
 장홍준(3군)

▲ 라이트급

- 1위 : 양순열(1군)  
 2위 : 민홍주(2군)  
 3위 : 손경민(육적)  
 장동권(해군)

▲ 웰터급

- 1위 : 김득영(2군)  
 2위 : 이재범(3군)

- 3위 : 윤정원(육적)  
 김순돌(공군)

▲ 미술급

- 1위 : 김관섭(해군)  
 2위 : 장주동(1군)  
 3위 : 이충영(육적)  
 허승민(2군)

▲ 해비급

- 1위 : 양승득(육적)  
 2위 : 한삼석(해병)  
 3위 : 배영태(2군)  
 노경정(공군)

- 2위 : 김실용(명지대)  
 3위 : 김승재(한국체대)  
 박재홍(동아대)

▲ 미술급

- 1위 : 강동국(동아대)  
 2위 : 김광수(한국체대)  
 3위 : 최승길(용인대)  
 하태진(관동대)

▲ 해비급

- 1위 : 이현석(동아대)  
 2위 : 이광섭(청주대)  
 3위 : 김정규(경희대)  
 박형래(용인대)

## 제16회 회장기 전국대 학대회

(93.9.16~17, 국기원)

(남대부)

▲ 편급

- 1위 : 진승태(한국체대)  
 2위 : 소병관(경희대)  
 3위 : 윤종일(동아대)

▲ 플라이급

- 1위 : 김봉찬(조선대)  
 2위 : 김진일(계명대)  
 3위 : 고동완(한국체대)  
 유상문(한국체대)

▲ 밴텀급

- 1위 : 김남우(한국체대)  
 2위 : 장대순(한국체대)  
 3위 : 김현용(경희대)  
 유병석(성균관대)

▲ 페더급

- 1위 : 신보현(청주대)  
 2위 : 안홍엽(용인대)  
 3위 : 강재구(계명대)  
 박민섭(조선대)

▲ 라이트급

- 1위 : 정윤진(경희대)  
 2위 : 박기채(한국체대)  
 3위 : 최만호(성균관대)  
 김인용(계명대)

▲ 웰터급

- 1위 : 김동민(한국체대)

(여대부)

▲ 편급

- 1위 : 유수진(경희대)  
 2위 : 김진성(한국체대)  
 3위 : 이인정(중부대)

▲ 플라이급

- 1위 : 이순영(용인대)  
 2위 : 이화진(경희대)  
 3위 : 모선영(한국체대)  
 강선경(상명여대)

▲ 밴텀급

- 1위 : 황은숙(상명여대)  
 2위 : 정유경(상명여대)  
 3위 : 김경애(용인대)  
 진용순(한국체대)

▲ 페더급

- 1위 : 이승민(경희대)  
 2위 : 김미선(인천전문대)  
 3위 : 김정기(인천전문대)  
 윤명숙(상명여대)

▲ 라이트급

- 1위 : 진혜윤(경희대)  
 2위 : 김혜선(용인대)  
 3위 : 박경숙(경희대)  
 박정희(한국체대)

▲ 웰터급

- 1위 : 김미영(용인대)  
 2위 : 이영미(성신여대)  
 3위 : 신은정(용인대)  
 조항미(경희대)

- ▲ 미술급  
1위 : 박선미 (상명여대)  
2위 : 박혜영 (경희대)  
3위 : 이종필 (중부대)  
이은주 (성신여대)
- ▲ 해비급  
1위 : 이용화 (용인대)  
2위 : 김태희 (성신여대)  
3위 : 신혜진 (상명여대)

추수현 (용인대)

: 윤찬영 (경기대)  
이영미 (성신여대)

(개인성적)

- ▲ 최우수선수상  
: 진승태 (한국체대)
- ▲ 우수선수상  
: 이현석 (동아대)  
진혜윤 (경기대)
- ▲ 감투상

- ▲ 장려상  
: 박은줄 (진주전문대)  
이종필 (중부대)
- ▲ 지도상  
: 양대승 (한국체대)  
진정우 (경기대)

93년 10~12월

# 행사 안내

- 10월 20일~22일 : 제17회 연세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 대회 (연세대 체육관)

● 남녀(남고부·여고부) 각 3체급 이상 1팀만 출전 가능,  
1체급 1명, 개인출전 불가

- 10월 7일~26일 : 제18기 2급 경기지도자연수 (국기원 연수원)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 사진 3×4 5매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시도지부 접수(교육개시 20일전 선착순 마감)

자 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3항 해당자

- 10월 11일~17일 :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조선대 체육관)

- 10월 21일~11월 5일 : 카자흐공화국

알마아타 및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시범단 파견

- 11월 8일~20일 : 제77기 사범 및 3급 사회체육지도자교육 (국기원 연수원)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 사진 3×4 5매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시도지부 접수(교육개시 2주전 선착순 마감)

자 격 : 만 20세이상, 4단 이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 4항 해당자

- 11월 10일~12일 : 93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국기원)

자 격 : '93년도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남자부-고등학교 이상  
여자부-만 15세 이상

접 수 : 대회 참가신청서 1부  
대한 태권도협회(대회 10일전 마감)

- 11월 27일~29일 : 태권도 한마당 '93(88체육관-감서구 등촌동 소재)

자 격 : 전국 유단(품)자  
대회종목 : 개인종목(손남격파·주먹격파·발격파·머리뛰어차기·놀이 뛰어차기·종합격파)  
단체종목(일반품새·창각품새·건강품새)

참가신청 : 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제안서(소정양식) 1부

접 수 : 대한태권도협회  
11월 10일 마감, 11월 12일 14:00 올림픽회관 1층 중회의실 대표자 회의

- 12월 4일 : 4차 고단자(6~9단) 승단심사

자 격 : 심사규정(92.1.1개정) 제8조 승단연한 및 연령 경과자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  
& 9단 응심자는 이력서 1부 추가제출  
접 수 : 대한태권도협회(심사 1주일전 마감)

## 제11회(여자 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93. 8. 19~21,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

130개 세계태권도연맹회원국중 87개국에서 1300여명의 대표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는 6체급을 휩쓸며 종합우승, 11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여자부는 금5, 은1, 동1개를 획득하는 개가를 울리며 종합 4연패에 성공했다.



▲ 한국대표선수단 입장 모습



▲ 개회식 모습



▲ 최고의 기량을 펼쳐보이며 세계챔프에 도전하는 선수들.

# 제4회 월드게임 태권도 경기

93. 7. 30~8. 1, 네덜란드 헤이그

세계스포츠인들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올림픽종목의 스포츠잔치인 월드게임 태권도경기에 참가한 한국대표선수단은 총12개 체급중 금4 (남3, 여1) 은 1개를 따내며 세계최강국임을 자랑했으며 스페인, 대만이 그 뒤를 이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 월드게임 태권도경기에 출전한 한국대표선수단.



◀ 헤비급 금메달을 목에 건 김현일선수.



# 제5회 경희대총장기 전국남녀고교대회

93. 6. 28~30, 수원실내체육관

대학내 태권도학과 개설로 태권도의 학문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대회창설로 태권도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온 경희대총장기대회에서 동생고와 혜성여고가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 개회식에서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여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혜성여고가 우승기를 자랑하고 있다.

# 제4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중고 태권도대회

93. 8. 21~27, 잠실학생체육관

전국의 232개 중고등학교에서 총1700여명의 대규모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을 향해 치열한 접전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경성여실고가 3체급을 석권하며 여고부 정상을 탈환했고 동성고는 4체급 금메달을 휩쓸며 태권도 명문고로서의 위용을 떨쳤다.



▲ 홍선수의 강력한 뒤돌려차기에 민첩하게 빠져나오는 청선수의 대결



# 제16회 회장기 전국 대학 태권도대회

93. 9. 16~17, 국기원

전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245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수준높은 태권도 기술을 발휘한 가운데 남자부는 한국체육대학이, 여자부는 경희대가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홍선수가 오른발 돌려차기를 격중시키며 득점을 올리고 있다.



◀ 경희대가 여대부 우승을 차지, 우승기를 수상하고 있다.

## 제2회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93. 9. 6~10, 국군체육부대

민·군 화합분위기 조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지난해 창설된 국방부 장관기 대회가 각군 7개부대에서 선발된 60여명의 군선수부를 비롯해 남자 일반부, 대학부, 여자부 등 4개부 경기가 펼쳐졌다.

군팀에서는 해병대사령부가 우승을 차지했고 민간팀에서는 상무, 경희대, 상명여대가 부별 우승으로 우승기를 가져갔다.

▶ 화려하고 웅장하게 펼쳐진 개회식.



▶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상명여대가 우승기를 수상하고 있다.